

통권 제30호 | 2015

# 흥성문화

## 태기산성

6월 10일 신묘년 오병오벽 초  
이로라다나성유  
다세전있에하진은  
발았이틀그은고남  
해위왕사오성아를에다  
는리기문더고있하러문  
루를이내러미남없싸을일  
이왕을설0가수잇석6  
계산막성천0나다표월  
정고지에는2자이있이11수  
의덕가을1년찾고자년군  
군리의이있는있고고성  
창달한기제레있취전하8황  
평로진기세들이자를전9  
과잉기플크의몰벳일애  
군산말에이성산미잇세  
성은대구맞은사아후  
될호시라을르고자삼고  
은의신군따참이가하  
산리삼는데에코월호  
기미는나의록있고호  
대/에어라기이편의를



# 문 | 화 | 비 | 전 | 선 | 언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하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재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 아, 태기산성 泰岐山城

천년 비운(悲運)의 역사(歷史)가  
시누대로 자라는 태기산성 터엔  
오늘도 구름장이 울며 넘는다.



시인. 김 성 수

산 능선을 따라 성곽 흔적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고  
군창(軍倉)과 관청지(官廳址)로 보이는  
평편한 땅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울창하여  
세월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듯

군사들이 마시었을 샘물은  
짐승들의 용달샘이 되었고  
격전의 그 옛날  
밀고 밀리던 전쟁터엔  
무심한 산새들만 날아오르고 있다.

무너진 성터엔 태기왕의 한(恨)이  
이끼로 피어  
천년 풍우 속에도  
둘마다 푸르게 남아 있고  
태기산성비(泰岐山城碑)에 새겨진  
애달픈 역사의 기록을  
소슬바람이 읽고 있다.

천혜의 요새(要塞)였지만  
천운(天運)이 다하여 무너졌던  
아, 태기산성!  
그 저항의 역사는 바람이 되어  
숲을 흔들고  
끝내는 천년 애달픈 염원이 되어  
강물로 흘러 내린다.

이 땅 어디엔가는  
유토피아를 갈망하던 그날의 그 열망이  
생생히 살아있으리라  
오늘도 태기산성 터엔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병사들의 함성으로 아련하게 들려온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도 황성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함께 애써 주신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가 크셨기에 가능했고 큰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황성문화원장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향토지인 ‘황성문화 3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에도 아득한 옛날부터 온갖 애환 속에, 이 땅을 지키고 가꾸며 살다간 삶의 흔적들이 오랜 세월만큼 수없이 겹쳐져 비교적 또렷한 것,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아주 없어졌거나 곧 사라져 버릴 의미 있는 자취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문화원에서는 이러한 가치 있는 향토사를 발굴하기 위해 특히 노력하였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문화원이 지향하여야 할 역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황성문화’를 서른 번째 발간하면서 묻혀 있는 귀중한 향토사가 재조명되고 향토지에 실릴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우리 고장의 귀중한 숨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또 하나의 의미있는 향토지가 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 하셔서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황성문화를 가장 사랑하며 도와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정재영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규호 군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 12.

황성문화원장 박 순 업

## 횡성문화예찬



횡성군수

우리 횡성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자랑스러운 횡성의 문화를 군민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해온 ‘횡성문화’가 어느덧 통권 30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자면 가장 왕성한 장년에 접어들었으니 바야흐로 횡성의 문화가 한창 꽃을 피울 때가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모여 지역의 문화가 되고, 지역의 문화가 모여 한 국가의 문화가 되고 또 인류의 문화로 확장됩니다.

지역의 문화가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이 한 국가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허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화는 어찌 보면 먹고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일생을 보내게 된다면 결코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양손에 빵을 들고 있으면 그중 하나는 꽃과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문화라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6기의 횡성이 경제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향해 가면서도 문화예술정책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인류역사가 증명하듯이 융성한 문화와 함께 이룩한 부는 쉽게 스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횡성문화가 통권 30호에 이르는 동안 꼼꼼하고 집요하게 발굴해온 우리 지역의 문화는 차곡차곡 쌓여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은 채 새로운 빛을 발하며 횡성의 밝은 미래를 비추주고 있습니다.

횡성의 역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랑이며, 횡성의 문화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문화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횡성문화원에 경의를 표하며, ‘횡성문화’ 통권30호 발행을 5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횡성군수 한 규 호

우선 2015 황성문화 『통권 제3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황성문화’가 발간되면서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황성문화집이 향토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황성군의회 의장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올바른 자료 발굴 등을 통해 이번 ‘2015 황성문화’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성문화원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왔으며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향토사 연구와 문화 자료의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의 창달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황성 문화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책이 발간되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과 집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황성문화지가 우리 고장을 지켜나가는 향토문화지로서 향토문화예술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황성군의회 의장 한 창 수

# Contents

문화 비전 선언문

발간사 | 문화원장

격력사 | 군수

축사 | 의장

## I. 향토문화의 연구

- \* 문헌과 지명유래에 나타난 태기왕의 실제 | 이영식 ▶ 012
- \* 횡성 향일의병의 주둔지 봉복사와 그 의미 | 홍주민 ▶ 030
- \* 조선중기 가족묘 형태와 관리 | 박순업 ▶ 064

## II. 향토문화숨결

- \* 횡성의 인물 유적을 찾아서 | 김동정 ▶ 076
- \* 횡성의 문인 삽교(雪橋) 안석경(安錫敬)  
- 제46회 한국한문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 ▶ 099
- \* 맛있는 휴식 안흥찐빵 축제 | 박현숙 ▶ 104

##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 \* 횡성에서 보이는 딱정벌레 무리 | 한상균 ▶ 112
- \* Photo Essay 외로우니까 허수아비다.  
고네이베루 '싫다리' 를 건너다. | 정재영 ▶ 150

#### IV. 학습문화의 고찰

- \* 학생 행복의 지렛대는 인성이다 | 현원명 ▶ 170
- \* 평생학습도시 횡성 | 횡성군 ▶ 179

#### V. 문화유산을 찾아서

- \* 2015 아산문화유적지를 다녀오며 | 이병곤 ▶ 186
- \* 이천과 여주의 문화 유적을 찾아서 | 조기동 ▶ 196
- \* 대가야 문화권을 찾아서 | 김인규 ▶ 212
- \* 횡성군 향토문화유적지답사를 다녀와서 | ▶ 224  
- 이미래(대동여중), 김범현(안흥고), 진정민(안흥고), 황동원(민사고), 송서현(민사고)

#### VI. 문예마당

- \* 시 | 가을 I, II | 진광수 ▶ 244
- \* 시 | 새벽안개 | 김은주 ▶ 246
- \* 수필 | 논배미 집 | 최보정 ▶ 247
- \* (故)이연승선생추모비설립 18주년기념 글짓기대회 ▶ 250  
→ 동시 | 모두의 해님 → 산문 | 겨울

#### VII. 문화원소식

- 2015 문화사업실적 ▶ 256
- 문화원 회원명부 ▶ 269





# I. 향토문화의 연구

- \* 문헌과 지명유래에 나타난 태기왕의 실제 | 이영식
- \* 횡성 향일의병의 주둔지 봉복사와 그 의미 | 홍주민
- \* 조선중기 가족묘 형태와 관리 | 박순엽

# 문헌과 지명유래에 나타난 태기왕의 실제



이 영 식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 1. 머리말

황성군 여러 마을에는 왕과 연계된 자연물, 유적, 성곽, 지명 등이 전승되고 있다. 강림지역에서는 조선조 3대 왕인 태종과 그의 스승이었던 운곡 원천석 선생이 연계된 태종대, 횡지암, 변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갑천면, 청일면, 둔내면 등지에는 진한(辰韓)의 마지막 군주 태기왕과 관계된 태기산, 태기산성, 어답산, 병지방 등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태종은 역사적 인물로 뚜렷하지만, 후자인 태기왕은 지역민에게 회자될 뿐 역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다.

황성지역과 태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정리되어 있지만,<sup>1)</sup> 태기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사서(史書)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황성군은 물론 홍천군

\* 이 글은 2015년 9월 3일(황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 황성군이 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사가 주관한 '황성 태기왕 자산 연계 활용 심포지엄'에서 글쓴이가 발표했던 『황성군 태기왕 설화의 문화적 해석』을 바탕으로 주제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이다.

1) '태종 20권 10년 12월 20일 (임자) 3번째 기사 / 잠저에 있을 때 글을 읽었던 원주 각림사에 향을 내려주다', '태종 24권 12년 10월 17일 (기사) 5번째 기사 / 각림사 중들이 조세를 많이 거두어 전객이 관청에 고소한 사건을 덮어 두라고 명하다', '태종 28권 14년 윤9월 14일 (갑인) 1번째 기사 / 원주 각림사에 거동하다', '태종 29권 15년 2월 3일 (신미) 1번째 기사 / 강무할 장소를 정하다', '태종 31권 16년 4월 28일 (경인) 2번째 기사 / 사승으로서 충창하고자 하여 철 1천 근을 원주 각림사에 주다', '태종 28권 14년 윤9월 13일 (계축) 1번째 기사 / 횡천 실미원에 머무르다', '태종 28권 14년 10월 6일 (병자) 2번째 기사 / 실미원 냇가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밤에 환궁하다', '태종 30권 15년 10월 9일 (계유) 1번째 기사 / 횡성 실미원 들에서 물이꾼을 놓아 보내다. 경상도 도관찰사 안등이 술을 버치다' 등과 같이 '태종실록'에는 태종이 횡성(당시는 원주)에 있던 각림사에서 공부를 했던 인연, 실미원에서 강무하던 사실 등을 정리해놓고 있다.(이상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인 <http://www.history.go.kr/>를 참조.)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태종과 각림사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인 <http://db.itkc.or.kr/>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6권 강원도 원주목 참조.

서석면, 평창군 봉평면 등지에서 태기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데,<sup>2)</sup> 지역에서는 그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산의 이름을 태기산,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싸웠다는 석성을 태기산성이라 한다. 전설에서 태기왕은 삼한의 한 나라였던 진한(辰韓)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데,<sup>3)</sup> 진한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나라이기에 그 나라 대한 이야기가 여러 사서(史書)에 정리되어 있다.<sup>4)</sup> 하지만 태기왕에 대한 기록은 그 어느 사서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를 역사적 인물로 살피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 2) 『개벽』 42호, 개벽사, 1923.; 『강원도지』, 강원도, 1940.; 『강원도지』 상권, 강원도, 1957.;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한글학회, 1967.; 『군지』, 황성군·황성군 교육청, 1967.; 『태백의 설화』 상, 강원일보사, 1974.; 『한국의 발견』 강원도, 뿌리깊은 나무, 1982.; 『황성군지』, 황성군, 1986.; 『강원문화연구』 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6.; 『봉평면지』, 평창문화원, 1991.; 『우리고장 흥천』, 흥천군, 1992.; 신구선, 『어답산』, 황성군 갑천면 추동출장소, 1997.; 『강원도 땅이름』, 한국도지공사 강원지사, 1997.; 『둔내면지』, 둔내면지편찬위원회, 1998.; 이영식, 『황성의 지명유래』, 황성문화원, 2001.; 『황성군지』, 증보판, 황성군, 2001.; 『황성의 구비문학』, 황성문화원, 2002.; 『강원의 설화』 II 강원도 내륙 남부, 강원도, 2005. 참조.
- 3) 황성군이나 흥천군 서석면의 태기왕 관련 설화에서는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으로 전승되고 있으나, 평창군 봉평면 일대에서는 맥국의 왕 '태기왕'로 전승되고 있다. 나아가 봉평면 지역에서는 '태기'는 왕이 아니라 맥국의 '태자'로 전승되는 각편도 있다. (『강원의 설화』 II 강원도 내륙 남부, 강원도, 평창군 122. 『태기왕 전설』 참조.)
- 4) 진한에 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第一 혁거세 거서간에는, "시조. 성은 박씨(朴氏)이고 이름은 혁거세(赫居世) 오봉(五鳳) 원년 갑자(甲子) 4월 병진(丙辰) 혹은 정월 15일이라고도 한다. 에 왕위에 오르니, 이를 거서간(居西干) [주식;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왕호이다. 박혁거세만이 사용하였다. <삼국유사> 권1, 기이2, 신라 시조 혁거세왕 에는 '거슬한(居瑟郿)'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뜻은 진한(辰韓)의 말로 왕이나 준귀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되어 있다.]이라 했다. 그때 나이는 13세였으며, 나라 이름을 서나벌(徐那伐)이라 했다. 이보다 앞서 조선(朝鮮) 유민들이 산국 사이에 나뉘어 살아 육촌을 이루었다. 첫째는 알천(闕川) 양산촌(楊山村), 둘째는 돌산(突山) 고허촌(高墟村), 셋째는 취산(薺山) 진지촌(珍支村) 간진촌(干珍村)이라 한다. 넷째는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 다섯째는 금산(金山) 가리촌(加利村), 여섯째는 명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진한(辰韓) 육부(六部)가 되었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g\\_001r\\_0020\\_0010](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g_001r_0020_0010))  
 『梁書』 東夷列傳 新羅에는, "新羅는 그 선조가 본래 辰韓의 종족이었다. 辰韓 [주식; 辰韓의 위치는 『三國志』의 '馬韓之東'에 따라 『南史』, 『北史』, 『翰苑』 등이 거의 같게 기록하고 있다. 국내 기록의 경우에도 『三國史記』, 『新羅本紀』, 脫解尼師今條의 '以帛婁卵并寶物 置於積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金官人怪之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에서 보듯이 辰韓은 海岸에 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高麗史』를 비롯하여 『世宗實錄地理志』의 '慶尚道在辰韓 爲辰韓 至三國爲新羅' 나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慶尚道本辰韓之地 後爲新羅所有' 및 『八域志』의 '全羅之東則慶尚也 慶尚則古下韓辰韓地' 에도 辰韓은 경상도지역에 있던 나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뒤 韓百謙의 『東國地理志』 나 安鼎福의 『東史綱目』에서 그것은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李丙燾가 『三韓問題의 新考察』에서 辰韓의 위치를 韓半島 중심부로 比定함으로써 새로운 爭點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하여 任昌淳과 金貞培는 李丙燾說을 반대하고 辰韓=慶尚道說을 옹호하였다. (任昌淳, 『辰韓位置攷』; 金貞培, 『三韓位置의 從來說과 文化性格의 檢討』) 이어 千寬宇도 『辰·弁韓諸國의 位置試論』에서 辰韓을 洛東江 以東으로, 弁韓을 낙동강 以西地方으로 정리한 바 있다.]을 秦韓이라고도 하는데, [梁나라와는] 서로 1만리쯤 떨어져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秦나라 때 流亡인들이 役을 피하여 馬韓으로 가니, 마한에서는 동쪽 땅을 분할하여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이 秦나라 사람인 까닭에 그 나라 이름을 秦韓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언어와 물건 이름은 중국 사람이 쓰는 것과 비슷하니 나라(國)를 邦이라 하고, 羆(豹)을 狐, 도독(賊)을 寇, 연희사에서 술잔을 돌리는 것(行酒)을 行醢이라 한다. 서로 부르는 데는 모두 徒라고 하여 마한과 같지 아니하다. 또 辰韓의 포은 항상 馬韓 사람을 세워 대대로 이어 가고, 진한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없었으니, 그들이 분명히 홀리 들어와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辰韓은] 항상 마한의 지배를 받았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o&setId=376644&position=86>) 등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태기왕 관련 이야기가 언제부터 지역민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그에 대한 최고(最古)의 기록은 어디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까? 태기왕 설화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기란 요원하겠지만, 이들이 정리된 문헌 및 내용을 살피는 일은 그 요원한 일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사서 및 여러 도서에 정리된 태기산과 태기왕, 그리고 지명유래에 나타난 태기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문헌 속의 태기산과 태기왕

태기산의 원래 이름인 덕고산이 사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世宗實錄』地理志 江原道 橫城縣<sup>5)</sup>에서이다. 여기에 덕고산과 덕고산성에 대해 “섬강(蟾江)은 그 근원이 횡성(橫城) 덕고산(德高山)에서 시작하여 횡성현을 거쳐서 원주 이천(梨遷)·갑곶이[甲串]를 지나 흥원창(興原倉)에 이르러 섬강이 되어 여강(驪江)으로 들어간다.”, “덕고산 석성(德高山石城)이 현의 동북쪽 49리 50보(步)에 있다. 둘레가 5백 68보 5척이며, 한 내가 있는데, 장류(長流)하여 마르지 아니한다. 또 군창(軍倉) 5칸과 관청(官廳) 2칸이 있다.”<sup>6)</sup> 등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종실록』지리지보다 80여 년 뒤인 1530년에 완성한 『新增東國輿地勝覽』강원도 횡성현에서는 “덕고산(德高山) 현의 동쪽 82리, 강릉부 경계에 있다.(在縣東八十二里江陵府界)”, “덕고산성(德高山城) 둘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 6백 53척이다. 안에 우물 하나가 있고, 군창(軍倉)이 있다. 지금은 반이나 퇴락하였다.(石築周三千六百五十三尺內有一井有軍倉今半頽落)”<sup>6)</sup> 등과 같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된다.

5) 본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하 별도의 설명이 없는 역사서의 인용은 이 사이트를 활용한다. 아울러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원문은 필요한 경우만 제시하도록 하겠다.(<http://sillok.history.go.kr/>)

6)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VI, 민족문화추진회, 1988 중판, 62쪽.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200여 년 뒤에 간행된 『輿地圖書』 강원도 횡성현에서는 덕고산과 덕고산성에 대해 “德高山 在縣北七十里自江陵五臺山西來一百二十餘里北接洪川界封黃塲山有奉福寺”, “自官門東距七十里德高山古城石築圓三千六百五十三尺內有一井今廢”<sup>7)</sup>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 이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횡성현과 접해 있는 홍천현 山川條에서 ‘공작산’에 대해 “孔雀山在縣東二十五里?城泰其山主脈”<sup>8)</sup>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작산의 주맥인 泰其山은 횡성군의 덕고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의 泰岐山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태기산에 대한 최초의 표기를 『大東地志』에서 찾고 있는데,<sup>9)</sup> 이보다 100여 년 앞서 덕고산을 태기산으로도 썼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여지도서』보다 60여 년 뒤에 발간된 『關東誌』에서는 “관문 동쪽 70리 거리에 덕고산(德高山)에 고성(古城)이 있는데, 석축이며, 둘레가 3,653척으로 안에 우물이 하나 있다. 지금은 폐철되었다.”, “덕고산(德高山) 현의 북쪽 70리에 있는데, 강릉 오대산(五臺山)에서 서쪽으로 120리를 와서 북쪽으로 홍천 경계에 있는 봉황장산(封黃腸山)과 접하며 봉복사(鳳腹寺)가 있다.”<sup>10)</sup>와 같이 덕고산과 산성을 정리되어 있으며, 『관동지』보다 30여 년 뒤에 김정호가 정리한 필사본 『대동지지』에서는 “德高山 一云泰岐山北七十里江陵界”, “德高山古城 周二千六百五十三尺井一”<sup>11)</sup>과 같이 덕고산과 덕고산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대동지지』에서는 앞에서 살폈던 『여지도서』의 홍천현 산천조에서와 같이 모두 ‘태기산’으로 정리하

7) 『여지도서』(한국사료총서 제20), 대한민국 문교부·국사편찬위원회 편집 발행, 1973, 599쪽.

8) 위의 책, 603쪽.

9) 그동안 ‘태기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대동지지』의 횡성 山水條의 ‘泰岐山一云泰岐山’를 들었다.(유재춘, 『횡성 태기산성의 유적현황과 역사적 고찰』, 『태기산성과 횡성』, 학술세미나, 횡성문화원, 2003년 12월 19일, 10쪽.) 물론 글자에 있어 ‘泰其山’과 ‘泰岐山’은 차이가 있으나, 이곳에서 지칭한 ‘泰其山’은 문맥으로 보아 ‘泰岐山’을 가리키는 것이라 판단한다. 근래에 와서도 태기산은 太岐山(대동신문 1948년 12월 11일 ‘김형일 제8연대장, 오대산지구의 전황 발표’ 기사에서), 太岐山(남조선민보 1948년 11월 19일 ‘물정소연한 강원지대 횡성근방도 폭행빈발’ 기사에서), 泰基山(남조선민보 1948년 11월 19일 ‘오대산중심인민군도 오죽 응중지서’ 기사에서)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다. 이때까지도 태기산에 대한 한자 표기가 글쓴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태기산의 한자표기인 ‘泰岐山’이 당시까지도 확실하게 굳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0) 『국역 관동지』, 강원도, 2007, 596쪽.

11) 『大東地志』, 한국학문헌연구소 편(아세아문화사), 2006, 339쪽.

였으나, 표기에서 ‘泰岐山’으로 하고 있어 『여지도서』의 ‘기(其)’와 다름을 확인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표기하는 ‘泰岐山’은 『대동지지』에 처음 나타나지만, 발음이 같고 표기만 다른 ‘태기산(泰其山)’은 이보다 100여 년 앞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대동지지』에서는 산성의 둘레가 앞의 사서들과 一千尺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기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후 1907년에 발간된 『대한자강회월보』 제12호 「大韓地誌」<sup>12)</sup>와 1911년에 정리된 필사본 『朝鮮地誌資料』<sup>13)</sup>에서는 ‘泰岐山’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태기왕 및 태기산성과 관계된 설화는 1923년에 간행된 월간지 『개벽』 제42호에 ‘嶺西八郡 嶺東四郡’의 큰 제목으로 시작된 글 안에 ‘朝鮮의 第二開城인 橫城郡’의 소재목으로 횡성군을 소개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 1〉

橫城邑 東 8里許에는 德高山이 있고 그 산에는 주위 3,653尺의 石城이 있으며 城內에는 井戶 及 軍糧倉의 形跡이 있다. 俗傳에 이것은 泰岐王의 所築이라 한다. 然而 泰岐王은 何人인지 別로 可考할 處가 攄스나 東史에 依하건대 「漢宣帝五鳳元年辰韓主爲新羅始祖赫居世所逼, 自慶州循海而北, 住嶺東, 德高山在江陵地界與嶺東相接」이라 운운하고 橫城 古誌에 德高山은 俗稱 泰岐山이라 하였스즉 泰岐王은 이 辰韓王인 것이 無疑하다. 하야간 橫城에는 泰岐王이 遺跡이 만이 있다. 즉 西川上流의 甲川이 있는데 傳說에 泰岐王이 그 川上에서 治兵하다가 甲冑가 水에 漂流한 고로 甲川이라 名하였다 하고 又縣北 20여 里許에 御榻山이 잇스니 俗傳에 泰岐王 避兵地라 하며 又 甲川에 仇里峴이 잇스니 一名은 蟻峴이라. 俗傳에 泰岐王이 此地에 過할 時에 大蟻이 當路하였슴으로 仍名하였다 하고 또 村名에 馬勿里가 잇스니 泰岐王의 秣馬하

12)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setId=229264&position=0> “五臺西次の山은 曰 銀頭嶺과 燕方, 淸涼, 泰岐山이나 北으로 孔雀山에 至하고 南으로 五音山에 至하고 西南으로 三馬, 不動, 上元, 龍門山에 至하고”

13) 『朝鮮地誌資料』 江原道篇, 경인문화사, 2007, 73쪽. 한편 이 자료에서는 청릉면 남산리와 둔내면에 각각 德高山이 있음을 적고 있는데, 이는 현재 소재 지역명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르지 않다. 덕고산은 현재 청음리에 속해 있고, 둔내면 덕고산은 안흥면 소사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증원의 다음의 책을 참조.(신증원,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경인문화사, 2007.)

던 곳으로서 馬秣里라 칭하다가 訛傳되야 馬勿里라 칭한다云하다.<sup>14)</sup>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밑줄 친 ‘東史에 依하건대’이다. 곧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진한의 태기왕이 신라 시조 혁거세에게 쫓겨 경주에서부터 바다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와서 강릉과 경계인 덕고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東史』에서 가져왔고 한다.<sup>15)</sup> 이에 필자가 『동사』를 확인했으나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sup>16)</sup> 그렇다면 위의 글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일까? 현재 필자의 능력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글쓴이가 다른 데에서 참고한 것인데 착오에 의해 『동사』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진한, 태기왕, 신라, 박혁거세, 태기산성 등이 함께 정리되면서 이야기로까지 전개된 태기왕에 대한 최초의 글이다.



태기성터

14)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setId=229264&position=1>

15) 『동사』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종휘(1731~1797)가 쓴 것으로, 그의 문집 『수산집』에 함께 정리되어 있는 역사서이다. 『수산집』은 그의 아들이 1803년에 간행했다.(<http://e-kyujanggak.snu.ac.kr>)

16) 이종휘 저, 김영삼·정재훈, 『동사』, 소명출판사, 2004. 글쓴이가 원문이 아닌 번역본을 살펴서 그러한지 모르겠으나, 『동사』에는 「漢宣帝五鳳元年辰韓主爲新羅始祖赫居世所逼, 自慶州循海而北, 住嶺東, 德高山在江陵地界與嶺東相接」의 내용이 없었다.

『개벽』에 정리된 ‘덕고산성’ 이야기는 1940년 한문으로 발행한 『江原道誌』에서도 그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sup>17)</sup>

## 〈자료 2〉

덕고산성(德高山城) 군의 동쪽 8리에 있다. 진한(辰韓)의 임금 태기왕(泰岐王)이 신라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에게 쫓겨나 이곳으로 들어와 성을 쌓고 살았다. 성의 길이가 3,653척인데 지금 그 성터에 우물과 집 및 군량 창고의 형적(形跡)이 남아 있다. 흔히 태기산성(泰岐山城)이라 한다. 안에 또 대궐의 터가 있다. 동사(東史)에, “한(漢) 신제(宣帝) 오봉(五鳳) 원년(B.C.57년) 경진년<sup>18)</sup> 한(韓)의 임금이 신라 시조 박혁거세에게 핍박을 받아 경주(慶州)로부터 바다를 따라 북쪽으로 가 영동(嶺東)의 덕고산(德高山)에 이르렀으나 강릉(江陵)의 경계와 서로 접해있다. 태기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이 사람일 것이다.”<sup>19)</sup>

이후 1959년에 발행한 ‘『江原道誌』상권’<sup>20)</sup>에서는 앞에서 발행한 『강원도지』보다 내용이 더 확대되어 태기왕의 첫 싸움터로 ‘삼랑진(三朗津)’이 설정되고, 태기왕 부하들이 성내에 땅을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었다고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1967년에 황성군교육청에서 발행한 황성군 최초의 군지인 『郡誌』<sup>21)</sup>에서도 1959년에 발행한 ‘『강원도지』상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후 발행한 『태백의 설화』<sup>22)</sup>, 『한국의 발견』<sup>23)</sup>, 『황성군지』<sup>24)</sup>, 『둔내면지』<sup>25)</sup>, 『황성군지』증보판<sup>26)</sup>, 『황성의 구비문학』<sup>27)</sup> 등의 ‘태기왕’, ‘태기산성’ 이야기도 앞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둔내면지』와 『황성군지』증보판에서는 이들 내용에 태기왕의 비인

17) 『강원도지』는 강원도에서 2005년에 발간한 『國譯 江原道誌』를 참고하였다.

18) 경진년(庚辰年); 한(漢) 신제(宣帝) 오봉(五鳳) 원년은 경진년이 아니라 갑자년(甲子年)이다.

19) 밑줄의 경우 원문에 “漢宣帝五鳳元年庚辰韓主爲新羅始祖赫居世所逼 自慶州循海而北 至于嶺東德高山與江陵界相接 所稱泰岐王 無乃是歟”(157~158쪽)로 정리되었는데, 원문을 옮기는 과정에 ‘庚’자가 추가 되면서 ‘辰韓主’가 ‘庚辰年’과 같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

20) 『江原道誌』上卷, 강원도, 1959, 801~802쪽.

21) 『郡誌』, 황성군·황성군교육청, 1967, 72~73쪽.

22) 『태백의 설화』상, 강원일보사, 1974, 235~236쪽.

23) 『한국의 발견』 강원도, 뿌리깊은 나무, 1982, 242~243쪽.

24) 『황성군지』, 황성군, 1986, 755~756쪽.

25) 『둔내면지』, 둔내면지편찬위원회, 1998, 253~254쪽.

26) 『황성군지』증보판, 황성군, 2001, 1443~1444쪽.

27) 『황성의 구비문학』, 황성문화원, 2002, 1990~1991쪽; 2079~2081쪽.

‘아라 왕비’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데, 출판연도를 고려하면 『횡성군지』증보판이 『둔내면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항목 \ 도서명	시기	이주국	이주왕	상대국	산(청일)	산성	성둘레
세종실록 지리지 (1454)					德高山	덕고산성	568步 5尺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德高山	덕고산성	3,653尺
여지도서(1760)					德高山 泰其山	덕고산고성	3,653尺
관동지 (1829~1831)					德高山	덕고산고성	3,653尺
대동지지 (1861~1866)					德高山 泰岐山	덕고산고성	2,653尺
대한자강회월보 제12호(1907)					泰岐山		
조선지리지자료 (1911)					泰岐山		
개벽 제42호 (1923)	漢宣帝五鳳元年 (BC57년)	진한	태기왕		德高山 泰岐山	태기왕의 城址	
강원도지(1940)			태기왕		德高山		
강원도지(1959)	단기 2270년경	진한	태기왕	신라	德高山	태기성 덕고산성	11町餘
한국지명총람 (1967)		진한	태기왕	박혁거세	泰岐山		
[횡성]군지(1967)	서기 937년경	진한	태기왕	박혁거세	德高山 泰岐山	태기성 덕고산성	3,653尺
태백의 설화 (1974)	서기 937년경	진한	태기왕	박혁거세	덕고산	태기성지	11町錄(餘)
강원총람(1975)						덕고산성	3,653尺
한국의 발견 강원도(1982)		진한	태기왕	박혁거세	덕고산 태기산	태기산성	3,653尺
횡성군지(1986)	1,500여 년 전	진한	태기왕	박혁거세	덕고산 태기산	태기산성	3,653尺
강원문화연구 (1986)			태기왕		태기산		
			태기왕		태기산	태기산성	
봉평면지(1991)		맥국	태기왕	예국	태기산		
		진한 맥국	태기왕	신라 예국	덕고산 태기산	태기산성	
어담산 신구선 (1997)		진한	태기왕				
강원도 땅이름 (1997)		진한	태기왕	박혁거세	태기산	태기산성	
둔내면지(1998)		진한	태기왕	박혁거세	덕고산 태기산		

횡성의 지명유래 (2001)		진한	태기왕	박혁거세	태기산		
횡성군지 증보판 (2001)	1,500여 년 전	진한	태기왕	박혁거세	덕고산 태기산	덕고산성 태기산성	3,653尺
횡성의 구비문학 (2002)			태기왕	신라군사	덕고산 태기산	성자리	
강원의 설화 (2005)			태기왕		태기산		
			태기왕 혹은 온조대왕		태기산		
		맥국	태기태자	진한,신라군	태기산		

항목 \ 도서명	왕비	장군	첫패배	농사	제의	산(갑천)	비고
세종실록 지리지 (1454)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여지도서(1760)							孔雀山在縣東二十五 里橫城泰其山主脈
관동지 (1829~1831)							
대동지지 (1861~1866)							들레 다름. 一云 泰岐山
대한지강회월보 제12호(1907)							大韓地誌 태기산의 첫 독자적 표기
조선지리지자료 (1911)						어답산	덕고산 남산리, 둔내면
개벽 제42호 (1923)							이종휘 『東史』를 참고했다고 함(1780)
강원도지(1940)						어답산	어답산이 왕 걸삼처럼 생겨서
강원도지(1959)			삼랑진	二十斗落地 畝 개간	기우제		四個星霜
한국지명총람 (1967)						어답산 어답산	*왕이 피난 *의자처럼 생겨서
군지(1967)			삼랑진	20斗落地 畝 개간	기우제		강원도지(1959)와 같음. 四個星霜
태백의 설화 (1974)			삼랑진	화전개간	기우제	어답산	4년
강원총람(1975)							
한국의 발견 강원 도(1982)			삼랑진	화전 개간	기우제		
횡성군지(1986)			삼랑진	20여두락 田畝 개간		어답산	4개 성상
강원문화연구 (1986)							흥천
							횡성
							평창
봉평면지(1991)		삼형제 호령					진한,맥국 혼용
어답산 신구선 (1997)						어답산 어답이	마을지명 관련
강원도 땅이름 (1997)						어답산	어답산 박혁거세

둔내면지(1998)	아라 왕비						
횡성의 지명유래 (2001)						어답산 어답이	어답산 태기왕
횡성군지 증보판 (2001)	아라 왕비		삼랑진	20여 두락 전답 개간			4년 여 세월
횡성의 구비문학 (2002)							
강원의 설화 (2005)							홍천
						어답산	횡성
		삼형제, 호령	서울 삼랑진			어답산	평창

우리는 위의 표를 통해 태기산, 태기산성 등의 지명이 오래 전부터 여러 곳에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멀리는 『세종실록』지리지에 태기산과 태기산성이 옛 이름인 ‘덕고산’과 ‘덕고산성’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시대에 따라 ‘덕고산→덕고산·태기산→태기산’과 같이 지명 또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덕고산에서 태기산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 계기를 마련한 태기왕과 그 행적에 따른 지명, 호칭 등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여러 곳에 정리되어 있다.<sup>28)</sup>

### 3. 태기왕과 관계된 지명유래

횡성지역에서 태기왕과 관계된 지명유래는 갑천면과 청일면 그리고 둔내면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다. 갑천면 지역에서는 어답산을 중심으로 한 병지방리, 전춘리, 삼거리 등의 마을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병지방리의 경우 태기왕의 행적과 관계된 지명유래가 활발하게 전해오고 있다. 먼저 어답산을 중심으로 한 병지방리, 삼거리, 전춘리 마을의 태기왕 관련 지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9)</sup>

28) 물론 덕고산이 태기산으로 바뀐 것이 태기왕의 이름을 따서 그러했다는 근거는 없다. 사서의 기록을 고려하면 오히려 태기산에서 이름을 따서 태기왕이 후대에 명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지만 『대동지지』에서 “德高山 一云泰岐山北七十里江陵界”이라고 한 것은 태기산이 지역민들에게는 널리 불리는 이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고 싶다. 곧 중앙의 공식적인 이름은 ‘덕고산’인 까닭에 그동안 모든 공식 기록에는 덕고산 및 덕고산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오래 전부터 덕고산보다 ‘태기산’과 ‘태기산성’을 더 선호하였듯이 그와 더불어 태기왕 또한 지역민들 사이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필자는 지역민들이 ‘태기왕의 이름을 따서 태기산’이라고 명명하였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둔다.

29)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한글학회, 1967.; 신구선, 「어답산」, 횡성군 갑천면 추동출장소, 1997.; 「강원도 땅이름」,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1997.; 이영식,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2001. 등을 살펴본다.

### 〈자료 3〉

#### 병지방리(兵之坊里)

병지방리(兵之坊里) ; 진한(辰韓) 태기왕(泰岐王)이 신라군에게 쫓겨 어답산(御踏山)에 피난할 때, 북방 방어를 위하여 병사를 모아 방비하던 곳이라 하여, 병지방리(兵之坊里)라 하였다.

공서울 ; 태기왕이 이곳에 머무를 때 세금을 거두어들이던 지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깥공서울과 안공서울이 있다. ‘공서울’이라고도 한다.

병무산 ; ①예전에 태기왕을 추격하던 적병들이 산세를 보니 태기왕 병사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산위까지 추격하였지만 병사들이 없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兵無山). ②태기왕의 병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산 위에서 춤을 추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兵舞山). ③태기왕의 병사들이 이 산에서 무술을 연마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兵武山).

병문안 ; 신선바우 밑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 태기왕이 병지방리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병사들이 문안을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지금의 검문소 역할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소학동(巢鶴洞) ; 소학동은 뚝기골에 있는 지역으로 태기왕이 이곳에서 멀리 있는 산의 높은 곳을 바라보니 산 밑에 있는 집의 주변이 학이 깃든 둥우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길 들巢字에 학鶴字을 써서 소학동이라고 불리었다는 유래가 있다.

은전머리 ; 공서울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태기왕이 이곳에서 세금을 받을 때 은으로 받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태기왕이 이곳에서 머무를 당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푼 지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먹해 ; 승지골 아래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서 태기왕의 신하들이 정사를 돌보던 곳으로 글을 쓰기 위하여 먹을 갈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묵해’ 라고도 한다.

홍문터(紅門垆) ; 이곳에 태기왕이 홍문을 세웠다고 하는 곳으로, 그 후에 절이 있었다고 하나 절은 사라지고 그 옛날 지붕으로 쓰였던 깨어진 기와파편만이 출토되고 있다.

#### 삼거리(三巨里)

동막 ; 어답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기왕이 있는 곳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막사리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승잠** ; 태기왕이 패퇴하여 패잔병을 이끌고 주둔할 때 잠시 머무르면서, 어떻게 하면 군사를 일으켜 전쟁에서 승리해 과거의 국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에 잠겨 있던 곳이라 한다.

**어답산** ; 마을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기왕이 이 산을 밟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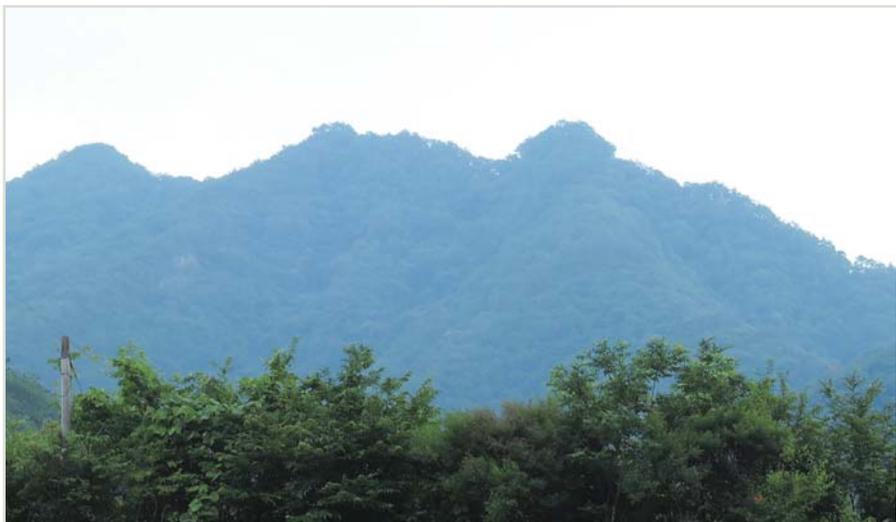
**어염골** ; 동막 위쪽에 있는 마을로, ①예전에 태기왕이 군사들이 먹을 소금을 저장하던 곳이다. ②임금을 호위하던 군사나 직속 군사들이 주둔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태쟁이** ; 예전 태기왕이 이곳에 군사를 이끌고 주둔 시에 무기와 식량 및 각종 물자를 저장하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전촌리(筓村里)

**문막이** ; 돌목재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태기왕이 어답산에 있을 때 병사들이 이골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제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문막이와 작은문막이가 있다.

**어답이** ; 전촌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옛날 태기왕이 이곳 땅을 밟고 지나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답이’ 라고도 한다.



어답산

앞에서 살폈던 『개벽』, 『강원도지』 등에서는 태기왕이 경주에서 쫓겨 바다를 따라 올라오다가 태기산에 이른 것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어답산 주변 지역민들은 태기왕이 태기산보다 ‘어답산’에 먼저 온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하여 쫓아오는 신라군을 방어하기 좋은 지역을 살피기 위해 태기왕이 어답산에 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30)</sup> 그런가 하면 『강원도 땅이름』에서는 어답산에 대해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가 이 산 건너편의 태기산에 근거하고 있던 진한의 태기왕을 뒤쫓다가 이 산에 친히 외뵈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sup>31)</sup>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자료를 모두 수용한다면 어답산을 오른 이는 태기왕과 박혁거세왕 두 사람이지만, 지역의 많은 지명과 연계된 인물은 박혁거세가 아니라 태기왕임을 앞에서 살폈던 지명유래를 통해 확인한다.

한편 전설에 의하면 태기왕은 어답산과 접해 있는 마을에서 병사를 모으고, 세금을 걷고, 소금창고와 막사를 지어 경계를 서는 등의 여러 흔적을 남긴 까닭에 지역민들은 지금까지도 그 유래를 기억하고 있지만, 태기왕이 이곳 어답산 주변에서 얼마간 머물렀는지 전해지지 않는다. 반면에 태기산에서는 태기왕이 군사들과 성을 쌓고 농사를 지으면서 4년간 머무르면서 신라군을 물리칠 군사력을 키웠으나, 태기왕 행적과 관계된 지명유래는 태기산, 태기산성, 동문, 돌문 등 그 수가 많지 않다. 다만 신대리의 한남대, 어두어니, 새터 등과 같이 몇 개 마을이 관계된다.

이렇듯 태기산 주변에 태기왕과 연관된 지명유래의 전승이 활발하지 않은 까닭은 그곳 지역민들의 이주에 따른 부재를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태기산성 주변에는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4가구와 강원도에서 이주시킨 수십여 가구가 태기리 주민으로 한동안 살았으나 정부의 화전정리로 1970년대에 모두들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때는 분교이지만 학교가 있을 정도로 많

30) 어답산에 대해 1940년에 발행한 『강원도지』 및 1967년에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산 모양이 마치 왕의 걸상처럼 생겼다 하여 ‘어답산(御榻山)’라고도 한다.

31) 『강원도 땅이름』,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1997, 216쪽.

은 주민이 거주하였음에도 현재는 법정리 '태기리' 로만 존재할 뿐 마을에는 주민이 없다. 그렇게 떠난 주민들 따라 태기왕 행적과 관계된 태기리 곳곳의 지명 유래도 우리 곁에서 함께 떠나갔다. 따라서 청일면 지역에서는 성안에 있는 마을인 성골, 태기왕이 갑옷을 씻었다는 갑천리의 갑천(甲川), 경계를 서던 태기왕의 병사가 수많은 신라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그대로 몸이 굳어 바위가 되었다는 신대리 촛대바위, 태기왕이 박혁거세에 쫓기어 태기산으로 갈 때, 여러 곳에 소수의 병사를 배치하였다는 유평리 소구니 마을 유래, 그리고 '태기왕이 태기산으로 갈 때 주력부대는 갑천·청일을 경유해 가고 일부 병력은 둔내로 들어와서 석문리 원수골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갔는데, 당시 인솔자가 원수였으므로 원수골이라 한다' 는 둔내면 석문리 원수골 유래 등과 같이 태기산 주변의 태기왕 행적의 지명유래는 어답산 주변마을에 비해 산발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촛대바위

지금까지 태기왕 행적과 관계된 지명에 대해 살폈는데, 태기왕 관계 지명유래는 태기산 주변마을보다 어답산 주변마을인 병지방리, 삼거리, 전촌리 등에서 더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았다.

## 4. 맺음말

황성지역에는 태기왕과 관계된 지명유래가 여러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헌에도 태기산, 태기왕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곳에 정리되어 있다. 아울러 태기왕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으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물론 태기왕 설화를 지역에 전승되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태기왕에 대한 지역민들의 마음은 설화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품고 있다.

본 글에서는 그동안 발간된 서적의 문헌에서 태기산, 태기왕이 어디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태기산’에 대한 최고(最古)의 기록은 18세기에 발행된 『여지도서』(1760)이다. 물론 『여지도서』의 ‘태기산(泰其山)’의 표기는 현재의 ‘태기산(泰岐山)’과 차이가 있으나, “孔雀山在縣東二十五里橫城泰其山主脈”의 내용을 참고하면 지금의 태기산과 다르지 않음으로 『여지도서』의 ‘泰其山’과 현재의 ‘泰岐山’은 동일한 산이다.
2. ‘태기왕’에 대한 최고(最古)의 기록은 1923년에 발행된 『개벽』제 42호이다. 『개벽』의 글쓴이는 태기왕의 내용에 대해 『동사』를 참고했다고 했는데, 『동사』에서는 이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3. 태기왕과 관계된 지명유래는 태기산 주변 마을보다 어답산 주변 마을에 더 많이 전승되고 있다.

태기왕 행적에 따른 설화 또한 도서에 따라 내용의 가감이 있으나 그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앞에서 정리한 <표 1>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태기왕은 실존했던 인물인가? 실제 태기왕이 진한의 왕이 아니더라도, 황성지역 곳곳의 유적, 지명유래 등에 흔적을 남긴 그를 지역민들은 마음속의 왕으로 삼고 있다. 사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정리하여 기술하지만, 문학은 그 역사적 사실에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또 다른 역사를 기술하는 데까지 나아간다.<sup>32)</sup> 이러한 문학의 상상의 기술은 태기왕과 관계된 설화에도 적용된다. 지역의 민중들은 역사서에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를 태기왕이라는 이름 속에 자신이 갈망하는 꿈을 대입하여 이야기했을 것이다.

32) 임재해, 「설화 자료에 의한 역사연구의 방법 모색」,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47~48쪽 참조; 이영식, 「황성의 지명전설과 태종의 관련성 연구」, 『강원민속학』 제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478쪽.

## 참고문헌

- 신구선, 『어답산』, 황성군 갑천면 추동출장소, 1997.
- 신종원,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조선지리지료> 강원도편-, 경인문화사, 2007.
- 유재춘, 『황성태기산성의유적현황과 역사적 고찰』, 『태기산성과 황성』 학술세미나, 황성문화원, 2003년 12월 19일.
- 이영식, 『황성의 지명유래』, 황성문화원, 2001.
- 이영식, 『황성의 지명전설과 태종의 관련성 연구』, 『강원민속학』 제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이종휘 저, 김영심·정재훈 역주, 『동사』, 소명출판사, 2004.
- 임재해, 『설화 자료에 의한 역사연구의 방법 모색』,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 정재영·박관수·이영식, 『황성의 구비문학』 2, 황성문화원, 2002.
- 황석영, <장길산> 11, (주)창비, 2004(개정판).
- 『강원도 땅이름』,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1997.
- 『강원의 설화』 II 강원도 내륙 남부, 강원도, 2005.
- 『강원도지』, 강원도, 1940.
- 『강원도지』 상권, 강원도, 1957.
- 『강원문화연구』 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6.
- 『강원총람』, 강원도, 1967.
- 『개벽』 42호, 개벽사, 1923.
- 『국역 관동지』, 강원도, 2007.
- 『군지』, 황성군·황성군 교육청, 1967.
- 『大東地志』, 한국학문헌연구소 편(아세아문화사), 2006.
- 『둔내면지』, 둔내면지편찬위원회, 1998.
- 『봉평면지』, 평창문화원, 1991.
- 『신증동국여지승람』, 아세아문화사, 1983.
- 『여지도서』, 국사편찬위원회, 1973.
- 『우리고장 흥천』, 흥천군, 1992.
- 『朝鮮地誌資料』 江原道篇, 경인문화사, 2007.
-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1, 국사편찬위원회, 2004(복간).

- 『태백의 설화』 상, 강원일보사, 1974.  
 『한국의 발견』 강원도, 뿌리깊은 나무, 1982.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한글학회, 1967.  
 『횡성군지』, 횡성군, 1986.  
 『횡성군지』 증보판, 횡성군, 2001.  
 『횡성의 구비문학』, 횡성문화원, 2002.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g\\_001r\\_0020\\_0010](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g_001r_0020_0010)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o&setId=376644&position=86  
rchType=a&keyword=%EB%8D%95%EA%B3%A0%EC%82%B0](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o&setId=376644&position=86&rchType=a&keyword=%EB%8D%95%EA%B3%A0%EC%82%B0)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setId=229264&position=0>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setId=229264&position=1>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c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gotourl=http://ekyujanggak.snu.ac.kr/home/MOK/CONVIEW.jsp?type=HEJ^pctype=list^subtype=jg^lclass=10^ntype=hj^cn=GI40763\\_00](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c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gotourl=http://ekyujanggak.snu.ac.kr/home/MOK/CONVIEW.jsp?type=HEJ^pctype=list^subtype=jg^lclass=10^ntype=hj^cn=GI40763_0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

# 횡성 항일의병의 주둔지 봉복사와 그 의미



홍 주 민

## I. 머리말

봉복사(鳳腹寺)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13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횡성군에 현존하고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유래가 깊다. 신라 선덕여왕 16년(647)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후 소실과 중건을 반복해오다가 6·25전쟁 때 완전히 전소된 뒤 새로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승려 100여 명이 넘고 9개의 암자가 있을 정도로 절의 규모가 크고 웅장했던 봉복사는 현재 대응전 없이 법당과 요사채만이 남아 있어 웅장했던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봉복사에 대한 내용은 16세기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址圖書)』, 『횡성현읍지(橫城縣邑誌)』 등의 읍지류(邑誌類)에서 사찰의 위치를 밝히고 있을 뿐이며, 봉복사에 대한 유래는 1992년 강원도에서 발간한 『강원도향교서원사찰지(江原道鄕校書院寺刹誌)』와 봉복사에 소장된 사지(寺誌)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봉복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여러 기관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강릉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는 기존 문헌자료들을 취합하여 봉복사에 대한 연혁복원을 시도하였고, 수원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는 나아가 문집류(文集類) 등의 새로운 문헌자료의 발견과 함께 기존에 정리된 연혁에서 1907년에 봉복사가 전부 전소되었다고 전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못했던 당시 봉복사의 전소가 의병항쟁 중 일본군에 의한 것으로 봉복사가 의병활동의 주둔지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sup>1)</sup>

필자는 수원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봉복사가 의병활동의 주둔지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봉복사의 연혁복원과 부도군에만 집중된 것에서 벗어나 의병항쟁, 그 중 특히 1907년 봉복사 전소와 관련된 후기의병항쟁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횡성은 강원항일민족운동사의 중심지이다. 횡성의 항일의병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조동걸이『橫城과三一운동』(三一운동기념비건립횡성군협찬회, 1972)에서 간략하게나마 횡성에서 의병활동이 있었음을 서술하였다. 이후 횡성 단일지역에 대한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가 강대덕·박정수·최창희에 의해 진행되었다.<sup>2)</sup> 이 연구에서는 횡성의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1910년까지의 의병항쟁까지 살펴 항일민족운동에 지역민중들이 적극 참여하여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인 거족적 항일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에 대해 논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횡성의 의병항쟁사를 정리한 유일한 연구자료로 횡성의 의병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봉복사와 항일의병항쟁에 관한 연구자료는 심철기의 「횡성의 의병활동과 봉복사」(『횡성 봉복사의 보존과 활용 한국고대학회 추계 학술회』, 횡성군·한국고대학회, 2012)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원주진위대 해산을 중심으로 횡성의 의병활동과 봉복사를 연관지어 의병활동의 주둔지로서 갖는 의미를 말하였다. 하지만 위 두 논문 모두 횡성과 봉복사의 의병항쟁 주둔지로서의 역할을 민공호 의병부대에 한해서만 국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봉복사에 대한 기존 연혁을 다시 한번 되짚어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횡성지역에서의 후기항일의병항쟁과 민공호 의병부대 등의 후기의병항쟁의 거점 및 주둔지로서 갖는 횡성과 봉복사와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1) 봉복사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신증원·정민화의 『횡성군내 사지조사』(강원대학교강원문화연구소, 1983), 강원도·횡성군·강원향토문화연구회의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강원문화사, 1995), 강릉대학교의 『횡성 봉복사 지표조사 보고서』(횡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2001), 수원대학교의 『횡성 봉복사지 유적』(횡성군·수원대학교박물관, 2012) 등 지표조사를 통해 꾸준히 있어 왔다.

2) 강대덕·박정수·최창희, 『횡성 민족운동사』, 횡성문화원, 2003.

## II. 봉복사 연혁

봉복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여지도서』, 『횡성현읍지』 등의 지리지에 모두 '奉福寺'로 나오며 '在德高山'(지금의 泰岐山)이라 하였다. 봉복사가 소장하고 있는 사지(寺誌)는 마지막 기록이 昭和六年(1931)인 점으로 보아 종래 구전(口傳)되어 오던 것을 1931년 이후에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3)</sup>

신라 선덕여왕 16년(647)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덕고산 신대리에 鳳腹寺로 창건한 후, 진덕여왕 6년(652) 낙수대(落水臺), 천진암(天真庵) 등 5개의 암자를 지어 봉복사 주변 일대를 불경 외우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였고, 승려 100여 명이 수도하는 도량으로 변창했다. 문무왕 9년(669) 건물 일부가 불탄 것을 원효조사(元曉祖師)가 이듬해부터 동왕(同王) 12년(672)에 걸쳐서 소실된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을 증건하였다.

이후 고려 덕종 3년(1034)에는 도솔암(兜率庵)·낙수암(落水庵)이 소실되었으나, 조선 후기 영조 23년(1747)에 서곡선사(瑞谷禪師)가 사찰 전부를 증건했다. 조선후기 승려 明察(1640~1708)의 시문집 『풍계집(楓溪集)』<sup>4)</sup>에 수록된 상

3) 강원도, 『江原道鄕校書院寺刹誌』, 1992, 388쪽; 강릉대학교박물관, 『橫城 鳳腹寺 地表調査 報告書』, 2001, 29쪽.

4) 조선후기의 승려 明察(1640~1708)의 시문집으로 명찰의 자는 취월(醉月), 호는 풍계(楓溪)이며, 풍담의심(楓潭義諱)의 법을 이었다. 풍계집은 총 3권으로 문인(文人) 문일(聞倚)이 1711년 수집·간행하였으며, 원래의 판목(版木)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卷上은 수차류(酬次類)라 하여 당대 사대부들과 수작(酬作)한 작품 100여수와 현기호노지체(玄機葫蘆之體)·의고직금구문시체(擬古織錦龜紋詩體) 또는 수세문(水勢文)·화염문(火焰文) 등의 특수한 체(體)도 각각 1수씩 들어 있다. 卷中은 유원록시(遊苑錄詩)라 하여 그가 전국을 편력하며 읊은 작품과 이에 대한 서문(序文) 및 총록(總錄)이 붙어 있는데 약 130여수를 수록했다. 작자의 산수벽(山水癖)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卷下는 모두 文인데, 작자가 佛僧인 만큼 거의가 佛刹에 관한 자료들이다. 상량문 3편, 기(記) 7편과 서(序)와 축사(祝詞)·시서(詩序)·모연문(募緣文)·권선문(勸善文)·제문(祭文)·행장(行狀) 등 다양한 종류의 문(文) 25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들은 한국불교사의 전통(傳統) 본말(本末)을 해명하는데 적잖은 암시가 될 만한 자료들이다. 끝에는 문인 문일이 쓴 보제등계대사행장(普濟登階大師行狀) 수록되어 있어 명찰의 일생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 권하에 수록되어 있는 3편의 상량문 중에 하나가 '봉복사정숙전상량문(奉福寺正續殿上樓文)'으로 당시 명찰이 봉복사에도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명찰이 전국을 유람하면서 지은 것이기에 늦어도 17세기 후반의 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서곡선사가 봉복사를 증건한 영조 23년(1747) 이전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 당시에 대한 추론이 불가능하였으나 『풍계집』에서의 발견으로나마 미약하게 추론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숙전(正續殿)이 정확히 어떠한 건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량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봉복사는 서곡선사의 증건 이전에도 사찰의 명맥이 이어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수원대학교박물관, 『횡성 봉복사지 유적』, 2012, 101쪽).

량문 중 하나인 「봉복사정속전상량문(奉福寺正續殿上樑文)」으로 서곡선사가 봉복사를 중건하기 이전에도 사찰의 명맥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학자 안석경(1718~1774)의 문집 『삼교집(雪橋集)』<sup>5)</sup>에는 「봉복사장모천하지도감영(鳳腹寺將模天下地圖感詠)」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사찰명을 '鳳腹寺'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동양문고본 하권 고승(高僧)편에서는 '태기산지봉복사천진암(泰岐山之鳳腹寺天真庵)'이라는 문구를 통해 봉복사의 사내 암자 중 하나인 천진암이 실존했음을 보여준다.

1907년 9월 23일 봉복사에서 의병 350명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일본군에 의해 사찰이 모두 소실되었다. 1912년 1월 10일 손임선(孫任宣) 스님이 일제강점기 제1대 주지가 되고 같은 해 10월 24일 월정사 말사(末寺)로 인가되고, 그 달에 손임선·高大虛·金翠雲·孫奧贊 스님 등이 상의하여 法堂寮 8칸을 지었다. 1913년 10월에 손오찬선사가 원주 염불암(念佛庵)에서 석가여래상을 가져와 봉안하였다. 1921년 3월에 西寮 8칸을 건설하고 4월에는 翻瓦修繕을 하고 석가여래상을 개금(改金)했다. 1929년에는 법맥상속식이 열렸는데, 1930년 발행된 종교지 『불교(佛敎)』<sup>6)</sup> 68호에 실린 종교(宗報)에 기사가 실려 있다. 법맥

5) 조선 후기의 학자 안석경(1718~1774)의 문집으로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속화(淑華), 호는 원양(元陽), 삼교(雪橋). 아버지는 중관(重觀)이다. 저자는 한문학사에서 조선 후기에 성립된 새로운 문학 장르인 한문단편의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인문인데, 관직을 지내지 않았고 행적을 살펴 볼 수 있는 모도 문자도 적어 행력이 불분명한 점이 많다. 1786년 증제 안석임(安錫任)이 쓴 『別集序文(필사본삼교집 하권)』에 의하면, 저자의 저술이 적지 않으므로 부친의 유고(遺稿集)를 사집(四集)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본고도 전집, 후집, 속집으로 나누고 만록(漫錄), 예학록(藝學錄), 식문(識聞)은 별집으로 편차하여 훗날 점차 간행 도모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정리본의 일부로 보이는 필사본 『삼교집』이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어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叢書)으로 아세아문화사에서 상·중·하 3권으로 영인되었다. 이 가운데 중권은 간행본을 영인한 것이고, 하권은 만록과 예학록을 수록한 별집이며, 상권은 불분권 5책으로 각 책마다 문체에 관계없이 저작 연대순으로 1739~1770년까지의 文 188편이 실려 있다. 상권에는 詩가 한 편도 실려 있지 않고, 제목마다 점(點), 권(圈), 후(後)라는 표시가 있어 이것으로 원집·속집·후집으로 나눌 작품을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49편의 文이 간행본에 실려 있다. 또 제명(題名)도 『雪橋集(삼교집)』, 『雪橋遺集(삼교유집)』, 『雪橋文叢(삼교문총)』 등 여러 가지이며, 1757~1762년의 글은 책5의 금강산유람일기인 『東行記』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아, 이 필사본은 안석임이 정리한 초본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하권은 만록 6권 5책과 예학록 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의 자서(自序)에 의하면 부친을 모시고 지내며 들은 것을 후에 기억하여 쓴 것이라 하니, 일종의 차록(筭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00여 년이 지나도록 초본의 상태에서 더 이상 전진이 없던 유고는 1904년 부친의 『회와집』 발간을 계기로 다시 편찬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저자의 5세손인 안중철(安鍾轍)이 배진환(裨縉煥)에게 부탁하여 모갈명을 받고, 오랫동안 유고의 초본을 검토해 온 저자의 외환손 이종원(李種元)이 산정(刪定)을 맡아 7권 4책으로 편찬하였으며, 이를 중5대손인 안중학(安鍾學)과 안중필(安鍾弼)이 1906년 목활자로 간행한 것이다. 현재 이 초간본은 규장각(古3428-261)과 장서각(4-6111)에 소장되어 있다(수원대학교박물관, 『횡성 봉복사지 유적』, 2012, 102~103쪽).

은 불교 선종계의 불법의 계통으로 세속의 혈통과 같이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통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법맥을 이어받는 의식을 법맥상속식, 건당식(建幢式), 전등식(傳燈式)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맥상속식이 봉복사에서 이루어지고 기관지에 실렸다는 것은 당시 봉복사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6·25전쟁으로 사찰의 부속 건물이 모두 파괴된 뒤 소규모로 중건되어 오늘에 이른다. 지금은 요사채를 겸한 법당(法堂), 명부전(冥府殿), 삼성각(三聖閣), 국사당(國祠堂) 등의 건물로 그 가람을 형성하고 있다.

『강원도향교서원사찰지』와 봉복사에 소장된 사지(寺誌), 기존 지표조사를 따라 봉복사 연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봉복사 연혁

시대	연혁
신라	新羅 善德女王 16年(647) 慈藏律師 德高山 新垆里에 創建하고 三像을 造成 奉安 後 5層石塔을 造成하고 鳳腹寺라 稱함
	新羅 眞德王 6年(652) 落水臺 天眞庵 般若菴 海雲庵을 創立함. 創立主는 鳳腹寺 創建主同人
	新羅 文武王 9年(669) 鳳腹寺 燒失함
	新羅 文武王 10年(670) 元曉祖師 般若庵 天眞庵 海雲庵을 改修함
	新羅 文武王 11年(671) 元曉祖師 鳳腹寺 燒失空地에 再建, 材木을 夜半에 神力을 依하여 現基地에 移運되었기로 移建함
	新羅 文武王 12年(672) 鳳腹寺 大雄殿 西東 天王門 鐘閣을 元曉祖師 建設함
고려	高麗 德宗 3年(1034) 兜率庵 落水庵 燒失
조선	'崇禎六年' 명문기와 : 1633년 4월에 건물의 신축 및 보수를 위한 改瓦작업 추정
	『楓溪集』 '奉福寺正續殿上椽文'
	朝鮮 英祖 23年(1747) 瑞谷禪師 鳳腹寺 全部를 重建함
	同 24年 天眞庵 般若庵 燒失 廢址됨
	『雪橋集』 '泰岐山之鳳腹寺天眞庵'
朝鮮 英祖 51年(1775) 海雲庵 燒失 廢址됨	
대한제국	大韓隆熙元年(1907) 鳳腹寺 全部 燒失됨 - 1907년 9월 23일 봉복사에서 의병 350명이 일본군과 전투, 일본군에 의해 봉복사 전소, 같은 해 승 翠雲에 의해 중건된 것으로 파악

6) 『불교』는 1924년에 창간된 월간지로 조선불교중무원(후에 조계종총본사)의 기관지로서 경성불교사가 발행하였다. 편집 겸 발행인은 권상로(權相老)로 뒤에는 한운운(韓龍雲)으로 바뀌었고, 1933년 8월 1일 제108호로 일단 휴간되었다. 1937년 3월 1일 편집 겸 발행인 임원길(林元吉)명의로 신간 제1호를 발행, 1944년 8월 1일 제63호로 중간되었다. 1930년에 발행된 68호에 실린 「증보 - 각황교단의 불전화후식」을 보면 봉복사의 법맥상속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 책의 72쪽에 보면 '거년(去年) 십이월십일 횡성군 봉복사에서는 당사(當寺) 법당내(法堂內)에서 법맥상속식(法脈相續式)을 거행(舉行)하였는데 그 씨명(氏名)은 좌(左)와여(如)하다더라'라고 실려있는데 '去年'은 지난해를 뜻하는 것으로 법맥상속식이 1929년에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수원대학교박물관, 『횡성 봉복사지 유적』, 2012, 105~106쪽).

일 제 강점기	明治四十年年(1912) 一月十日 孫任宣 第一世住持 就職認可됨
	大正元年(1912) 十月二十四日 月精寺 末寺로 認可된 時 住持 就任宣和尚임
	大正元年十二月 孫任宣·高大虛·金翠雲·孫奧贊等四人이 相議하여 法堂寮舍兼用 十八間을 建設함
	全二年(1913) 二月日 釋迦如來像을 孫奧贊禪師 原州念佛庵에서 侍來奉安함
	全二年四月八日 法堂後佛幀을 金翠雲 證明下에 神众幀 獨聖幀 共히 華庵斗欽禪師 造成奉安함
	大正四年(1915) 五月四日 朴成夏 第二世 住持 就職認可됨
	大正九年(1920) 八月日 住持朴成夏 七星幀을 禮雲尙釜 畫工을 시켜 造成奉安함
	大正十年(1921) 三月日 西寮八間을 住持 朴成夏 建設함
	大正十年斜月 翻瓦修繕을 하고 釋迦如來 改金을 하다
	大正十二年(1923) 七月十日 金鶴林 第三世住持 就職人家됨
	大正十年年(1926) 三月十七日 李珍錫 第四世住持 就職人家됨
1929년 鳳腹寺法脈相續式 舉行	
昭和六年(1931) 七月十七日 黃桂雲 第五世住持 就職人家됨	
대한민국	1945년 6·25전쟁 당시 兵火로 전소된 후 재건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산인 월정사의 말사

봉복사는 창건 이후 전소와 중건을 거치며 사찰의 위치가 지금의 위치로 이동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신대리 3층석탑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봉복사의 원래 위치였다고 한다. 지표조사를 통해서 신대리 3층석탑이 위치한 지역에서 古式기와의 특징을 지닌 線紋·蓮花紋 기와편 및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水波紋·幾何學紋 기와편과 '崇禎六年' 명문기와가 출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위치변화 시기를 추정 할 수 있다. 봉복사는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이 지역에 사찰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의 일정 기간까지 유지되다가, 다시 한 번 소실과 중건을 거치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sup>7)</sup>

기록상에 있어 봉복사의 사찰명은 '奉福寺'와 '鳳腹寺'가 혼용되고 있다. 사지(寺誌) 외정확한 기록은 조선시대 기록물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이 사찰의 사명(寺名)은 '奉福寺'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전에도 같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19세기 후반 기록을 통해 19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의 사명은 '鳳腹寺'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현재까지 '鳳腹寺'로 표기되고 있다.

7) 강릉대학교박물관, 『횡성 봉복사 지표조사 보고서』, 2001; 수원대학교박물관, 『횡성 봉복사지 유적』, 2012.

〈표 2〉 봉복사 사찰명 구분

사찰명	연대	서명	내용
奉福寺	16세기 후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卷46, 橫城縣 佛宇	奉福寺 在德高山(봉복사 재덕고산)
	17세기	풍계집(楓溪集)	奉福寺 正續殿 上樑文 (봉복사 정속전 상량문)
	1757~1765년 (영조33~41년)	여지도서(與址圖書) 橫城縣 寺刹	奉福寺 在縣北七十里 五房 單房 (봉복사 재현북칠십리 오방 단방)
	연대미상 (18세기이후)	횡성현읍지(橫城縣邑誌)	奉福寺 在德高山(봉복사 재덕고산)
	1799년	범우고(梵宇攷)	奉福寺 在德高山(봉복사 재덕고산)
	1862년	횡성읍지(橫城邑誌) 寺刹	奉福寺 在縣北七十里 五房 (봉복사 재현북칠십리 오방)
	1871년	관동읍지(關東邑誌) 卷4, 橫城縣 寺刹	奉福寺 縣北七十里 單房 (봉복사 현북칠십리 단방)
1830년	관동지(關東誌)	횡성현 지도에는 '奉福寺' 로 기재	
鳳腹寺	연대미상 (18세기)	삽교집(雪橋集)	鳳腹寺將樸天下地圖感詠 (봉복사장모천하지도감영)
		삽교만목(雪橋漫錄)	泰岐山之鳳腹寺天真庵 (태기산지봉복사천진암)
	1830년	관동지(關東誌) 橫城縣 寺刹 * 도로조와 산전조에도 鳳腹寺로 기재	鳳腹寺 在縣北七十里 五房 今爲單房 (봉복사 재현북칠십리 오방 금위단방)
	1913년	조선폭도토벌지 (朝鮮暴徒討伐誌)	… 부근 및 그 동방 약 2리에 있는 봉복사(鳳腹寺)를 근거지로 하여 …
	1929년	증보(宗報)	'去年 十二月十日 橫城郡 鳳腹寺에서는 當寺 法脈相續式을 舉行 …

봉복사의 사찰명 변화의 시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鳳腹寺'로 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전되어오는 설화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봉복사의故태허 주지스님을 통한 설화상<sup>8)</sup>에서는 과거 소실된 후 절을 중창한 스님에게 현몽이 있었던 바, 옮겨주는 곳에 절을 건립하라는 꿈이었다. 다음날 재목을 쌓아둔 곳에 가보니 소가 현재의 절터로 재목을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가 재목을 이전한 곳이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봉황의 배에 해당하는 곳이므로 봉복사라고 전하고 있다.<sup>9)</sup>

8) 횡성문화원, 『횡성의 구비문학』 11, 2002, 2032쪽, 2001년 7월 4일 태허스님 인터뷰 자료.

9) 이 연기설화(緣起說話)에 대해서 강릉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설화가 1907년 중창과 관련된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 이미 19세기 후반 『관동지』를 비롯한 자료에서 '鳳腹寺'라는 사찰명이 확인되는 실정에 따라 개명 시기를 1907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그 이전 시기로 봐야할 것이라 하였다.

### III. 항일의병항쟁과 봉복사

#### 1. 횡성의 항일의병항쟁

의병이란 민병(民兵)으로서 나라가 위급할 적에 의(義)로써 일어나 조정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개(敵愾)하는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외침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국가의 권위가 실추되었을 때에 일반 백성으로서 정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민병을 말한다.<sup>10)</sup>

19세기 후반 의병은 그 사상적·이념적 기반을 '위정척사론'에 두고 있으며, 1895년에 일어나 1910년 경술국치 전후까지 관군이 아닌 민병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쟁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 의병은 가장 크게 봉기하였고, 항전에 있어서도 가장 끈질기게, 가장 오랫동안 도내·외에서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강원의병이 가장 치열한 항쟁을 했던 이유는, 첫째 강원도에는 의병운동의 전국적 지도자였던 유인석(柳麟錫, 춘천) 같은 지역 유림들이 지니고 있었던 척사이념이 남달리 철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포수가 많아 전투역량을 높일 수 있어 의병으로서의 인적자원이 다른 곳보다 풍부했다는 점이며, 셋째 산악지대가 많아 의병활동이 유리했다는 점이고, 넷째는 무기제조장을 설치하여 화약병기의 자체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sup>11)</sup>

1895년 전기의병은 갑오개혁, 갑오·을미변복령, 을미사변, 단발령으로 이어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일련의 사건은 의병 항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강원 의병은 의암 유인석의 거의책(擧義

10)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篇, 上海 新社, 1920, 17쪽; 강대덕 외 2명, 『횡성 민족운동사』, 2003, 69쪽.

11) 강원도, 『강원도사』 제7권, 2010, 249~250쪽; 강대덕 외 2, 『횡성 민족운동사』, 2003, 69~71쪽; 조동걸, 『橫城과三一운동』, 1972, 61~64쪽 요약.

策)에 호응하여 원주·지평(양평)·제천지역에서 화서문인과 유증교·유인석 문인 유생 의병장들이 주도세력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횡성에서는 배진환(裴縉煥)·이명로(李明魯)·권대형(權大衡)·박성묵(朴性默)·홍재구(洪在龜) 등이 주축이 되었다. 남한강 수계인 횡성은 원주와 화서학파의 주요 본거지 중의 한 지역이며 군사를 소모하였던 중요한 지역으로 충주·제천 등으로 연결되는 활동근거지였고, 같은 권역 내의 춘천·가평은 북한강 유역으로서 이항로·김평묵·유증교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이다.

따라서 횡성에서 전개된 전기의병항쟁은 독자적인 활동형태보다는 유인석의 호좌의진과 민용호의 강릉의진 그리고 이소응의 춘천의진과 상호관계 속에서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활동권역을 형성하여, 춘천·강릉·호좌(제천) 세 의진과 합세하거나 상호 연합하여 의병활동을 하였다.<sup>12)</sup>

전기의병항쟁은 친일정권의 진압으로 마침내 해산하게 되지만, 후기의병항쟁은 헤이그특사사건을 빌미로 하여 고종퇴위와 정미7조약 그리고 한국군대의 강제해산으로 말미암아 봉기하였다. 후기의병은 전기의병과 달리 민병만의 항쟁은 아니었다. 군대해산으로 관군으로서 지난날 의병을 탄압하던 해산군인들이 일어나 민병인 의병과 합세하면서 전기의병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고, 전술적 차이와 함께 더욱 거세고 조직적으로 치열하게 항일의병항쟁의 극치를 이루었다.

1905년 율령팔의 최초의 후기의병을 조직한 이후 횡성지역의 후기의병은 1907년 헤이그특사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한국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재점화 되었으며 원주진위대 강제해산<sup>13)</sup>은 영서지방의 횡성의병활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12) 강대덕 외 2명, 『횡성 민족운동사』, 2003, 49쪽.

13) 당시 강원도 원주에 있던 진위대 해산 계획은 8월 10일, 강릉에 있던 본건소는 13일로 되어 있었다.

〈표 3〉 원주진위대 해산 계획

지방진위대 및 소재	병력	해산계획	
		예정일	해산책임자
진위대 제5대대 본부(원주)	참령 이허장교 10, 사졸 251	1907.8.10	古莊和平
진위대 제5대대 본건소(강릉)	부위 이하 50	1907.8.13	일본분병대위

한국독립운동사에 따르면 횡성을 중심으로 원주·제천·홍천·지평은 의병활동의 성지로 횡성출신 의병장으로는 최인순(崔仁舜), 한상렬(韓相烈), 박영묵(朴永默), 강도영(姜道永) 등이 있으며, 횡성출신은 아니지만 횡성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으로는 이강년(李康季), 민공호(閔肯鎬), 박장호(朴長浩), 여용서(余龍瑞), 심상희(沈相熙), 김상태(金相台), 조병인(趙炳仁), 한봉수(韓鳳洙) 등이 있다.<sup>14)</sup>

또한 한기석(韓基錫), 한갑복(韓甲復) 등은 민공호 부대와 연락을 취하며 크게 활약하였으며, 횡성군의 포수계장 오경묵(吳敬默, 正默)이 많은 산포수들의 힘을 빌어 의병부대를 조직한 후 크게 활약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의병장들이 횡성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그 활약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횡성에서 활동한 의병장들의 활약상

의병장	출신	활약내용	비고
강도영	강원 원주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	횡성천도교수령
금기철	경북 봉화	1907년 4월 20일 한상렬·김현국 등과 함께 강원도 횡성에 주둔한 일군수비대를 공격	
김현국(김치영)	강원 원주	*1908년 4월 20일에는 한상렬·금기철(琴基哲) 외 수 명과 함께 횡성의 일군수비대를 습격 *9월 30일경에는 횡성군 북면 냉리(冷里)에서 일한병대와 그리고 동년 10월 24일에는 횡성군 둔내면(屯內面) 영랑리(永浪里)에서 일군과 각각 교전 *12월 14일 횡성군 정곡면(正谷面)에서 일한병에게 저항하여 도주하고 난 후 강원도·경기도 각지에서 일군수비대 및 일경과 교전하다가 피체	
노병원	강원 인제	1908년 9월부터 강원도 원주·횡성·홍천 및 경기도 여주 등지로 왕래하면서 김현국 의진에서 활동. 9월 8일 김현국 의병장의 지휘 아래 한상렬·금기철 등 30여 명의 동료 의병들과 함께 횡성군 신림(神林) 현병분견소를 습격. 9월 30일에는 횡성군 북면 냉리(冷里)에서 일한병대와 교전하는 등 의병활동을 하다가 피체	
민공호	서울	●1907년 9월 23일에는 횡성군 봉복사에서 약 350명의 의병들이 일군과 격전 ●10월 26일 횡성 둔촌(屯村)에서 격전 ●1908년 2월 28일 원주 치악산 아래 강림(講林) 동쪽 약 10리되는 등지치 부근에서 적에게 노출, 적군은 강림에서 출발, 사자산(獅子山), 구룡산(九龍山) 방면으로 우회하여 등자치로 접근. 이 때 민공호의 부대는 그 10리 지점인 골덕리(葛德里)에 잠복, 29일 오전 11시에 접전하여 완강히 저항, 의병 20여 명 피살, 민공호 피체, 강림으로 호송되었다가 그날 밤 순국	원주진위대 특무정교
박영묵	강원 횡성	*500여 명의 부하 인솔 *1896년 3월 홍천 삼마치에서 적군과 교전하여 적 8명을 사살하는 전과 *4월 횡성에서 반년간 지키면서 포고문(布告文)·격고문(檄告文) 등으로 항일 의식을 고취, *1907년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에서 적과 대치	관료
방관일	미상	190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인영(李麟榮)·정대일(鄭大一) 등 의병장과 연합하여 700여 명 규모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강원도 고모곡(古毛谷)을 중심으로 활동	

백남규	충북 증원	의병장 이강년이 강원도 횡성의 봉복사에서 유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만나 뵈었다. 이때 그의 나이 24세였다. 이강년의 인품에 감복되어 그와 합진할 것을 결의하고 부하 800명을 거느리고 들어가 이강년 의진의 우선봉(右先鋒)으로 임명되었다. 9월 16일 추치(柎峙)에 복병하였다가 적 200명을 사로잡았다.	안동진위대 부위
오경묵 (오정묵)	강원 횡성	1907년(순종 1) 여름 원주진위대가 해산을 거부하고 봉기할 때 20여 명의 포수와 함께 민공호 부대에 합류	횡성 관아의 수순교검 포수계장
이강년	경북 문경	1907년 3월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 되므로 제천에서 재봉기하여, 단양·제천·원주·연풍·영월·횡성·강릉·청풍·충주·문경·예천·영주·봉화·안동 등 3도 14군을 휩쓸며 적과 대적하였다.	무과 선전관
최인순	강원 횡성	민병 수백 명을 모집하여 의병진을 조직하고 횡성·평창·대화 등지에서 적군과 교전	원주진위대 소모대장
한갑복	미상	1907년 12월 28일 횡성군 청룡면(靑龍面) 추동리(楸洞里)에서 부하 30여 명과 함께 일군수비대와 교전하다가 전사 순국	
한기석	강원 횡성	1907년 12월 14일 일제의 한국군 강제 해산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강원도 원주일대에서 부하 300여 명과 함께 활동하던 중 횡성군 청일면(�淸日面) 유동리(柳洞里)에서 일군수비대와 교전하다가 전사 순국	
한봉수	충북 청원	1907년 가을에는 해산 군인 100여 명을 규합하여 대장으로 추대, 의병진의 명칭을 왜적구축대(倭寇驅逐隊)라 칭함. 이후 전의·목천·평택·여주·횡성·문경 등지에서 일군과 33회 격전	대한제국 군진위대 상등병
한상렬	강원 횡성	*1907년 10월 31일에 한갑복·민공호·이인영·여용서·장모(張某)·심상희 등의 병장이 거느리는 의진이 횡성과 지평간에 있는 고모곡(古毛谷) 일대에 집합하여 8천 여 명의 연합 의진이 형성되어 유기적 의병활동을 전개 *1908년 4월 20일에 군사를 거느리고 횡성 습격, 적을 크게 놀라게 함	

위에서 제시된 인물 이외에도 수십 명을 거느린 의병장들이 있었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9권 의병편 II 「暴徒에 관한 件 報告」(1908.3)에 의하면, 횡성군 동북부지역에서 흥천군에 걸쳐 잠행하고 있는 의병 지도자는 金顯國(閔肯鎬 死去 後에 金致永 改名한 者, 10여 명 인술), 盧免相(30여 명 인술), 朴河南(30여 명 인술), 韓相說(200여 명 인술), 尹在玉(30여 명 인술), 鄭明善(70여 명 인술), 劉秉勳(40여 명 인술), 申順模(30여 명 인술) 등이 있다고 하였다. 아래 <표 5>에는 의병장 박남화(朴南華)·주기준(朱基俊)·주광식(朱光植)·윤성옥(尹成玉)의 항쟁도 전개되었다.

이렇게 더욱 거세지는 항일의병항쟁에 민중이 동조하고 의병을 적극 도와주면서 토벌이 어려워지자 일본군은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가를 불살랐다. 횡성

인근에서는 1907년 8월 2일 홍천읍에서 300호, 8월 7일 양평에서 300호, 10월 23일 홍천군 118호, 11월 5일 홍천·지평·춘천에서 66호가 소실되는 등 전국적으로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일본군의 집계숫자만으로도 6681호가 소실되었다. 이로서도 의병을 토벌할 수 없게 되자, 횡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강원·충청·경북에서 일본군은 학살을 서슴지 않았다.<sup>15)</sup>

이 같은 일본군의 만행에도 민중과 의병은 굽히지 않고 더욱 거센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횡성지역에서 전개된 후기의병의 항쟁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횡성지역 주요 의병항쟁 연표

일자	항쟁내용	출전	
1905 10.03	원용팔 횡성에서 체포	황성신문 1905년 10월 3일 2면 3단	
1907	09.23	의병 약 350명 갑천리 및 봉복사에서 공방전	『고종시대사』 6 용희원년 9월 23일 『조선폭도 토벌지』 696쪽
	10.26	의병 약 300명 횡성 둔촌에서 교전	『조선폭도토벌지』 710쪽
	11.05	민공호 부대 800명 청일면 동평리에서 교전	『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11.09	의병 약 20명 횡성 삼창봉에서 교전	『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12 상순	의병장 박남화(朴南華) 횡성 매돌충(埋突衝)에서 일본병과 충돌 전사	『한국독립운동사자료』 9 64쪽
	12.10	의병 약 300명 횡성 동방 6리에서 접전	황성신문 1907년 12월 18일 2면 6단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8일 3면 4단
	12.12	의병 약 150명 둔내면에서 교전	
	12.14	의병 약 300명 청일면 유통리에서 교전, 한기석 의병장 피살	『고종시대사』 6 용희원년 12월 14일 『독립운동사』 1 718쪽 『조선폭도토벌지』 716쪽
	12.19	주기준(朱基俊)부대 150명 둔내면 자포리(自浦里)에서 교전, 5명 전사 16명 부상	『조선폭도토벌지』 717쪽 『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319 황성신문 1907년 12월 26일 2면 6단
		민공호 부대 300명 횡성 동북 60리에서 교전	『고종시대사』 6 용희원년 12월 19일 『독립운동사』 1 718쪽 『조선폭도토벌지』 717쪽
12.21	주광식(朱光植) 부대 300명 영월 수주면 감림동(현 횡성 감림면)에서 습격받아 70여 명 전사, 부상 미상	『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425쪽	
12.28	한갑복 부대 30명 횡성 추동리에서 공방전, 한갑복 의병장 피살	『고종시대사』 6 용희원년 12월 28일 『독립운동사』 1 719쪽 『조선폭도토벌지』 717쪽	
1908	01.03	횡성 갑천면 서북방으로 20리에서 접전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2일 3면 4단
	01.10	의병 약 40명 횡성 서방에서 교전	『조선폭도토벌지』 735쪽 황성신문 1908년 1월 18일 2면 6단
	01.12	의병 약 40명 횡성 서방에서 접전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8일 3면 5단
	0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공호 부대 90명 감림 등자처 북방 10리 귤덕리에서 교전, 의병장 민공호 피체</li> <li>같은 날 밤 민공호 부대 60명 감림에서 교전, 민공호 피살</li> </ul>	『고종시대사』 6 용희2년 2월 29일 『독립운동사』 1 724쪽 『조선폭도토벌지』 733-734쪽 『폭도사원집자료』 598쪽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1

15) 강대역 외 2인, 『횡성민족운동사』, 2003, 92쪽.

1908	03.03-05	3일과 5일 양일에 의병 약 150명 횡성 동북방 유동에서 교전	황성신문 1908년 3월 10일 2면 6단
	03.05	의병 약 150명 횡성 동북 40리에서 교전	『조선폭도토벌지』 735쪽
		의병 약 150명 횡성 절동에서 교전	황성신문 1908년 3월 12일 2면 6단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0일 3면 4단
	03.07	의병 약 60명 횡성 동방에서 교전	『조선폭도토벌지』 735쪽
	03.08	의병 약 60명 횡성 동쪽에서 교전	황성신문 1908년 3월 13일 2면 6단
	03.13	의병 약 150명 횡성 북방 40리에서 교전	『조선폭도토벌지』 735쪽 황성신문 1908년 3월 18일 2면 6단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8일 3면 2단
		의병 약 100명 횡성 북방 40리에서 교전	『조선폭도토벌지』 735쪽 황성신문 1908년 3월 21일 2면 6단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21일 3면 3단
	03.14	의병 약 100명 횡성 동북방에서 교전	황성신문 1908년 3월 20일 2면 6단
	03.24	의병 약 20명 횡성 동평 부근에서 교전	황성신문 1908년 4월 2일 2면 6단
	03.25	한상렬 부대 횡성 동부 마암 근처에서 교전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5일 3면 3단
04.03	의병 약 140명 횡성 서북 약 50리에서 교전	『조선폭도토벌지』 754쪽	

## 2. 봉복사와 관련된 의병장

### 1) 이강년

이강년(1858~1908)의 호는 운강(雲岡, 雲崗)으로 1879년 6월에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나, 개화정책에 불만을 느끼고 낙향하였다. 1894년 농민군이 대구모로 봉기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본격적인 투쟁을 벌이기 시작할 때 30대 중반의 나이였던 이강년도 이에 뛰어들면서 의병의 길을 걸었다. 이듬해 일본군에 의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민심은 다시 격앙되면서 재야의 수많은 지사(志士)가 봉기하여 “난신적자(亂臣賊子)는 누구나 죽일 수 있다.” 또는 “적당(賊黨)을 칠 때에는 그 꽤거리를 먼저 처단한다.”는 춘추의리(春秋義理)에 입각하여 개화정부의 지방관리를 1차적인 공격대상으로 삼고 봉기하였으며 이강년도 꼭 같은 논리로 고향인 문경의 장터에서 다시 봉기하였으니 1896년 음력 정월의 일이었다.

이때에 이강년은 가장 선명한 의리를 표방하고 난신적자를 치는데 거침없었던 호좌의진(湖左義陣), 즉 유인석이 이끌던 제천의병의 성세(聲勢)를 듣고 제

천으로 달려가 합류했다. 유인석은 이강년에게 영남과의 경계지역을 넘나들면서 접전하는 유격장의 책임을 맡겼다. 이강년이 가진 무인으로서의 재능과 연고지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sup>16)</sup> 이후 이강년은 충주 동쪽에 있는 동창(東倉)과 조령(鳥嶺) 부근을 주된 활동무대로 하여 일본군 병참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강년은 서북쪽을 향하는 유인석의 본진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소백산에 들어가 부대를 해산하고 말았다.<sup>17)</sup>

이강년은 1905년 원용팔이 봉기하였을 때 신병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1907년 봄에 이르러 다시 재기에 나섰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영춘(永春) 순검들의 급습을 받아 크게 다쳤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숨어 지내면서 치료에만 힘썼다. 이때에 대해서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이강년과 봉복사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 율희 원년(1907) 3월에 공이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 그러던 중 마침 변동식(邊東植)이 춘천(春川)을 가게 되므로 그 편을 통하여 의옹(毅翁)에게 편지를 올려 일을 의논하고, 안성해(安成海)와 함께 포수 6 명을 데리고 떠나서 원주 횡성 등지로 향하니, 바로 3월 그믐날이었다.
- 영춘(永春) 고을 용소동(龍沼洞)에 머물렀는데, 밤중에 갑자기 적의 습격을 받아 군사가 흩어졌다. 공은 손수 칼을 들어 적을 쳤으며, 공도 적에게 부상당하였다. 횡성 고을 경계에서 봉복사(鳳腹寺)로 들어가 여러 날을 유숙하는 중에 백남규(白南奎)를 만났다. 남규는 충주 사람인데, 이 때 나이 24세요, 호기 있고 용감하여 보통 사람과 달랐다. 그는 공의 이름을 듣고 쫓아온 것이었다.

봉복사를 떠나 강릉(江陵) 봉평(蓬坪)으로 갔다가, 또 배양산(培陽山)으로 향하였는데, 가정(柯亭)에서 유숙재(柳肅齋)가 집으로 돌아간 후 일이 있어 아직 오지 않았다.<sup>18)</sup>

16) 박정수·강순희, 『운강선생창의일록』 1권(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 1970, 214쪽).

17) 구원희, 『한말의 제천의병』, 1997.

18) 박정수·강순희, 『운강선생창의일록』 1권(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 1970, 220쪽).

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봉복사는 이강년이 상처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 날을 머물러도 일본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봉복사는 당시 여러 의병들이 이동시 유숙하는 대표적인 은신처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강년이 1907년 8월 5일 민공호와 김덕제의 원주진위대 봉기소식을 듣고 원주로 달려가 진위대 무기고에서 꺼낸 1,600여 정의 소총과 4,000여 발의 실탄 가운데 일부를 입수하여 그 무기를 바탕으로 하여 병력을 모아 포군들을 기반으로 호좌의진을 재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곳이라 볼 수 있다.

이때의 이강년은 단양·제천·원주·영월·횡성·강릉·청풍·충주·문경·예천·봉화·안동 등 경북과 강원, 그리고 충북일대의 광범한 지역에서 설새 없는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그해 말로 접어들면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고, 탄환의 공급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강년 의진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단양의 복상골 전투에서 많은 장졸이 체포되고 전사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후로는 의진을 급속히 북쪽으로 옮겨 가평 화악산 일대로 이동하였다. 이는 이인영이 주도하는 서울 진공작전에 부응하는 면도 있었지만, 유인석이 닦아 놓은 기반을 의식하고 서북쪽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여러 측면이 아울러 작용한 결과였다.

이듬해 1908년 가평 일대에서 겨울을 넘기고 난 이강년은 경북 북부지역인 서벽(西碧)·재산(才山) 등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으나, 의진의 세력은 날로 떨어졌다. 결국 그해 음력 6월 4일의 작성산(까치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음력 9월 19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sup>19)</sup>

한편, 이강년과 백남규와의 중요한 만남이 이곳 봉복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백남규는 충청북도 충주(忠州)에서 살았던 인물로, 일찍이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안동진위대 부위로 근무하였다. 1907년 한국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동지를 규합하여 경상북도 순흥(順興)에서

19) 구원회, 「한말 의병장 이강년의 생애와 「운강집」」, 2007 에 쫓아 서술함.

의병을 일으켜 부하 800명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접전하였다. 그때 문경의 의병장 이강년이 황성의 봉복사에서 유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만났다. 그는 이강년의 인품에 감복되어 그와 합진할 것을 결의하고 부하 800명을 거느리고 들어와 이강년 의진의 우선봉(右先鋒)으로 임명되었다.<sup>20)</sup>

## 2) 민공호

황성 의병활동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민공호(미상~1908)로 광무원년(1897)에 진위대에 들어가 강원도 원주진위대 고성분견대의 정교(正校)였다. 후에 춘천분견대에 전입, 광무4년(1901)경 정교의 직에 있었으나, 다음해 처음으로 특무정교의 자리에 앉게 되자 발탁되어 원주진위대에 전입되었다.<sup>21)</sup> 그는 후기의병 당시 황성지역의 의병활동은 물론, 강원전역에서 활약상이 뛰어났다. 봉복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1907년 8월 1일 서울시위대의 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항쟁은 해산군인을 중심으로 경기도·강원도·충청도·경상도 등지로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 지역은 원주진위대 해산군인들을 중심으로 의병항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민공호, 이인영, 이강년 등의 활동은 의병항쟁을 의병전쟁으로 발전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민공호의 지휘아래 원주진위대 병사들은 8월 5일 오후 2시 원주읍 장날에 많은 농민들과 포수들이 장터에 모일 것으로 생각하여 봉기일로 택하고 장교와 병사들을 모두 집합시킨 후 봉기를 선언하였다. 원주진위대의 봉기와 민공호 의병부대의 편성은 지방 진위대의 봉기로서는 최초의 것이었고, 민공호 의병부대는 단위부대로서 가장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전투력이 막강한 의병부대로 알려지고 있다. 해산군인을 주축으로 하여 농민, 포수, 유생들로 구성된 민공호 의병부대는 황성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덕고산(현 태기산)과 봉복산에

20)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백남규』 편 참조. 1986.

2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백남규』 편 참조. 1986.

감싸여있는 갑천면(현 청일면) 신대리 봉복사에 의병진영을 치고, 다른 의병부대와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활동하였다.<sup>22)</sup>

앞선 자료 <표 1>과 <표 5>를 보면 봉복사에서 의병항쟁이 있었다는 기록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항일독립운동 자료집인 『독립운동사자료집』 3 의병항쟁사자료집에 수록된 『폭도사편집자료(暴徒史編輯資料)』<sup>23)</sup>와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sup>24)</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폭도사편집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민(閔)은 원주(原州) 진위대장이 상경 부재인 때, 즉 작년 8월 5일 충주 수비대 이궁(二宮) 소위 이하 19명이 원주(原州)수비대를 해산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다는 보(報)를 받자 이에 앞서서 근근 2·3시간에 급히 부하에게 명령하여 비상 나팔을 불어 약 3백 명의 병사를 이끌고 우선 원주(原州)우편취급소를 습격, 계속하여 경찰을 습격하였다. ... 여기에 평창(平昌) 방면에 이르는 도중 포군의 대장으로서 오정묵(吳正默)이란 자를 그 무리에 투입케 하여 대거 제천(堤川)을 습격하고, ... 계속하여 신녕(新寧)에 들어 다시 강원도 울진(蔚珍) 방면으로부터 평창(平昌)·영월(寧越)을 거쳐 횡성군(橫城郡) 봉복사(鳳腹寺)에 잠겨 중, ... 2월 29일 영월군(寧越郡) 수주면(水周面) 강림(講林)에서 충주(忠州)순사대 권경시(權敬視)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은 후, 적세는 갑자기 쇠약해지고, 반면 수비대의 행동이 왕성하여 토벌을 계속하였으므로, 사방의 폭도는 산란 혹은 잠복하고 혹은 귀순하여 다시는 폭도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閔)의 세력도 또 큰 것이라 할 것이다.<sup>25)</sup>

라고 하였고, 1907년 9월 전투에 대해서는 『조선폭도토벌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22) 강대덕 외 2인, 『횡성민족운동사』, 2003, 86쪽.

23) 『폭도사편집자료(暴徒史編輯資料)』는 1908~9년간에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항쟁상황을 각도 관찰사와 3개도의 경찰부장이 당시의 내부대신이었던 박제순과 내부 경무국장인 마쓰이(松井茂)에게 보낸 보고서를 모은 것이다.

24)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는 일제강점기의 소위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1913년에 발간한 서적으로 1906년부터 1911년까지의 의병활동을 일본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폭도사편집자료』와 함께 일본의 관점으로 서술되어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우나 당시의 상황을 알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5) 『폭도사편집자료』(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0, 598~599쪽).

원주(原州) 부근의 폭도는 원래 횡성군(橫城郡) 갑천면(甲川面) 갑천리(甲川里) 부근 및 그 동방 약 2리에 있는 봉복사(鳳腹寺)를 근거지로 하여 부근 부락에서 물자를 약탈하고 동영준비(冬營準備)를 하면서 있다는 정보에 접한 하림지대장(下林支隊長)은 좌등대위(佐藤大尉)에게 보병 2소대와 기관총 2를 주어 토벌시켰다. 이 부대는 22일 횡성(橫城)에 도착, 23일 오후 1시 갑천리(甲川里) 및 봉복사(鳳腹寺)에 있는 폭도 약 3백 50을 습격, 그 중 50를 사살하고 동방산지(東方山地)로 쫓겨시키고, 봉복사를 불태워 버리고 24일 원주로 귀환하였다.<sup>26)</sup>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 민공호는 후기의병 당시 강원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의병활동을 벌인 의병장으로 봉기 직후 원주·여주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횡성군 갑천면에 있는 봉복사를 근거지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오정묵을 포군대장으로 영입하고 의병부대를 정비하여, 제천·충주·풍기 등지를 습격하면서 일본군과 격전하였다.

1907년 9월 봉복사 전투에서 일본군은 횡성-원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인근 부락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월동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좌등대위에게 보병 2개 소대와 기관총을 주어 의병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 부대는 9월 22일 횡성에 도착, 23일 오후 1시경 봉복사의 의병 350명을 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의병 50명이 전사하였고, 일본군은 의병의 주둔지인 봉복사를 불태워버렸다.<sup>27)</sup>

여기서 봉복사 사지(寺誌)에 기록되어 있는 1907년의 봉복사 전소는 민공호와 관련된 것으로 이곳이 민공호 의병부대의 주둔지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에 의해 주둔지를 잃게 된 후에도 민공호는 흥천·인제·강릉 등지로 이동하면서 의병활동을 전개해나갔지만, 탄환의 고갈 상태가 심각하고 엄동설

26) 『조선폭도토벌지』(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0, 696쪽).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내 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 - 강원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493쪽.

한의 추위에 견디기 어려워 고전하게 되었다. 1908년으로 접어들면서 일본군은 실질적 전투력이 강한 민공호 의병부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토벌대를 투입하여 공격을 강화하면서 민공호 의병부대는 다른 의병부대와는 상대적으로 약조건에서 항일의병항쟁을 이어나갔다. 악전고투를 하던 민공호는 2월 22일 원주에 도착한 선유사 박선빈(朴善斌)으로부터 원주 동쪽 치악산의 석경사(石逕寺)에서 회견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민공호는 선유사의 회견 요청에 응하여 일부 의병을 이끌고 석경사로 들어가던 2월 27일 영월군 수주면 강림(현 횡성군 강림면) 박달고개 부근에서 일본군과 조우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이를 격퇴하고 우회하여 강림 동쪽 10리에 있는 등자치(登子峙) 아래 궐덕리(蕨德里)에서 숙영하였다. 민공호가 그의 부하 90여 명과 함께 잠복하고 있는 것을 탐지한 일본군은 2월 29일 오전 11시 궐덕리 양방면에서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민공호 의병부대는 완강히 저항하였지만, 의병 20명이 죽고 의병장 민공호는 피체되었다. 남은 의병들은 동북방으로 일단 피신하였고, 그날 밤 민공호 부하 의병 60여명은 강림으로 역습하여 민공호를 구출하고자 공격하였다. 의병부대와 일본군 사이가 가까워지자 포박 당하고 있던 민공호가 탈출하려고 하였고 일본군은 그를 살해하였다. 횡성의병들은 민공호와 동료들을 잃고 퇴각하였다. 이후 민공호 의진은 쇠약해지고 의병들은 전선에서 사망으로 이탈 잠적하거나 귀순하는 자들이 생겼다.<sup>28)</sup>

### 3) 오경묵

오경묵(정묵이라고도 함. 생몰년 미상) 강원도 횡성군 청룡면(靑龍面) 갈풍리(葛豐里) 출신으로, 원래는 횡성군 수순교 겸 포수계장(首巡校兼砲手契長)으로 있었다. 그는 1907년 8월 포수 20여명을 인솔하고 봉복사에 수렵차 출장 중 민공호의 권유에 포군대장으로서 그 무리를 민공호 의병부대에 합류하게 함으로

28) 『조선폭도토벌지』(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0, 733-734쪽).

씨 의병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1907년 8월 10일 민공호·조동교(趙東敎)·정대무(丁大武) 등이 제천을 습격할 때에도 민공호와 함께하였다. 이렇듯 민공호와 함께한 오경목 또한 봉복사를 주둔지로 삼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는 제천에서 이강년 의진에 참여한 직후인 8월 15일 제천전투에 참가하여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후 충주 강령촌(康嶺村)에서 패배하여 의견충돌이 생기자 민공호 의진에서는 떠났지만, 이강년 의진에는 여전히 참여하여 문경·제천 등지에서 일본군과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적을 쌓았다. 이후 의병 활동을 지속하다가, 이듬해 4월 3일 선유사 박선빈의 회유를 받아 일본군에 투항하였고, 그를 따라 부하 50명이 귀순하였다.<sup>29)</sup>

#### 4) 기타

위에서 살펴본 세 인물 이외에도 봉복사에서 주둔한 의병은 1907년 군대해산 직전에도 있었다.

『황성신문』 1907년 6월 18일자(음력 5월 8일)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義徒剿除의 訓飭

橫城郡에서 稱以義兵魁首 李建夏 元龍八 元鎮錫 等 二十餘名이 該郡鳳腹寺 等地에 逗留하면서 砲丁을 勒募하고 民財를 無數奪去하는故로 內部에서 該觀察 道에 指令되 不恒者 流가 無常閃忽하여 假義勒討하니 可駭恭習이며 可哀良民 이라 訓飭警署하여 橫城 寧越 兩界에 占窩通路함을 亟圖剿除케하라 하였더라<sup>30)</sup>

다만 여기에 기재된 이강하, 원용팔, 원진석에 대한 기록이 없어 기재된 기사로서만 의병활동을 전개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원용팔의 경우 원주의진의 원용석(元容錫)의 이명(원용팔 元容八)과 같은 음으로 인해 오인할 수 있으나, 한자의 차용이 다르고 원용석은 이미 1906년 옥중에서 순국하므로 동일인

29) 『폭도사편집자료』(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0, 598-599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1, 198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오경목」편 요약.

30) 『황성신문』 1907년 6월 18일자 잡보 2면 5단.

물로 볼 수 없다. 이견화와 원용팔, 원진석 모두 이들에 관한 자료가 없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군대해산이 있기 바로 직전에도 봉복사를 주둔지로 하여 의병항쟁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외에도 위의 <표 5>의 황성지역 의병항쟁 연표에서 1908년 의병 약 50명이 황성 봉복사 남방 10리에서 교전한 기록이 보인다. 민공호의 2월 29일 순국, 이 강년의 6월 4일 피체 이후에도 여전히 봉복사 주변을 의병들이 거점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봉복사의 지리·전술적 이점

병가의 성현인 손자는 天時와 地理를 중요한 요소로 보아 전쟁 준비시에 천시와 지리면에서 어느 편이 유리한가를 비교해야한다고 하였고, 전쟁시에는 지리가 제공하는 이점을 분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知彼知己, 勝及不殆, 知地知天, 勝及可全).<sup>31)</sup>

지형<sup>32)</sup>이란 지표면의 자연적 형태, 지표의 고저, 기복에 의해 형성된 산·계곡·평야·하천·해안·해저 등 지표의 형태를 총칭하는데 지형적 요소는 가장 고정적이고 영속적인 존재로서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전투공간을 형성하고 있어서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형의 군사적인 관점은 임무·작전형태·참가부대의 규모 및 구성 그리고 그 무기와 장비를 고려하고 기상·기복 및 배수·조목, 지표 및 인공지물을 분석하여 관측과 사계, 은폐와 엄폐, 장애물, 중요지형지물 및 접근로를 도출하는데 있다.<sup>33)</sup>

지형적인 특성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작전형태별로 상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작전 시에는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면 사격효과를 증대시

31) 남만성 역, 『손자병법』, 1969, 326쪽.

32) 지형은 자연지형지물과 인공지형지물로 구분된다. 군사작전에 영향요소가 될 수 있는 자연지형지물을 분류해 보면 평야, 고원, 산지, 토양, 암석, 배수, 해변, 식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공지형지물은 주요한 인공지물은 도시, 방어공사, 수송 및 통신시설 등이 있고 묘지, 생울타리, 건물 등 국지작전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물도 있다. 육군대학, 『군사지리』, 1987, 34-35쪽.

33) 김형용, 「한반도 군사지리적 특징이 전쟁에 미친 영향 : 지형 및 기상을 중심으로」, 1996, 14쪽.

킬 수 있으며 또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복이 심한 지형, 수목이 울창한 곳, 건물지대 및 고도의 급격한 변화 등은 양호한 엄폐와 은폐물을 제공한다.

둘째, 방어작전시에는 지형의 특징에 따라 방어작전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즉 지형이 장애물로서 효과를 발휘하여 자연적인 저항선을 제공해 줄 때는 지형을 이용하는 방어형태를 취하고 반대로 지형이 탁 트인 넓은 지형이어서 기동이 용이할 때는 기동력을 이용하는 방어형태를 취한다. 또한 진지 내에서 방어할 주요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휘관은 모든 군사적 성격을 고려하고 평가한 지형연구에 대부분 그 근거를 둔다.

셋째, 후퇴이동시 지형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양호한 관측 및 사격은 장거리에서 적과 접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자연 및 인공장애물은 방어력을 증강시키고 측방을 보호하며 적의 전진을 저지하는데 이용한다. 집결지 및 이동로에는 엄폐와 은폐가 필수 조건이 된다. 도로망은 아군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이용되며 적의 사용을 거부해야 한다.<sup>34)</sup>

이러한 군사적 지형요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의병전술을 살펴보면, 구국의 일념으로 일어난 의병항쟁은 성질상 계획적 봉기가 아니라 자연발생적 대중봉기로 시작되었으므로 대다수의 의병은 전투에 경험이 없는 민병이었고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리들이었다. 이러한 의병부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근대장비와 훈련을 갖춘 일본정규군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1907년 군대해산으로 해산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한반도 산악지형을 이용한 유격전술은 과학적인 장비와 훈련을 갖춘 막강한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었다.<sup>35)</sup>

민공호 의병부대는 원주봉기 후 원주 읍내에 주둔하지 않고 인근 산속에 숙영지를 마련하면서 의병부대의 전술상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당시 전국의 모든

34) 육군대학, 『군사지리』, 1987, 61~62쪽.

35) 김형용, 『한반도 군사지리적 특징이 전쟁에 미친 영향: 지형 및 기상을 중심으로』, 1996, 49쪽.

의병부대들이 경험적으로 유격전이 유리함을 터득하여 유격전을 주로 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정면전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민공호 의병부대는 처음부터 작전을 유격전만 채택하여 유격전 부대로만 시종하였다. 그것은 강원도관찰사 황철의 명을 받고 민공호 의병장을 면담하러 왔던 횡성군수 심흥택과 민공호 의병장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민공호 의병장이 횡성군수 심흥택에게

'自己들(민공호의병부대-필자주)은 日本軍隊와 對敵하기 어려운 일임은 물론이나 對敵할 수 없을 때는 四散하고 또 틈을 보아 集合하여 暴動하면 加何히 용맹한 일본군대라 할 지라도 討伐이 困難할 것이라 생각한다'<sup>36)</sup>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병들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전술은 유격전이었다. 일본군은 실제로 민공호 의병부대가 유격전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토벌이 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當 原州邑에서 5·6리 거리에 있는 각처에는 暴徒가 100, 200, 혹은 3·400명 가량씩 屯集하고 있는 모양이며, 當守備隊가 討伐하려고 이에 向한즉 그들은 機敏하게도 이를 察知하고 遁走하여 現況으로 到底히 이를 全滅함은 至難하다.<sup>37)</sup>

유격전술에는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첩보활동이 매우 중요하였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좋은 실례가 된다.

… 이수두(二水頭)·지평(砥平)을 거쳐 10일 원주에 도착, 지형을 살피자 토민의 비호를

36) 『폭도에 관한 편책』, 『觀察使의 暴徒歸順 勸誘에 관한 件』, 1907년 11월 12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1979, 112쪽).

37) 『폭도에 관한 편책』, 『原州警務分署의 警務局長에의 報告』, 1907년 12월 3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1979, 235쪽).

받고 있는 그들 폭도의 첩보(諜報) 근무는 극히 민활하여 교묘하게 우리 행동을 탐지하고 은현 출몰하므로, 지대는 원주 도착 후 그 부근 소탕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수일 동안 조금도 얻은 바가 없었다.<sup>38)</sup>

즉, 의병들은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아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전술상의 변화로 의병들은 특유의 유격전술을 이용하여 적을 타격하고 지체 없이 적의 경계가 허술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급습을 하는 등 신출귀몰하는 전술을 써왔던 것이다.

산악이 유격전을 수행하는 부대에게 은폐와 엄폐를 제공하여 생존성을 보장하는 역할과 부족한 전력으로 막강한 전력을 상대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sup>39)</sup> 의병들은 일본군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활동하기 좋은 산악지형으로 이동하여 의병부대의 근거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의병부대 상호간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서 군수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고려되었다.

횡성군은 이러한 점에서 최적의 장소였다. 횡성의 지형을 살펴보면, 횡성군의 경계는 동쪽은 평창군과 서쪽은 양평군, 남쪽은 원주시와 영월군 그리고 북쪽은 홍천군과 각각 접하고 있다. 군내 산지는 동북방에 태기산(1,261.4m), 청태산(1,190m), 봉복산(1,028m), 운무산(980m), 북방에 수리봉(1,028m), 발교산(998.4m), 오음산(930m), 동방에 사자산(1,120m), 배향산(808m), 서방에 성지봉(791m)으로 봉복산을 제외한 모든 산이 군계와 접하고 있어 군역을 등글게 산으로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고산(高山)이 많다.<sup>40)</sup> 때문에 산악지형이 많고 모든 산이 군계와 접하고 있어 상호 연락에 용이했다. 횡성에서도 의병항쟁이 치열했던 곳은 횡성읍에서 태백산맥 쪽인 동북 방면으로 청일면·둔내면·갑천면·안흥면 일대로 의병 활동의 본거지였다.

38) 『조선폭도토벌지』(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0, 687~688쪽).

39) 김형용, 「한반도 군사지리적 특징이 전쟁에 미친 영향: 지형 및 기상을 중심으로」, 1996, 51쪽.

40) 횡성군, 『2014통계연보』.

횡성군내에서 봉복사가 있는 청일면은 횡성군 총면적의 13.4%인 133.75km로 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둔내면, 서쪽으로 갑천면, 남쪽으로 갑천면과 둔내면, 북쪽으로 홍천군 서석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하천으로는 신대리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갑천리를 지나는 갑천(甲川)과 봉명리 수리봉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춘당리, 유동리를 거쳐 흐르는 계천(桂川)이 있다. 산으로는 신대리의 봉복산과 태기왕의 전설로 유명한 태기산을 배산으로 하고, 좌청룡 형상으로 술이봉을, 우백호 형상으로는 운무산과 발교산으로, 수리봉을 안산으로 하여 복숭아 형태의 지형을 갖추고 있어 풍수지리학상으로 화가 적고 복이 지속되는 형상이다.<sup>41)</sup>

봉복사는 덕고산 서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면서 앞에는 성골계곡이, 뒤로는 덕고산(현 태기산)과 봉복산이 감싸고 있어 지형적으로 부대를 주둔하기 용이한 곳이었다. 더욱이 봉복사 뒤로는 태기산성이 있어 전술운용에 있어 다른 곳보다 유리하였다. 그러므로 봉복사 일대는 이강년과 민공호 등의 대표 의병장들이 직접적으로 주둔지로 삼고 유숙하던 것 외에도 여러 의병부대의 활동이 있었다.

1907년 09월 22일 민공호 의병부대의 한 유격대 약 350명이 봉복사를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면서 갑천리 및 봉복사에서 공방전을 벌인<sup>42)</sup> 이후부터 꾸준하게 봉복사 일대를 거점으로 항일의병항쟁은 이어져 왔으며, 1908년 06월 28일에는 의병 약 50명이 봉복사 남방 10리에서 교전하였다.<sup>43)</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강년은 봉복사에서 유숙하였고, 봉복사를 시작으로

41) 횡성군, 『횡성군지』, 2001, 1935~1936쪽.

4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1970, 711쪽.

43) 위의 책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9, 1990, 74~75쪽.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9권, 의병편 XII 『통보』(1908.7)

A. 守備隊

一. 奉化守備隊는 七月 上旬 奉化 東北方의 黃地里 및 그 東北方의 湯實(寧越 附近 補充圖)에 걸쳐 地區를 搜索하여 賊 三名을 사로잡았음.

二. 原州守備隊에서 내보낸 少尉 以下の 討伐隊는 七月 一日 神林 西南 약 十里의 文德里(忠州 附近 補充圖)에서 약 百名의 賊을 潰亂시키고 追擊을 續行하여 堤川 郡內에 이르러 賊 十五名을 쓰러뜨리고 銃器 四挺 其他 若干品을 鹵獲함.

또 同 守備隊에서 내보낸 下士가 거느리는 討伐隊는 六月 二十八日 橫城 東北方 鳳腹寺의 南方 약 十里(忠州 附近 補充圖)의 地點에서 약 五十名의 賊을 襲擊하여 그중 五名을 쓰러뜨렸음.

이강년 의병부대의 이동로는 원주·배양산·평창·봉평·춘천·가평·인제·강릉·양양·정선에서 소백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제천·단양일대를 주무대로 호좌의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44)</sup>

가장 연관이 깊은 민공호는 원주에서 봉기하여 봉복사를 주둔지로 하면서 소규모 유격대를 구성하여 1907년 8월 12일 여주읍을 습격해서 점령한 후 14일 횡성을 통과해서 홍천을 습격, 제천으로 진출하면서 죽산을 습격하여 보급물자를 조달하였다. 장호원·이천·청주·음성·홍천·원주·평창으로 소규모 유격대는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전투를 치렀다.

1907년 9월 23일 민공호 의병부대는 봉복사전투에서 주둔지를 잃게 되지만, 영월·홍천·함창·음성·제천·통천·고성으로 이어가면서 계속 항쟁하였다. 1907년 10월 21일 원주에서 선유사일행과 일본군을 공격한 후 10월 27일 새벽 횡성군 고모곡면(古毛谷面, 현 서원면) 둔촌(屯村) 부근의 서남방 고지와 남방 고지 두 곳에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공격하여 일본군 소대에 대타격을 가하였다. 이후 강원도와 충북 사이의 도로상에 있는 부근이나 박달령부근을 공격하였고, 홍천 삼마치를 넘어 강릉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으며 양구·양양·정선 등 강원도 전역에서 활약하였다.<sup>45)</sup>

서울탈환작전 중지 후 다시 본래의 작전지역인 횡성으로 돌아오는 중 횡성 둔내와 평창에서 소규모 전투를 치렀으며, 1907년 12월 28일에는 한갑복이 지휘하는 유격대가 청일면 화동리에서 휴식도중 기습을 받고, 유격장 한갑복이 전사하기에 이른다. 민공호 의병부대는 1908년 1월 10일 횡성 서방에서 크게 참패한 후 근방에서 소규모전투를 하다 1908년 2월 29일 횡성군 강림면에서 마지막 전투로 끝을 맺는다.

민공호 의병부대의 전투와 이동로를 정리해보면 봉복사가 있는 횡성 청일면 일대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홍천·춘천방면으로, 동으로는 평창·강릉방면으

44) 박정수·강순희, 『윤강선생창의일록』(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 1970)

45) 신용하, 『閔肯鎬 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2003 전투요약.

로, 서로는 여주·이천방면으로, 남으로는 제천·충주방면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을 아울러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의병부대들은 봉복사에 주둔지를 두면서 봉복사 일대뿐만 아니라 황성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두며 의병항쟁을 이어나갔다.

그 예를 몇 가지 더 살펴보자면 『한국독립운동사자료』 8권 의병편 I 「폭도 토벌의 건 보고」(1907.12)에서

- 一. 暴徒의 多數가 橫城 附近에 集合하였다는 報에 接하고 當 原州守備隊 山本 少尉는 部下 十二名 及 韓兵 十名을 引率하고 十二月 十二日 午後 八時 三十分 出發 玉洞 附近을 偵察하면서 十三日 午前 三時 橫城에 到着하였다.
- 二. 密偵한바에 依하면 韓甲復 尹成玉 韓相說 閔肯鎬 等은 部下 千二三百名을 引率하고 銅坪 附近에 있다는 것이므로써 十三日 正午 橫城發 于先 銅坪을 向하여 午後五時 同所에 到着하였다.
- 三. 銅坪에 있어서의 얻은바 情報에 依하면 閔肯鎬 等의 一隊는 二三日前 同地 面長 韓友誠을 捕縛하여 洪川 瑞石面 方向으로 去하였다. 目下 柳洞 及 堂峴에 三四百名이 屯集 十三日 正午지나 其 等 中 二名이 來村하여 木綿一疋을 奪去하였다.
- 四. 山本 小隊는 此地에서 大休止를 하고 夜襲의 目的으로써 夜 十二時 銅坪發 堂峴으로 向하던 途中 柳洞 北方 約 半里에서 二名의 土人과 相會 直時 捕縛 訊問하였던 바 暴徒 四百餘名이 堂峴으로부터 沙芝谷에 扠하여 宿泊 中이므로써 我等은 米를 賣하고 歸村 途中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가로대 韓 大將의 宿所도 알았다 하였다.

여러 의병부대가 황성에 집결, 이곳에서 작전계획에 따라 북방의 흥천 등지로 수시로 작전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평(銅坪)은 현재 갑천면 매일리로 갑천면 사무소 앞에 있는 마을인 '구릿들'의 다른 이름이다. '동평', '상동평(上銅坪)' 이라고도 한다.<sup>46)</sup> 봉복사에서 서남방 쪽에 위치하고 있다.

황성을 중심으로 흥천으로 세력권을 넓히는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한국독립운동사자료』 9권 의병편 II 「폭도에 관한 건 보고」(1908.3)로 다시 살펴 볼 수 있다.

46) 이영식, 『황성의 지명유래』, 2001, 77쪽.

土人の言에 依하면 過般來 橫城郡 東部 及 北部에서 數回의 打撃을 受한 徒는 其後 極히 少數의 群으로 나뉘어 目下 洪川郡 南部를 經由하여 西方으로 移動하는 것 같다.

忠州巡查隊 李警視의 一行은 去十六日 午後三時 洪川 瑞石面에서 韓相說의 一隊 約 百名과 衝突하여 捕虜 三名 銃器 四挺을 得하였다. 賊의 死傷 七名을 出하였다. 그리고 一旦 忠州로 歸還하였을 것이다.

去十六日 橫城 東南 約 二里半인 玉洞에 琴基哲(最近 처음으로 들은 首魁이다)이 引率하는 徒 十五六名이 侵入하여 村民을 脅迫하고 金穀 若干를 掠奪하여 갔다고 한다. 그리고 土人の 言에 依하면 附近의 地理를 몰랐다고 한다. 或은 近時 他로부터 侵入한 者가 아니겠는가.

韓相說의 部下 前軍大將 李昌五 中軍大將 金和春 後軍大將 韓相五 等 目下 橫城의 東部로부터 洪川郡 東部に 移하여 暴徒募集에 從事하고 萬若 其意를 用치 않는 者가 있다면 直時 其妻를 拉去한다고 한다. 이에 因어 不得히 應募하는 者 每日 不鮮하다고 한다.

尹在玉 等の 黨은 目下 橫城 北方 上蒼峰洞 附近에 潛伏한 模樣이다. 橫城守備隊로부터 偵察中이다. 現在 本 土인이 있다고 하면 멀지 않아 그 實을 볼 것이다.

또한 봉복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둔내면 자포리가 있는데, 현재의 자포곡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부터 마을사람들은 '자포리'라고 불렀으며<sup>47)</sup>, 이곳은 다음을 통하여 의병들이 평창으로 뺨어나가는 길목이었음 알 수 있다.

- 一. 平昌 熊崎 巡查로부터의 報告에 依하면 橫城郡 屯內面(自 平昌 八里)에 閔肯鎬 外 二將이 引率하는 約 千餘名의 暴徒가 集屯하고 있는 模樣을 密偵의 報에 接하고 平昌 守備隊長 以下 二十五名은 十二月 十八日 午前 九時 出發 該 徒 討伐次 向하였다. 平昌 分派所로부터는 先川 巡查 及 巡檢 一名을 隨게 하였다.
- 二. 朱基俊이 引率하는 暴徒 約 百五十名은 橫城郡 屯內面 自 浦洞에 潛伏하고 있음을 偵知하고 十九日 午前 八時 四十分 不意에 此를 攻擊하여 戰鬪 約 三時間만에 彼 等은 平昌郡 蓬坪面 方向으로 退却하였다.<sup>48)</sup>

47) 위의 책, 215쪽.

48) 『한국독립운동사자료』 9권 의병편 II 「폭도에 관한 건 보고」(1908.3).

## VI. 맺음말

천년의 숨결을 지녀온 봉복사는 신라 선덕여왕 16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그 역사만큼이나 수차례의 소실과 증건을 반복해왔다. 신라시대에는 여러개의 암자가 있어 봉복사 일대가 불경 외우는 소리로 가득했을 정도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컸으며, 조선시대에는 정치이념과 맞물려 그 모습을 알기가 어렵지만 『풍계집』과 『삼교집』을 통해 그 산수와 명맥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구한말 봉복사의 모습은 우리가 모두 아로새겨야 할 모습이다.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일어나 봉기한 후기의병은 전기의병 때와는 다른 새로운 전술, 유격전술로 해산 군인과 농민들 및 포수들로 구성된 의병부대 안에 소규모 유격대를 편성하여 부장급 의병장들에게 지휘를 맡겨서 각각 기민한 전투를 하도록 하였다. 그 중 민공호는 자기 산하에 32개 단체(의병소부대)가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소부대의 기동력과 강행군을 중시하여 민첩하고 인내력이 매우 강한 의병부대를 이루었다. 이러한 소부대들과의 연합으로 민공호 의병부대는 단일부대로서 전투력이 실질적으로 막강한 의병부대였다.

유격전술을 앞세운 민공호 의병부대를 비롯한 항일의병들은 자연스레 일본군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활동하기 좋은 산악지형으로 이동하여 의병부대의 근거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여기에 의병부대 간 연락이 용이하고 군수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고려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황성의 봉복사는 그 이점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봉복사는 동북방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고산(高山)인 봉복산과 태기산과 태기산성이 든든한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산악을 주무대로 유격전술을 전개할 때 휴식과 식량을 보충하고, 혹독한 겨울철에 안식처가 되어 줄 수 있었다.

봉복사를 중심으로 근거지를 형성한 항일의병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의병항쟁

을 전개하였고, 이런 점은 일본군에 의해서도 파악되어 의병부대가 봉복사에 주둔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을 때, 다른 지역의 의병부대 진압과는 달리 기관총까지 출전하여 진압하고자 하였고 끝내는 봉복사를 전소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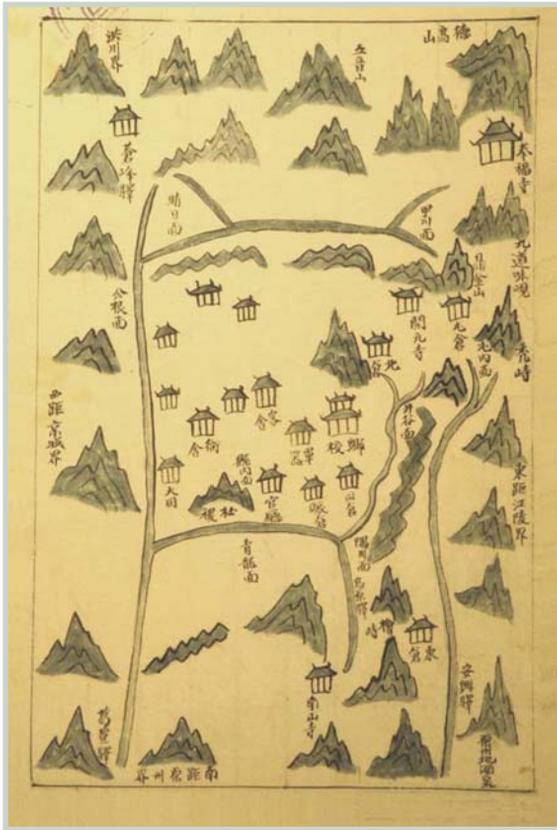
봉복사가 전소하기 전에는 봉복사를 주둔지로 삼으면서 근방에서 의병전투를 전개해나갔으며, 전소한 후에도 오히려 횡성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홍천·양구·춘천방면, 동쪽으로 평창·강릉방면, 서쪽으로는 경기지역, 남쪽으로는 충북과 경북지역에 이르기까지 의병부대들은 동서남북으로 유격전술을 펼쳤으므로 봉복사와 횡성은 후기항일의병항쟁의 주요 근거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한말 치열한 항일의병항쟁을 보였던 횡성은 1910년 경술국치를 맞으면서 일제의 무력을 앞세운 통치에 의병의 활동 기반은 축소되어갔고 주무대는 국내가 아닌 만주로 이동하게 되었다. 횡성 또한 1919년 3·1만세 운동까지 항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항일의병항쟁의 주둔지로서 자리 잡은 횡성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도처에서 상권을 장악할 때에도 관원을 제외하고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항일의식이 강하였고 광복의 염원을 담아 일어난 1919년 3·1만세 운동으로 항일의식을 이어갔다.

이는 횡성 천도교 수령이었던 강도영이 구한말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청일면 춘당(春堂)고개에서 전사한 뒤, 횡성 3·1만세 운동에서 그의 막내 삼촌 강달회(姜達會:士文)가 4월 1일 일본군의 총에 맞아 순국하고, 그의 아들 강만형(姜萬馨:春學)은 사로잡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일을 예로 항일의식이 계승되었음을 볼 수 있다.

횡성의 3·1만세 운동은 곧 원주와 평창 등지로 번져나가면서 영향을 넓혀나갔으며, 이러한 횡성의 강한 항일의식은 의병항쟁기에 봉복사를 주둔지로 두고 움직인 의병들의 항일항쟁 의식을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횡성 봉복사가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 부 록



〈관동지〉 황성



〈신대리 입구〉



〈봉복산 전경〉



〈봉복사 입구 어귀〉



〈봉복사 표지석〉



〈봉복사 부도군〉



〈봉복사 전경〉

## 참고문헌

『朝鮮暴徒討伐誌』

『暴徒史偏執資料』

『暴徒ニ關スル編冊』

강순희·박정수 『雲崗先生倡義日錄』

강대덕·박정수·최창희 『횡성 민족운동사』 횡성문화원 2003

강릉대학교 『橫城 鳳腹寺 地表調査 報告書』, 횡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2001

강원도 『강원도사』 제7권 강원도 2010

강원도 『江原道郷校書院寺刹誌』 강원도 1992

강원향토문화연구회 『橫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강원문화사 1995

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198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79-199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내 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 - 강원도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20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회 197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0

수원대학교 『횡성 봉복사지 유적』 횡성군·수원대학교박물관 2012

이영식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2001

조동걸 『橫城과 三一운동』 三一운동기념비건립횡성군협찬회 1972

횡성군 『橫城郡誌』 횡성군 2001

횡성문화원 『횡성의 구비문학』 II 횡성문화원 2002

강대덕 『한말 횡성지역의 항일의병활동』 『橫城地域 抗日民族運動의 再照明 學術심포지엄』 횡성문화원 2005

구원회 「한말 의병장 이강년의 생애와 『운강집』」 세명대학교지역문화연구소 2007

김형용 「한반도 군사지리적 특징이 전쟁에 미친 영향: 지형 및 기상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박민영 「雲崗 李康季의 생애와 사상」 한울 2000

신용하 「閔肯鎬 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 지식산업사 2003

신중원 · 정민화 「橫城郡內 寺止調査」 강원대학교강원문화연구소 1983

심철기 「횡성의 의병활동과 봉복사」 『횡성 봉복사의 보존과 활용 한국고대학회 추계학술대회』 횡성군 · 한국고대학회 2012

횡성군교육청 「향토교육서원사찰자료」 『고향』 횡성군교육청 1987

횡성군 『2014 통계연보』

# 조선 중기 가족묘 형태와 관리

- 수백리 황성고씨 가족묘를 중심으로 -



문화원장 박순업

## 1. 시작하며

진시황이 불로장생(不老長生)하기 위하여 불로초를 구하여 오게 한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는 그래봐야 50세 밖에 살지 못했다. 아무리 죽기 싫어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도 시간의 차이일 뿐, 빈부귀천 격차 없이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외하며 무덤을 만들고 의례를 치러왔다. 죽음 이후 내세의 믿음은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달래 주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앙이 태동했다. 장례는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을 달래주고 갑작스레 닥친 충격으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회복 시켜,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로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따라서 장의문화에는 각 시대의 신앙형태, 정치, 사회 변동, 외래와의 교류 등이 반영되어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해왔다.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주자 가례에 의한 유교적인 상장례(喪葬禮) 문화가 정착하고, 불교의 장법인 화장이 금지되었으며, 돌방무덤에서 회격(灰隔)무덤, 원형무덤으로 전환을 맞게 되었다. 후기에는 묘비의 사용이 확산되고, 문중 단위의 집단 묘지가 성행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학, 조상숭배,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명당을 찾아 산소를 썼지만 일반 백성들은 살던 곳 양지바른 마을 주변 언덕에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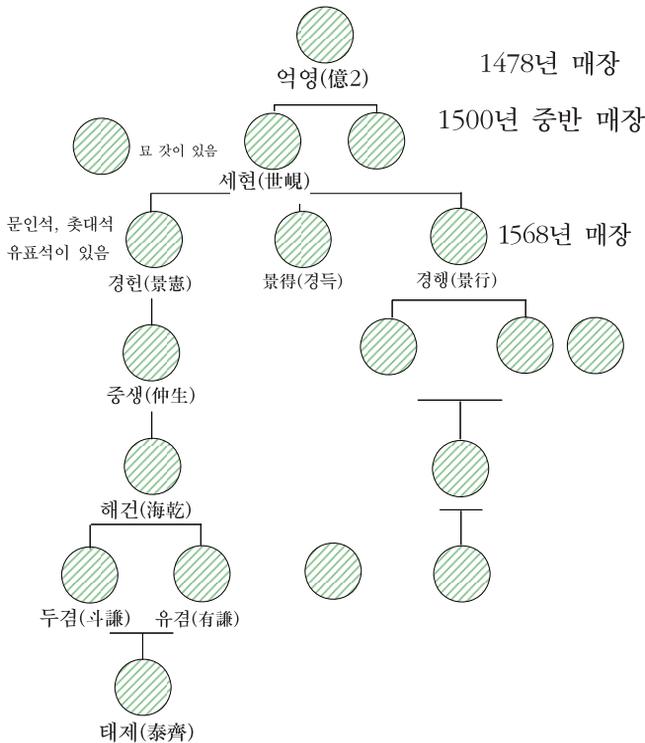
공근면 수백리 산 82번지, 검은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높은 산에서 뻗어 내려온 나지막한 남동향의 양지마른 언덕 산에 조선중기 1478년부터 쓰여진 18기

의 옛 무덤이 모여 있다. 묘역에 커다란 나무들이 배어진 그루터기를 보면 한 때 관리가 잘 안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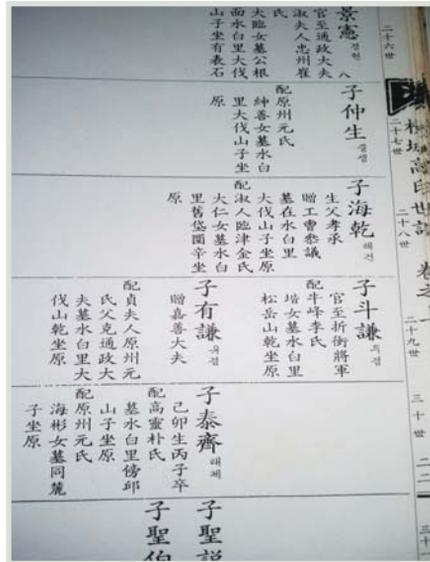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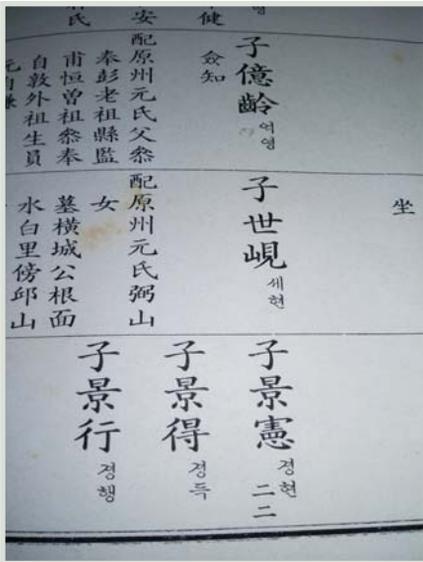
이 무덤들은 처음 쓰여질 때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7대가 피라미트 형으로 쓰여져 당시의 묘지 제도와 시대상, 생활상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횡성고씨 가족묘는 후손인 횡성고씨가 별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 허씨가 관리와 별초를 하고 있어 그 사연은 무엇이며 조선시대 가족묘의 형태와, 물인 주인공들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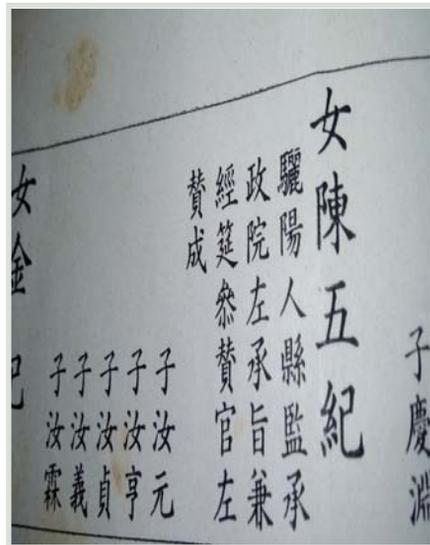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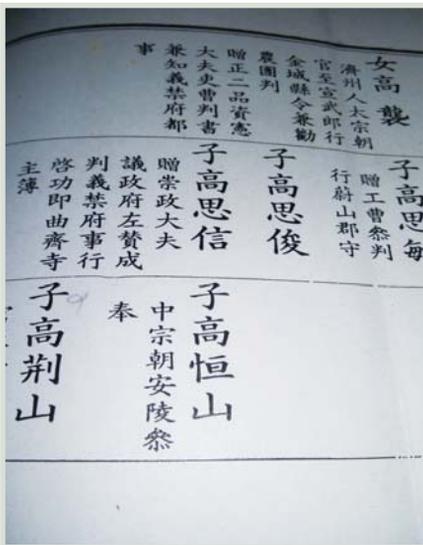
## 2. 수백리 횡성고씨 가족묘 형태



공근면 수백리 산 82번지 횡성고씨 7대에 걸친 가족묘 위치도



역령공에서 태제공까지 7대가 차례대로 묻혀 있다. (황성고씨 족보)



황성고씨 족보 중 사위에 대한 내용

억영(億齡)은 동명왕을 시조로한 수백리 가족묘의 제일 윗대로, 중시조 인승(仁勝)의 24세손이며 차례로 30세손 태제(泰齊)까지 7대가 함께 묻혀 있으며, 원형이 그대로 보전된 조선 중기(537년 전)때부터 수백리 방구산(傍邱山) 자락 동남향의 수백리 산 82번지 마을 언덕산에 조성된 가족묘역이다. 휴(然)는 조선 조 개국공신으로 묘소는 횡성읍 궁천리에 있으며 억영의 고조부이다.

억영공의 4대조 딸이 제주고씨 고습의 부인이며 고습 손자가 조선 중종 때 임금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으며 5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낸 고형산이다. 또한 명종 때 좌승지를 지낸 진오기(1503-1566)는 억영공의 둘째 사위로 가문의 품격과 명문가임을 짐작하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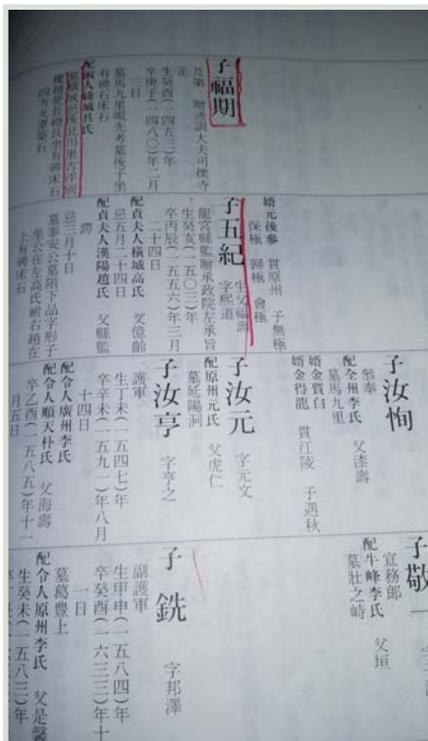
입석리 화몽정은 진오기가 낙향하였을 때 건립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조선 명종 때 좌승지를 지낸 진오기는 지조가 대쪽 같았으며 학문을 일으키고 문화를 장려하는 등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런 그가 벼슬을 그만두고 횡성 입석리에 내려와 있을 때였다. 그는 며칠째 똑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꽃 같은 미녀와 만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시를 읊곤 하였다. 그녀는 말하기를 대감을 사모했던 화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진오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여자와 사귄적도 만난적도 없는 처지라 여간 난감한 게 아니었다. 벼슬에서 물러난 자기를 이렇게 밤마다 찾아와 꿈속에서나마 돌봐주는 화선은 어찌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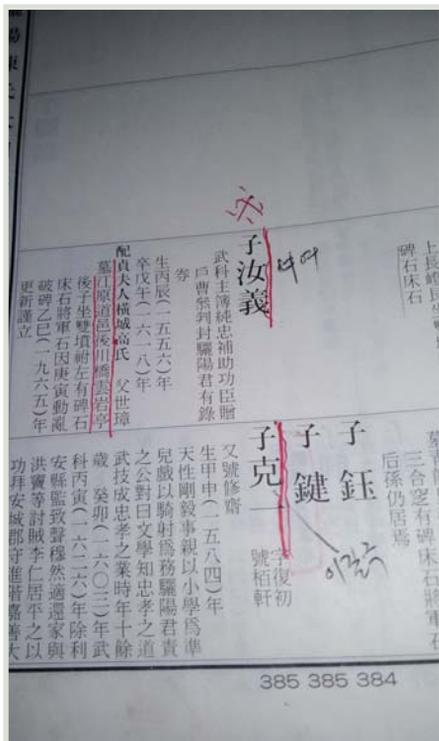
꿈속에서 화선이는 진오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천기는 한양 화방골에 사는 화선이라고 하오며 평소 저는 대감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대감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향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진오기는 이러한 화선이의 간절한 마음을 고맙게 여기고 한양 화방골에 화선이라는 기생이 정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서 버르고 있었는데 꿈속에서조차 며칠간 보이질 않아 이상히 생각하고 한양으

로 떠났다. 한양 화방골에 당도해 화선이라는 기생을 찾으니 그는 1년 전에 죽은 유명한 기생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 그렇다면 화선이의 혼이 꿈속에서 나를 찾아와 준 것이구나...’ 그는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다시 꿈속에서나마 화선이를 만나길 고대했으나 다시는 화선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는 화선이와의 인연을 생각해 화선이의 화(花)자와 꿈 몽(夢)자를 넣어 ‘화몽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형성군지에서 발췌)  
1627년 인조반정 이인거의 난을 평정한 여평군(驪平君) 극일(克-1584-1643)은 공의 손자이다.



여양진씨 대동보(진오기)



진오기의 손자 극일



1478년에 조성된 24세 손억영공의 묘. (풍화작용으로 봉분이 납작해졌다.)



조선 중기 때부터 조성된 7대가 모여 있는 횡성고씨 가족묘(약3300m<sup>2</sup>)



25세손 세현공의 묘와 묘비 및 상돌(억영공의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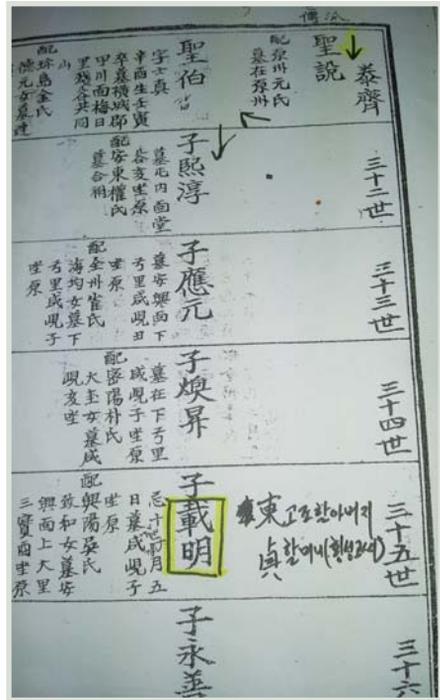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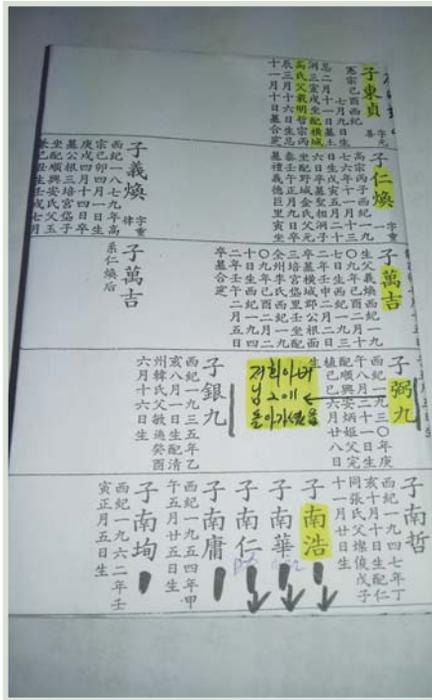


문관석, 촛대석, 묘비가 있는 경헌공의 묘(억영공의 손자) 설명하는 허남호씨

### 3. 횡성고씨 가족묘를 허씨가 벌초하는 사연



조선 중기부터 조성된 가족묘가 7대에 걸쳐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그러나 얼마동안 관리가 잘 되지 않던 것을 김해허씨가 3대에 걸쳐 오늘날 까지 돌보고 있다.



좌: (김해허씨 족보)동정공이 남호씨의 고조부이며 고조모는 횡성고씨이다.  
 할아버지 만길공 때부터 3대째 횡성고씨 가족묘 별초를 하고 있다.  
 우: (횡성고씨 족보)재명공이 고조할머니 횡성고씨의 부친이다.

횡성고씨 35세 재명공의 딸이 허남호씨의 고조부인 동정(東貞)공에게로 출가하여 허씨 후손들은 횡성고씨가 외가이다. 묘지를 돌볼 사람이 없자 별초는 허남호씨 조부(萬吉)때부터 시작하여 100여년간 이어왔다.

횡성고씨 37대손인 윤탁공의 부인인 전주이씨 할머니가 남호씨의 아버지 필구(弼九)공에게 찾아와 고씨 집안에는 손이 끊어져 별초할 사람이 없으니 외손인 너희들이 대를 이어 계속하라는 부탁을 받고 3대째 하게 되었다. 남호씨(58세)는 아버지가 2011년 작고하시자 유지를 받들어 5년째 인천에 사는 동생 남화(56세), 조카 2명과 함께 4명이 예취기 4대로 별초를 하고 있다. 소요시간은 쉬지 않고 한나절이나 걸리는 넓은 면적이다. 자기네 조상 묘 30기를 별초하는데

도 힘이 들지만 고조할머니의 조상, 증조할아버지의 외가라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황성고씨 가족묘를 돌보고 있다.

재산을 물려받고 외손봉사하거나 위토로 묘지관리와 별초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런 것도 없이 오직 의리로 증조할아버지 외가인 황성고씨 가족묘를 3대가 대를 이어 별초를 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한 때 제절주변까지 나무가 자랐는데 산주의 강력한 반대로 허씨네는 그 나무를 자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1세대 산주가 돌아가시고 그 분 손자에게 호소하여 묘역에 자라던 나무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었고 산소까지 등짐으로 잔디를 옮기고 잔디를 입혀 본래 가족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 4. 현대의 장례문화와 묘지관리로 본 황성고씨 가족묘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 효사상, 풍수지리설에 의해 조상묘소를 명당에 쓰면 후손들이 음덕(蔭德)을 입는다는 믿음 속에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류층이 이를 주도, 묘소만 보아도 죽은자나 그 자손의 권력과 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없는 자는 이것이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조상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컸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위화감과 국토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전직 양김 대통령의 산소자리가 봉황의 양 날개에 해당하는 자리라 하며 알모양의 바윗돌이 일곱 개가 나와 묘소주위에 쌓았다고 명당임을 강조하는 기사가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었다. 아직도 명당 풍수지리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준다.

오늘날의 중국을 있게 만든 덩샤오핑(鄧小平)은 그의 생전 유지를 통해 장례는 간소히 치르고 조문소도 설치하지 말며, 화장해서 유분은 바다에 뿌려라 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의 깊은 뜻이 실천되었음은 물론이며 사후에도 감동과 큰 울림, 그 어떠한 명당의 호화 분묘의 주인공 보다 값진 교훈과 훌륭한 지도자

상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 중 79.2퍼센트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 묘지투성이의 국토를 걱정하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면서 유교사상, 풍수지리설, 조상 숭배 사상의 퇴색과 도시화 등으로 요즘은 장례문화도 급격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공동체에 의한 유학계 장례식 진행은 장의사와 상조회 업체에 대체되고 상여소리, 회다지 소리도 사라져가고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기존 묘지관리 실태도 변하고 있다. 소작인이 위토를 경작하며 시제도 지내주고 벌초를 해 주던 것이 농산물 값의 하락과 농민의 고령화로 외면받는지 오래다. 그래서 후손이 모여 성묘와 벌초를 하기도 하지만 위토를 팔아 낱골묘 조성, 수목장 등, 관리를 용이 하게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바쁜 도시 사람들을 위해 벌초 대행업체도 성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대로 볼 때 지금까지 고씨네 소유의 산도 아닌 다른 산주의 눈치를 보며 허씨가문에 의한 횡성고씨 가족묘 관리와, 넓은 면적을 벌초해 왔다는 것은 전통적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미래 세대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조선 중기부터 조성,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횡성고씨 가족묘는 당시의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장례민속자료라 생각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 지금의 장례문화와 제도 변화로 볼 때 언제까지 관리될지는 모를 일이다.

## 5. 맺으며

허남호씨택 족보를 보더라도 증조할아버지 때 대가 끊기어 동생분의 아들을 양자로 대를 이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첩실을 두거나 양

자로 대를 이어가며 조상을 섬기는 것이 통례였으며 그러므로 남아 선호사상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없이 하나나 둘로 그친다. 거기에다 농촌은 젊은 사람의 부재로 아기울음 소리가 그친지 오래다. 아무리 종손이나 외아들이라 하더라도 꼭 아들을 낳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흉물로 묘소들이 방치되어 무연고 묘가 늘어날 런지도 모를 일이다.

연고 없는 목묘로 영원히 잊혀질뻔한 횡성고씨 가족묘, 허남호씨 가문에 의하여 관리, 현상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를 통하여 조선 중기 가족묘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수백리 횡성고씨 세거지에서 그들의 위상, 장례모습, 일상 속의 희로애락을 상상하며 당시의 장례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처럼 아득한 옛날부터 향토에는 숭한 사연을 품고 치열하게 살다간 의미 있는 삶의 궤적들이 묻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더 있으면 좋겠다. 세월이 흐르면 지금 산자도 또 무덤의 주인공처럼 되어 허공속에 잊혀지겠지만 후세 사람들은 선인(先人)에게서 역사의 교훈을 또 찾을 것이다. 마을 안에서 또는 이웃마을과 혼인이라는 인연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명당 보다는 마을 어귀 양지녘 그 터전에 오순도순 모여 있는 조선 중기 횡성고씨의 가족묘가 그대로 유지되어 당시 묘지 제도와 그들의 삶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II .향토문화숨결

- \* 횡성의 인물 유적을 찾아서 | 김동정
- \* 횡성의 문인 삽교(雪橋) 안석경(安錫敬) | 이성형  
(제46회 한국한문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
- \* 맛있는 휴식 안흥짬뽕 축제 | 박현숙



# 횡성의 인물 유적을 찾아서



김 동 정

(강원도사편찬실, 문학박사)

10월 26일 아침까지 내린 비로 인하여 도시 전체에 연하가 피어올라 목가적인 풍경이 연출되었다. 9시부터 이사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박순업 원장님의 강의는 10시가 되어 마무리되었다. 오늘 답사할 내용을 PPT로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

10시 10분에 횡성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사 9명, 국장과 과장 등 12명과 함께 24인승 버스를 타고 인물유적 답사길에 올랐다. 첫 코스는 조곡리에 있는 솟을묘 곧 고행산 판서의 할머니 정부인 횡성고씨 묘로 향하였다. 3.3km의 거리를 10여 분 정도 달려가서 황토흙벽돌공장을 지나 30~40도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니 둥근 묘가 시야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잠시 원장님의 묘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솟을묘와 고행산 판서의 할머니

횡성읍 조곡리 새골 안마을에는 고 판서의 할머니 묘가 있는데, 고행산 이 과거에 급제하여 꾸준히 승진한 끝에 판서가 되어 삼현육각을 올리며 금의환향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봉분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그 후부터 사람들이 이 묘를 솟을



정부인 횡성고씨 묘

묘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편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루는 고흥산의 아버지가 출타 중 밤길을 걷는데 도깨비를 만났으며, 도깨비는 그를 등에 업고 어느 야트막한 산자락에 내려놓고 “이곳이 명당이다”라고 중얼거리며 사라졌다고 한다. “내 손자가 판서가 되면 나는 무덤 속에서도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고 정부인 횡성고씨는 늘 소망으로 말해 왔으며, 얼마 후 세상을 뜨자 고흥산의 아버지는 모친의 묘를 이곳에 모셨다. 나중에 손자인 고흥산은 판서가 되었으며, 그때 무덤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 『강원의 설화』 II(2005)에 의하면, 고판서가 서울에서 강릉으로, 강릉에서 서울로 인력거를 타고 오갈 때마다 산소가 막 솟아올랐다고 하여 ‘솟을묘’라고 했다 한다.

솟을묘 우측에는 2009년 5월 14일에 제주고씨화전군과종중(濟州高氏花田君派宗中)에서 건립한 묘비가 있다. 전면에는 정부인횡성고씨지묘(貞夫人橫城高氏之墓)라고 되어 있고 뒷면에는 남편과 아들 및 손자들에 대한 내력을 기록해 놓았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횡성고씨 정부인의 남편 고습(高襲)은 제주고씨 화전군과 6세손으로 조선 태종 때 선무관을 지냈고 그 후 금성현령, 권농단판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를 지냈다. 아들은 셋을 두었는데, 장남 사민(思敏)은 공조참판과 울산현감을, 차남은 사준(思俊), 삼남은 사신(思信)으로 성종 때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을 지냈다. 사민의 아들에는 맹손(孟孫, 통덕랑), 중손(仲孫, 통덕랑)이 있고 사준의 아들에는 달생(達生)이 있으며, 사신의 아들에는 향산



정부인의 장남 고사민의 묘와 묘비

(恒山, 안릉참봉), 형산(荊山, 5조판서,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이 있다.

일행은 솥을묘 아래에 있는 횡성고씨 정부인의 장남인 고사민(高思敏) 묘도 둘러보았다. 묘의 좌측에는 오래된 묘비가 있었으나 마모가 심하여 알아보기 힘들었고 우측에 새로 세운 묘비가 있었다. 묘비 전면에는 「贈工曹參判行蔚山郡守濟州高公思敏之墓(증공조참판행울산군수제주고공사민지묘) 配貞夫人晉州姜氏(배정부인진주강씨)」라고 되어 있었고 후면에는 아들 통덕랑 맹손 내외, 통덕랑 종손 내외, 손자 참봉 득필(得弼) 내외, 경(京) 내외에 관하여 간략히 적혀 있었다.

다음 코스는 조충묘소였다. 이곳 조곡리를 출발하여 정암3리 조충묘소까지는 약 5.6km의 거리이다. 가는 도중 1.6km 정도 시점에서 원장님이 차를 세웠다. 냇가 옆에 많이 퇴락된 정자 하나가 서 있다. 잠깐 툽툽바위와 정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 툽툽바위 전설(고판서와 도깨비전설)

횡성읍 마산리 마을 앞을 굽이쳐 생운리를 지나 흐르는 전천에는 툽툽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옛날 이곳은 물이 빙빙돌뿐만 아니라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갈 정도로 물이 깊었다고 한다.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도깨비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이곳에는 고씨성을 가진 젊은이가 매일 이곳을 지나 청룡리로 글을 배우러 다녔다고 한다. 워낙 머리가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이 소년은 서당 훈장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였다고 한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어 가려고 이 바위 위에 앉았다가 잠시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만큼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이 소년에게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숫, 조용히! 고판서께서 잠을 주무신다.” “그래 지체 높으신 어르신께서 잠을 깨시면 안되잖아.”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뜬 소년은 주위를 유심히 살폈으나 바위 주변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만 물소리만이 간간히 들려 올 뿐이었다. 이 소년이 바로 횡성의 인물로 뽑히는 고흥산이었다. 고흥산은 과거에 급제해 형조·호조·병조판서를 두루 거쳐 우의정까지 이르렀다. 이런 일이 있던 후 이 동네에 사는 한 소년이 바위 위에서 잠을 청하자, “예끼 이방 이놈! 썩 일어나지 못할까!”라는 도깨비들의 벽력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그 소년은 후에 이방 밖에 못했다고 한다.



통통바위와 그 바위 위에 세워진 순풍정(淳風亭)

통통바위 위에 세워진 순풍정은 횡성읍 읍하리에 사는 박두학씨가 사재를 털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지은 것이다. 그는 1960~70년대 철공소를 하여 돈을 많이 벌자 마을 사람들을 위해 휴식처를 마련해 준 것인데, 이 정자는 1972년 3월 29일(음력)자로 상량(上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박두학씨가 세상을 떠난 후 관리소홀로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어 쓸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 조충의 묘소와 지석

이곳에서 정자 주변을 잠시 둘러보고 조충의 묘로 향하였다. 이곳에서는 약 4km정도의 거리로 약 7분 후에 도착한 조충의 묘는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웬지 모르게 그의 기상이 느껴졌다. 묘의 주위에는 여러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묘의 둘레는 화강암으로 둘러졌고 좌측에는 옛 묘비가 우측에는 새로 세운 묘비가 서 있었다. 묘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을 놓았고 한 단 아래 좌우에 동자상

과 중앙에 장명등이 놓였고 다음의 좌우에는 문인석과 그 앞에 양의 석조물이 놓여 있었다.

조충의 묘소는 원래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 연동 건좌에 있는 고려 태조 왕비의 제릉(齊陵) 서쪽 기슭에 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실묘(失墓) 되었다가 도굴이 성행하던 일제강점기에 이 묘소도 수난을 당하여 지석(誌石)만 지표에 남아 있던 것을 1926년 외후손 최모씨가 발견하여 묘를 찾게 되었고 아울러 분묘(墳墓)도 다시 수리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38선으로 남북이 갈리게 되자 황성의 종중은 장차 통행이 두절될 것을 염려하여 1948년에 황성군 우천면 정암리 망백 우측 기슭에 묘소를 이장하고 지석도 옮겨 묻었는데, 1988년 10월에 묘역을 정비할 때에 다시 지석이 확인되었다.



조충 지석

지석은 조충 선생이 세상을 뜬 고종 7년(1220)에 만든 것이다. 청석제(靑石製)로 가로 89cm, 세로 55cm, 두께 4cm이다. 이면(裏面)에만 명문이 있다. 전면 윤곽에는 정교한 당초문(唐草紋)을 새기고 그 안쪽으로 테두리 선을 그었다. 전체 네 조각으로 갈라져 서너 곳이 깨어져 나갔다. 현재 남은 부분도 파여진 곳이 많아 상당 부분 판독이 불가능하다. 글씨는 종선(縱線)을 그어 새기고 주서하였는데 한자 크기는 횡열은 맞지 않으며 제34행의 경우 중간 부분 ‘대주지전(代州之戰)’ 4자의 사이는 크게 벌어져 41자가 되지 않는다. 자체(子體)는 진체(晋體) 소해(小楷)이며 필력(筆力)이 힘이 있고 풍격(風格)이 고담(古淡)하다. 내용은 선대가계, 조충의 생애, 인품과 일화, 가족관계, 찬자와 명의 순서로 되어있다.

조충지석은 1989년 5월 1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조충은 고려시대 때 거란족을 막은 대장군으로 유명하며 시호는 문정공(文正公)

이다. 본관은 황성이며 고려 명종 원년(1171)에 태어나 고종 7년(1220)에 50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 고형산 묘소



고형산 부부묘 전면과 옆면 (앞에는 부인, 뒤에는 남편)

조충 묘소에서 걸어서 5분 남짓 거리에 고형산 묘소가 있다. 묘소에서 내려다 본 정암3리 망백마을은 온통 단풍으로 노랗게 물들어 깊어가는 가을 풍광을 아름답게 펼치고 있었다.

묘소 바로 전면에는 묘비가 서있다. 비석의 크기는 가로 56.5cm, 높이 152cm, 두께 14cm이다. 우측에는 ‘정정부인윤씨지묘 전(貞敬夫人尹氏之墓 前)’, 좌측에는 ‘숭정대부의정부우찬성고공지묘 후(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高公之墓 後)’라고 되어 있어 앞의 봉분은 부인의 묘이고 뒤의 봉분은 남편인 고형산의 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묘는 전후로 합장이며, 앞에는 정정부인 윤씨, 뒤에는 우찬성 고형원의 묘인데, 뒤의 묘가 훼손된 것은 인조 때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묘비 앞에는 좌우로 망주석이 있고 그 앞에는 좌우로 문인석이 서 있었다. 그



고형산 묘소 앞의 목이 떨어져 있는 문인석

런데 좌측에 있는 문인석의 목이 잘려 있다. 당시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 무거운 죄를 뒤집어썼지만 고흥산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이 흘린 상태여서 죄 값을 치를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자 애꿎은 문관석의 목을 자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대제학 홍언필이 찬하였다는 신도비는 죄를 뒤집어 쓸 당시 파손되어 없어졌다고 하고 신도비를 세웠던 귀부대석 만이 도랑가 밭둑 풀 속에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귀부대석의 크기는 길이 180cm, 높이 100cm, 폭 70cm 이고 신도비를 세웠던 흙은 가로 60cm, 세로 20cm이다.

고형산(高荊山, 1453~1528)은 황성사람으로 사신(思信)의 아들이며, 자가 정숙(靜叔)이고 시호가 위열(威烈)이다. 1483년(성종 1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연산군 때 해주목사,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중종 때 형조·호조·병조의 판서를 거쳐 우찬성(右贊成)에 이르렀다. 1519년(중종 14) 남곤(南袞) 일파와 함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켜, 조광조(趙光祖) 세력을 숙청하였다. 곧고 근검한 성품으로, 수리(數理)에 밝아 행정능력이 뛰어났으며,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북방(北方)의 일에 능통해 있었고, 평소 성질이 질박하고 정직하며 매우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군의 병사와 금전(金錢)과 양곡(糧穀)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아 처리가 매우 정밀하였으며, 일을 정비한 것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도로를 개통한 그의 업적은 높이 살만하였는데, 죽은 지 100년 하고도 8년이 지나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했다고 전해져 온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고흥산이 닦은 길을 타고 한양으로 곧장 진격했다는 이유였다. 그 후 그에 의한 경강선(京江線) 개통에 대한 재평가로 무고함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업적의 지대함에 대한 보상으로 나라에서는 고관서 묘가 있는 황성군 황성읍 정암리 망백 마을의 사방(四方) 십리(十里)의 땅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 사선생비와 조충신도비

이곳에서 내려가 도보로 250m 남짓 가면 소나무 숲이 있어 이 소나무만 보아도 이 마을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숲의 안쪽에



사선생비와 비문

는 『사선생비』가 있는데, 비각 속에 있었다. 비문 앞면에는 우에서 좌로 사선생비(四先生碑)라고 써어 있었고 우에서 좌로 “정백곡근수(鄭栢谷崑壽), 정한강구(鄭寒岡述), 조은은당린(趙隱隱當隣), 조송호정립(趙松湖正立)”이라 적혀 있었다. 후면에는 좌에서 우로 “숭정재무술립(崇禎再戊戌立), 사신유훼우매안우차(祠辛酉毀宇埋安于此), 조선생사손 기성 동진 임신원월립(趙先生嗣孫 基成 東鎭 壬申元月立)”라고 적혀 있었다. 『사선생비』는 백곡 정근수, 한강 정구, 은은당 조린, 송호 조정립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 놓았다.

위의 비문 후면에 적힌 내용을 보면, 『사선생비』는 1778년 무술년에 세워졌고 1861년 신유년에 사우(祠宇)가 훼파되자 그곳에 사선생비를 묻었다. 조선생 후손인 기성과 동진이 1932년 임신년 1월 다시 현재의 위치에 세웠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조씨 문중의 조성진(78세) 어른에게 문의했다. “그 비석은 공근면 매곡리와 수백리 합수지점에 있는 아계서원에 세워졌는데, 서원이 헐리게 되자 그 비석을 개울가에 묻었다. 세월이 지나 홍수로 인하여 그 비석이 텅구는 것을 집안에서 이곳 정암3리로 옮겨 와 세웠다”고 말씀하셨다.

소나무 숲 도로 반대편에 조충신도비가 있다. 이 신도비는 2004년 8월 15일에 강원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종친에서 세웠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학술원회장, 부총리, 서울특별시장을 지낸 조순이 글을 짓고 글씨를 썼다.

## 세덕사와 삼원수

조충신도비에서 서북쪽으로 160m 정도 가면 세덕사가 동남방을 향해 장엄하게 세워져 있다. 이 세덕사는 1925년 9월 횡성조씨 문중이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삼원수골에 건립하였다가 1988년에 이곳 정암3리 산207-5번지로 옮겼다.

조충의 부친 영인, 아들 계순과 함께 3대가 원수(元帥)를 지냈다고 하여 ‘삼원수(三元帥)’로 불리며, 후손들이 세덕사를 삼원수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봄·가을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조충의 아버지인 조영인(趙永仁, 1133~1202)은 참지정사(參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수태위(守太尉)·상주국(上柱國)으로 임명되었으며, 신종 초기에는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수태사(守太師)·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판이부사(判吏部事) 등으로 승진하였고 청백한 재상으로 신종묘정에 배향되었다(『고려사』권99「열전」12).

조충(趙冲, 1171~1220)은 거란, 여진족 침입 시 뛰어난 전공을 올렸으며, 특히 강동성에서 항복을 받은 후 거란장을 설치하여 유민 5만여 명을 정착시킨 것으로 유명하며, 고종 묘정에 배향되었다가 광복이후 1948년 이곳 횡성읍 정암리로 천묘되었다. 조선건국 후 고려 성왕과 충신 16위인 열위(列位) 한분으로 숭의전에 배향되었다.

조충은 본관이 횡성이고 횡성에서 태어났으며, 자가 담약(湛若), 시호가 문정(文正)이다. 음보(蔭補)로 벼슬에 나간 뒤 명종 때 문과에 급제, 내시(內侍)에 임명되었다. 1211년(희종 7) 대사성(大司成)·한림학사(翰林學士)로서 동지공거(同知貢舉)를 겸하고,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예부상서(禮部尙書)를 거쳐 1216년(고종 3) 추밀부사(樞密副使)·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로서 상장군을 겸하였다. 문관으로서 상장군을 겸한 일은 문극겸(文克謙) 이후 처음이었다.

그해 거란족이 침입하자 정숙첨 휘하에서 행영중군부원수(行營中軍副元帥)

로 출정하여 다음해 염주(鹽州, 지금의 황해남도 연안군)에서 거란족을 격퇴하였으나, 안주 태조탄(太祖灘)에서 패배하여 파직되었다. 조충이 부원수(副元帥)로 출정했다가 패배하여 파직된 뒤에 읊은 시에서 그의 한(恨)과 애국심이 잘 나타나 있다.

만리 길 서리굽이 한번 미끄러졌으니	萬里霜蹄容一蹶
병마의 비명소리에 시절 바뀐 줄 몰랐노라	悲鳴不覺換時節
아마도 조부의 분을 받아 다시 주마에 가편하고	教祖父更加鞭
모래톱에 유린하는 오랑캐를 꺾어나 보자	踏躡沙場古月

한편, 당시 출정에 앞서 조충이 원수 정숙첨과 병력을 파악해 본 결과가 『고려사절요』 권14 고종 3년(1216) 11월조 나타나 있다.

재추(宰樞)와 중방(重房)에서 아뢰기를, “태조(太祖)의 후예(苗裔)와 문과(文科) 출신(出身)을 막론하고 모두 군대에 충원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따랐다. 원수(元帥) 정숙첨(鄭叔瞻)과 조충(趙冲) 등이 순천관(順天館)에서 병력을 점고하였다. 날래고 용맹한 자는 모두 최충헌(崔忠獻) 및 아들 최우(崔瑀)의 문객(門客)이 되었고, 점고한 관군(官軍)은 모두 노약자와 여원 병졸이었다.

정숙첨과 조충이 거란족과의 전투에 인솔해간 군사는 노약자와 여원 병졸들이었다. 날세고 용맹한 군사는 모두 최충헌 부자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터이지만 조충은 조국을 침략한 적을 무찌르기 위해 부족하지만 출정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여진족의 황기자군(黃旗子軍)이 압록강을 건너 인주(麟州)·용주(龍州)·정주(靜州) 등지의 경계 내에 침입하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가 되어 이를 대파(大破)하고, 그 공으로 파면 이전의 관작으로 복직되었다.

1218년에 수사공 상서좌복야(守司空尙書左僕射)가 되어 개경으로 돌아왔으나, 거란족의 침입이 날로 심해지고 관군이 유약해 복속시키지 못하자, 다시 서북면원수가 되어 김취려(金就礪)·정통보(鄭通寶) 등을 인솔하고 출정하여 거란군을 대파하였다. 이에 거란군이 강동성(江東城)에 들어가 웅거하게 되었다. 이듬해 2월 몽골·동진(東眞) 군대와 연합해 강동성을 공격하여 거란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당시 상황을 『고려사절요』 권14, 고종 6년(1219) 1월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적의 괴수 감사왕자(臧捨王子)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그 관리와 군졸, 부녀자 50,000여 명은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왕자의 처자식, 거짓 승상과 평장(平章)을 비롯한 100여 명은 모두 말 앞에서 참수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죽음을 면해주고 여러 군사를 시켜 지키게 하였다. 조충은 거란의 포로를 각도의 주·현에 나눠 보내어서 빈 땅을 골라 모여 살게 하고, 그들에게 토지를 헤아려 지급하여 농사를 짓는 백성이 되게 하였다. 세상에서 거란장(契丹場)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듯 조충은 최충헌 정권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군사들이 노약자들과 병든 군사들임을 알고서도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참패를 거울삼아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5만 명의 포로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었고 농사법도 가르쳐 주어 ‘거란장(契丹場)’이란 용어를 잉태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조충은 개선하여 정당문학 판에 부사(政堂文學判禮部事)에 오르고, 곧이어 수태위 동중서문하시랑평장사 수국사(守太尉同中書門下侍郎平章事修國史)가 더해졌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추증되고, 고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조충과 연관된 지명을 살펴보면, 공근면 부창리(公根面 富蒼里)에 있는 망제(望祭)머리는 그의 부음(訃音)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 제사를 드린 곳이고, 배행(拜行)고개는 3원수가 떠날 때 배웅을 하던 곳이다. 그리고 정암의 망백은 벼슬에 오른 후손들이 조상께 아된다는 뜻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황성과 홍천의 경계에 있는 삼마치(三馬峙) 역시 조영인·조충·조계순 삼원수가 말을 타고 넘어 온 고개라는 의미에서 불려졌다고 전해져 온다.

조충열전에 그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품모가 크고 훌륭하였으며 겉으로는 장엄하고 정중하였으나 속마음은 관대하고 온화했다. 선비들을 만나게 되면 즐거워하며 지위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다. 세 번이나 과거를 주관했는데(31) 뽑은 사람은 모두 이름난 선비들이었다. 장수로 나가거나 재상으로 들어오거나 조정이나 지방에서는 그를 신뢰하며 소중히 여겼다. 평상시 일을 할 때 한 번도 모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가 관대하고 후하며 속이 넓고 덕이 높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많은 군사를 지휘하거나 큰일을 한 뒤에야, 그가 조그마한 일에 구애되지 않고 비범한 도량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재상이 되어서는 동고(東臯)에 독락원(獨樂園)을 마련하고 공무의 여가 때마다 훌륭한 선비와 관리들을 초청해 음악과 술로 즐겼다. 뒤에 고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고려사』권100, 「열전」 16).

라고 하여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임을 그려내고 있다.

아들 조계순 역시 훌륭한 인재였다. 숙창(叔昌)은 형이며, 변(拊)은 아들이다. 1215년(고종 2) 3월 중랑장 추밀원부사를 거쳐 은청광록대부에 올랐으며, 남주(南州)에 침입한 황건적을 물리쳐서 그 용맹성을 널리 떨치고 후설(侯說, 임금의 말을 아래로 전하는 일, 즉 재상을 이름)을 겸하였다. 그는 문신으로서의 활동도 눈부셨지만 무신으로서의 활약이 더 훌륭하여 상장군으로 무신의 벼슬에 올랐다. 1250년(고종 37)에는 좌승선에 있었는데, 당시 무인집권자인 최항에게 딸을 출가시켰다. 이해 추밀원부사에 오른 뒤 문하시랑평장사에 이르렀다. 시

호는 광정(光正)이다. 조계순의 처는 우봉최씨(牛峯崔氏)로 진강공(晉康公) 최충헌의 딸이다.

이에 후손들이 삼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황성군의 협조로 1988년 세덕사(世德祠)를 이 건하였고, 2001년 강원도의 열 선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강원도와 황성군의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투자 2001년 외삼문, 2002년 동·서재, 2003년에는 담장·홍살문 등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매년 2회씩 거행되는 제례인 춘향제(春享祭)는 음력 3월 3일에 대종회 주관으로 종친들이 모여 올리고, 추향제(秋享祭)는 음력 9월 3일에 황성향교 주관으로 각 유림(儒林) 대표와 종친들이 함께 제를 올리고 있다.



조충신도비에서 본 세덕사 원경과 근경

11시 30분이 지나서 세덕사를 출발한 일행은 정암3리 덕고마을을 나오다가 잠시 도로 옆에서 있는 두 개의 비석을 보았다. 하나는 생운리구장박공병희송덕비(生雲里區長朴公秉熙頌德碑)이고 다른 하나는 행현감·공진환불망비(行縣監·公鎭還不忘碑)였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경강로(京江路) 옆에서 있는 것으로 보아 혹 경강로 확장에 공적을 세운 이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승차한지 10여 분이 지나 11시 55분에 황성보양식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였다. 능이오리백숙으로 식사를 하였다.



식사하기 전에 원장님의 한 말씀, 점심으로 먹은 늬이오리백숙

## 상동리 삼층석탑과 석불좌상

1시 20분 식당에서 나온 일행은 조충이 태어났다는 삼수원골의 불영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5번국도를 따라 홍천방향으로 달리다가 우측 초당교를 건너 9km 정도 갔을 때 상동리 삼층석탑과 석불좌상이 있어 잠시 멈추었다.

이곳에 석탑과 석불이 있다는 것은 분명 사찰이 있었을 것이다. 주민들을 통하여 전해져 오는 말에는, 이곳에 성덕사(成德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조선 태조 때 폐사되었다고 한다. 그럼 이 석탑과 석불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 상동리 삼층석탑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495-3번지에 있는 삼층석탑으로 1971년 12월 16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다. 상동리 석불좌상 오른쪽에 있는 삼층석탑으로 신라 말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논에서 출토된 것을 불상 옆에 탑재를 모아 놓았다고 하며, 이곳에 있었던 절은 성덕사(成德寺)라 하였다고 한다.



삼층석탑과 석불 앞에서 기념하는 원장님과 이사 및 관계자들 모습

현재 기단부(基壇部)의 갑석(甲石) 아래는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으나 탕주(撐柱) 1주(柱)가 모각(模刻)된 기단면석(基壇面石)이 있었다고 하며, 갑석의 형태를 볼 때 일반적인 2층 기단의 형태이다. 갑석의 윗면에는 사분원과 각형의 탑신괴임을 두어 탑신부(塔身部)를 받고 있다. 탑신부는 1층 옥신(屋身)에 비해 2층 옥신의 높이가 1/3 정도의 체감율을 보이고 옥개석(屋蓋石)도 자연스럽게 체감되어 안정감을 보인다. 1층과 2층의 옥신은 모두 양우주(兩隅柱)를 모각하였으나 3층 옥신은 우주가 없고 크기가 다른 점으로 보아 무너진 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석재(石材)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상동리 삼층석탑

옥개석의 낙수면(落水面)은 완만하고 처마선은 아랫선이 수평을 이루었으나 윗선은 전각(轉角)부분에서 반전(反轉)되었다. 옥개받침은 1층과 2층은 4단씩이나 3층은 3단이며, 옥개석 윗면에는 2단의 받침을 각출하여 그 위에 옥신을 받치고 있다. 각층 네 귀퉁이의 전각 부분에는 풍경(風磬)을 달았던 흔적으로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다. 3층 옥개석 윗면에는 직경 8.5cm, 깊이 10cm의 찰주공이 남아 있다. 이 탑은 옥개석 등 각 부분의 양식으로 볼 때 고려초기의 것으로 보여진다.

### 상동리 석불좌상

황성군 공근면 상동리 495-3번지에 있는 석불좌상으로 1971년 12월 16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다. 상동리 3층석탑과 나란히 있다. 하대석(下臺石)은 땅에 묻혀있어 확실한 모양을 알기 어렵고, 불두(佛頭)도 1989년 10월에 도난을 당한 이후 새로 만들어 놓았으나 원래의 것보다 작고 조잡한 모습

이다. 원래의 불두는 나발(螺髮) 위에 큼직한 육계(肉髻)가 있었고 양미간(兩眉間)과 비부(鼻部)·구진(口脣) 등이 정제되었으며 양쪽 귀가 조금 깨졌으나 상호(相好)가 원만하고 입가에 미소를 띠어 자비스러운 모습이었다.



상동리 불상의 전면과 후면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고, 수인(手印)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결(結)하고 있으며 통견(通肩)한 법의(法衣)는 양어깨에 걸쳐 무릎을 덮었는데 그 유려한 옷무늬와 왼무릎에 올려놓은 오른쪽 발의 사실적인 조각수법이 뛰어나다. 불상의 등에는 폭 4cm, 깊이 3.5cm의 둥근 구멍이 있어 본래는 광배(光背)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좌측에는 화염문(火焰文)과 이조선(二條線)이 조각된 광배편이 있었으나, 1993년에 경지정리작업을 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좌(臺座)는 상대석(上臺石)이 원형(圓形)으로 측면에는 복관양련(複瓣仰蓮)을 장식하였는데 연판(蓮瓣) 안에는 자방(子房)이 있는 화관(花瓣)을 조식(彫飾)하였으며 하단(下段)에는 2단의 괴임을 각출(刻出)했다. 중대석(中臺石)은 8각형으로 우주(隅柱)는 없으나 각 면마다 상하(上下)로 긴 안상(眼象)이 음각(陰刻)되었다. 이 불상은 상호(相好)와 의문(衣紋)·대좌(臺座) 등의 조각수법으로 볼 때 고려초기로 추정되는 우수한 작품이다.

## 선강정터

한편, 상동리 삼층석탑과 석불에서 강을 따라 동남쪽으로 400m 떨어진 곳에 선강정터가 있다. 이곳은 조영인과 조충 부자가 노닐며 시를 읊조리던 곳이라

전해져 온다. 그러나 실질적인 선강정(仙降亭) 건립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 숙종 때 우승지 유의창(柳宜昌)의 손자 유수천(柳秀千)은 영특하고 재주가 총명하여 이미 8세에 『소학(小學)』을 읽었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즐긴 유수천은 밤낮없이 공부하여 진사가 된 후 더욱 그 재능을 보여 문장이 뛰어나고 성리학에 몰두하던 중 1697년(숙종 23)에 이곳으로 낙향하여 산수를 벗삼아 생활하며 훈도(訓導)를 하면서 여름철 서정(書亭)을 짓고 그 이름을 선강정(仙降亭)이라 하였다. 훈학(訓學)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뜯고 여름이면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소요(逍遙)하고 회포를 달래면서 건너편 자지봉(紫芝峰) 단풍을 보며 앞 냇물을 ‘금계천(錦溪川)’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옛 선강정 위의 숲속의 하루 펜션 원경과 근경

지금은 선강정터 위에 아름다운 펜션 ‘숲속의 하루’가 세워져 그 명성을 대신하고 있다. 「조충지석」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놀리고 있는 땅에 별장을 지어 샘도 파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독락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공무가 끝나면 친척, 자제, 문생(文生), 오래된 친구들을 즐겨 데리고 와서 작은 술자리를 열었다[隙地構別墅鑿泉種松竹名獨樂園退公之後喜率親戚子弟門生故舊開小酌.]” 어쩌면 독락원은 선강정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세월이 변해도 터의 자취는 길손들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목가적이고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풍긴다. 그리고 그때도 주위를 거닐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하며 휴식하던 공간이었을 터,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편히 쉬는 안식처로 이용하고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그 용도는 같으리라.



숲속의 하루 뒤편 양철집과 그 집에 달린 '영화루(映華樓) 현판 모습

선강정터의 숲속의 하루 펜션을 돌아서 막 나오는데 우측에 한 시골 양철집이 눈에 띄었다. 그 양철집에는 '영화루(映華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서울 창덕궁에만 있는 줄 알았던 영화루가 이곳에도 있는 것이다. 금계로 동2길 30-9에 위치한 집이고 「부(夫) 허정구 부(婦) 심순식」이라는 명패가 분명히 달려 있다. 정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안에는 현대식 슬라브식 1층 건물이 따로 있었다. 옛 집을 그대로 둔 채 뒤에다가 신축한 것이었다. 주인을 만나기 위해 불러보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아마도 선강정을 대신하여 이곳에서 조영인 조충 부자와 같은 운치를 달래던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세덕사터



삼원수골 세덕사유적터와 세덕사유적비

이곳에서 나와 다시 삼층석탑과 석불을 지나 1.3km 올라가면 삼원수마을이 나온다. 마을 입구부터 여러 기념석 및 표지석이 눈에 띈다. 삼원수 유래와 함

께 적힌 「삼원수비」와 「삼원수」 표지석, 그리고 「삼원수약초마을」이라는 입간판도 세워져 있고 입구 우측 길 옆에는 「삼원수약초마을공원」도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다. 이곳에서 약 400m 남짓 가자, 「세덕사유적비」가 산 밑에 보였다.

이곳에서 하차하여 인삼밭을 가로질러 유적비가 서 있는 곳으로 갔는데, 예전에는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갔다. 나지막한 산 아래 이수과 귀부를 잘 갖춘 「세덕사유적비」가 서 있었다. 뒤편으로 돌아 멀리 내려다보니 활연관통(豁然貫通)의 만추(晩秋) 풍광이 마음속을 아늑하게 해주었다.

이 세덕사는 1925년 이곳에 삼원수를 모시는 사당으로 세워졌다. 매년 봄 3월 3일(음력)과 가을 9월 3일(음력) 연 2회 봉향해오던 중 국가의 문화유적지 정화사업계획에 발맞추어 도·군비지원과 문중의 부담금으로 1988년 정암리 망백마을로 이전 건립하고 1990년 음력 9월 3일에 추향(秋享)에 이전 봉안함으로써 구 세덕사 건물을 파옥하고 그 본래의 유적지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1991년 10월 9일 「세덕사유적비」를 건립하였다.

당시 1988년 옮기기 전의 세덕사 모습은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과 똑 같은 산세에 옥수수밭에 둘러싸인 모습이 많이 남아 보였지만 소박한 모습이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집이며, 세덕사 정문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추원문(追遠門)이었다.



1988년 옮기기 전의 삼원수를 세덕사 전경과 세덕사 현판

한편, 1985년에는 조충의 얼을 되살리며 길이 후세에 남기고자 황성의 최고의 인물로서 고려사를 빛냈던 조충의 시호인 문정공(文正公)의 호를 따서 황성의 중심가 읍하리와 읍상리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문정로(文正路)라 칭하였다.

## 불영사와 석굴

이곳 「세덕사유적비」에서 580m를 가면 불영사라는 절이 나온다. 입구의 은행나무가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찰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기와집 모양의 사찰이었다.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대웅전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만대사 안내판이었다.



불영사 전경과 왼쪽 뒷부분에 있는 것이 석굴

거기에는 만대사에 대한 연혁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만대사(萬代寺)의 대역사(大役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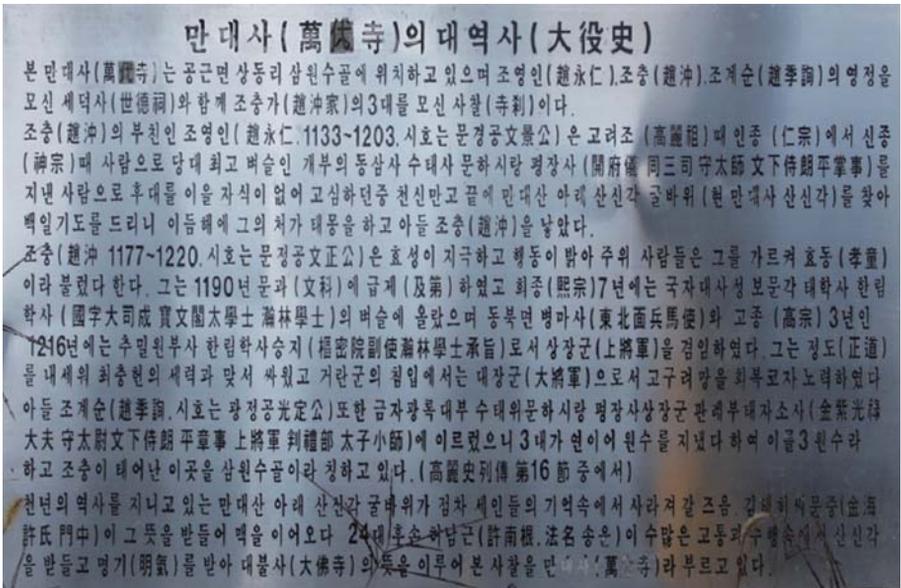
본 만대사는 공근면 상동리 삼원수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영인(趙永仁), 조충(趙冲), 조계순(趙季詢)의 영정을 모신 세덕사와 함께 조충가(趙冲家)의 3대를 모신 사찰이다.

조충의 부친은 조영인[1133~1203, 시호 문경공(文景公)]은 고려조 때 인종(仁宗)에서 신종(神宗) 때 사람으로 당대 최고 벼슬인 개부의동삼사 수태사 문하시랑평장사(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낸 사람으로 후대를 이를 자식이 없어 고심하던 중 천신만고 끝에 만대산 아래 산신각 굴바위(현 만대사 산신각)를 찾아 백일기도를 드리니, 이듬해에 그의 처가 태몽을 하고 아들 조충을 낳았다.

조충[1177~1220, 시호 문정공(文正公)]은 효성이 지극하고 행동이 밝아 주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효동(孝童)이라 불렀다. 그는 1190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희종(熙宗) 7년에는 국자대사성 보문각태학사 한림학사(國子大司成寶文閣太學士翰林學士)의 벼슬에

올랐으며,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와 고종(高宗) 3년인 1216년에는 추밀원부사 한림학사승지(樞密院副使翰林學士承旨)로서 상장군(上將軍)을 겸임하다. 그는 정도(正道)를 내세워 최충헌의 세력과 맞서 싸웠고 거란군의 침입에서는 대장군(大將軍)으로서 고구려 땅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아들 조계순(시호 광정공(光正公)) 또한 금자광록대부 수태위 문하시랑평장사 상장군 판례부태자소사(金紫光祿大夫守太尉門下侍郎平章事上將軍判禮部太子小師)에 이르렀으니, 3대가 연이어 원수를 지냈다 하여 이를 3원수라 하고 조충이 태어난 이곳을 삼원수골이라 칭하고 있다(『고려사』 열전 제16절 중에서).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대산 아래 산신각 굴바위가 점차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갈 즈음 김해김씨 문중이 그 뜻을 받들어 맥을 이어오다 24대 후손 허남근(許南根, 법명 송운)이 수많은 고통과 수행 속에서 산신각을 받들고 명기(明氣)를 받아 대불사(大佛寺)의 뜻을 이루어 본 사찰을 만대사(萬代寺)라 부르고 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이 불영사 이전에는 만대사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뒷산의 이름이 만대산이다. 세덕사와 함께 삼원수를 모신 사찰로 존재하고 있었다.

일행은 대웅전 뒤편 자지봉(紫之峰, 현재 만대산) 산자락에 있는 석굴 쪽으로

올라갔다. 약 40m 남짓 올라가자 신령각이 있었고 신령각 옆 약 5m 옆에 석굴이 있었다. 깊지 않은 석굴 안에서 자그마한 부처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는 산신상이 있고 신상의 앞에는 ‘만대산 옥수’라고 지칭된 샘이 솟고 있었다고 한다. 안내하던 마을 이장님의 말씀으로는 “예전에 사람이 살았던 관계로 옛 모습이 많이 망실되었다”고 하였다. 지금도 가뭄에도 불구하고 천장에는 푸른 이끼가 많이 끼어있고 우물 주위는 다른 곳보다 많이 축축해져 있었다. 조씨 문중의 조성진 어른은 “예전에 들기로는 굴 옆에 집터가 있었는데, 조충이 그 집에 머무르면서 무예도 닦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석굴입구와 내부의 작은 부처상 모습



『고려사(高麗史)』 권100, 「열전(列傳)」 16에 보면, “조충은 생후 1개월만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여서 효동(孝童)이라 불렸다”고 한다. 또한 『횡성조씨(橫城趙氏) 족보』에 의하면, 그는 상동리 자지봉(上洞里紫之峰) 아래 있는 굴바위(石窟)에서 태어났으며, 그 까닭에 이곳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의 마을이 조촌(趙村)이라 불렀다는 것과 다시 이곳에서 400m 아래쪽에 있었다는 선강정(仙降亭)에서 이들 부자가 시를 읊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어찌든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지만 1개월만에 모자가 이별하는 아픔을 가졌고 이를 잘 아는 조충은 조부모와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했던 것이리라.



석굴에서 내려다 본 불영사 가을 풍광과 불영사 앞 마당에서 오늘 답사를 정리하는 원장님과 일행

이 효성은 국가를 위한 충성으로 이어져 「삼원수」가 존재하는 이유를 역사 속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답사를 끝내고 불영사 마당에 모였다. 모이기 전에 은행나무의 노란단풍을 모두들 한 참이나 쳐다보고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껏 만끽했다. 이곳 주지스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학교수이자 수필가로 활동하다 지난 2004년 회갑의 나이에 출가한 학송(鶴松·71·본명 권경술) 스님이다. 좋은 학벌과 직업을 팽개치고 자신의 꿈을 좇아 홀로 이곳에 왔다. 이후 스님은 경기 과주시 보광사에서 1년 여 동안 다른 스님들과 공동생활을 한 뒤 2005년 7월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부산에 있는 땅)을 팔아 현재의 절을 매입, 10년째 홀로 밥도 짓고 반찬을 만들며 빨래도 하는 등 '독살이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암에 걸려 지금은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모두들 씩씩해 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원장님의 수고와 감사에 대한 인사를 끝으로 이번 횡성인물유적에 대한 답사를 마쳤다.

# 횡성의 문인 삼교(雪橋) 안석경(安錫倣)

-제46회 한국한문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



이 성 형  
(한국한문고전학회 총무이사)

삼교(雪橋) 안석경(安錫倣, 1718~1774)은 조선 숙종 때의 문인으로 본관은 순흥(順興), 자(字)는 숙화(淑華)이다. 아버지 안중관(安重觀, 1638~1752)의 임지를 따라 흥천, 제천, 원주 등에서 청년기를 보냈으며, 부친의 사후 34세(1752)부터 강원도 횡성 둔내면 삼교에서 은거하며 『삼교만록(雪橋漫錄)』, 『삼교예학록(雪橋藝學錄)』, 『삼교지문(雪橋識聞)』 등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현재까지 삼교가 이룩해 놓은 업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다. 그러나 비평과 산문 방면에 집중되어 경학과 한시 분야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삼교가 오랫동안 경전과 시문 교육에 매진하고 관련 저술을 남겼음에도 한문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한문고전학회는 2015년 하계학술대회로 삼교가 이룩해 놓은 경학과 문학 그리고 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학술대회의 기획주제를 '삼교(雪橋)안석경(安錫倣)의 문학과 교육'으로 잡고,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삼교의 문학과 학문의 배태지인 횡성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행사는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와 횡성문화원이 주관하였으며, 2015년 7월 18일(토)~19일(일)에 걸쳐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일차 일정은 횡성군립도서관 제2강의실에서 학술대회로 진행이 되었고, 2일차 일정은 삼교의 우거(寓居)와 묘소에 대한 현장 답사로 진행되었다.



학술대회 기념 단체 사진



학술대회 참석자 정경

먼저 1일차 일정으로 오전에는 한문교육과 한문학에 관련된 5편의 자유주제 발표가 있었고, 오후에는 학회장인 공주대 이동재 선생님의 개회사와 황성문화원장인 박순업 원장님의 축사로 본격적인 기획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삼교의 문중 대표도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특히 기획주제는 삼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삼교의 문학과 경학, 교육에 관련된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회장 개회사



황성문화원장 축사



삼교 문중 대표 인사

첫 번째 기획주제는 단국대 양원석 선생이 '삼교 안석경의 시경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자는 『삼교지문』에서 보여준 삼교의 시경에 대한 문사적 접근 방법과 그 특징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유가 경전 저작에 대한 문사적 접근의 연원을 삼교에서 찾아야 하고, 『삼교지문』에 나타난 문사적 접근 방법과 그 내용은 우리나라 경학사의 한 축을 서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지훈 선생이 '안석경의 산문 비평과 산문 교

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자는『삽교예학록』소재 산문 비평에 주목하여 그 비평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현대의 한문 산문 교육 및 글 쓰기 교육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특히 문장의 편장 구성을 중시한 삽교의 비평 관점을 전면에 내세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식과 학습 예문을 제시한 점이 주목되었다.

세 번째는 고려대 백진우 선생이 '안석경의 역사논평 양상과 의미에 대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자는 평소 조선후기 문인들의 역사인식이나 사론(史論) 산문의 문체적 특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 발표는 그 연장선상에서『삽교만록』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논평의 분석과 의의를 세밀하게 고찰해서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네 번째는 서울대 강혜규 선생이 '삽교 안석경의 산수유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자는 삽교의 산수유기가 자신의 다른 장르 작품과 관계 맺고 있는 양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산수유기와 여타 장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삽교의 사상과 유기 형상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유기의 특징적인 '정보의 총체화'라는 점에서 삽교의 유기를 조명함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발표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획주제는 강원대 김근태 선생이 '삽교 안석경의 시에 대한 인식과 시세계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자는 현재까지의 삽교에 대한 연구가 산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측면에 주목하였다. 특히 조선후기 뛰어난 시재(詩才)로 8,500여수의 한시 초고를 남겼다고 알려진 사천(마지막 다섯 번째 기획주제는 강원대 김근태 선생이 '삽교 안석경의 시에 대한 인식과 시세계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자는 현재까지의 삽교에 대한 연구가 산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측면에 주목하였

다. 특히 조선후기 뛰어난 시재(詩才)로 8,500여 수의 한시 초고를 남겼다고 알려진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 1671~1751)과 시주(詩酒)를 즐기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점에서 삼교의 시재도 역시 비범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인으로서의 삼교의 위상을 조명함으로써 삼교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2일차에는 삼교 문중의 안내로 학회회원 39명과 황성문화원 관계자가 삼교의 우거와 묘소를 답사하여, 전날 학술대회의 성과를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삼교의 우거에서 마을 대표로부터 삼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에 대하여 안내 받았다. 삼교가 축지법으로 공주(公州)에 다녀왔다 쉬었다는 바위, 삼교의 도력(道力)으로 인근에 침이 자라지 못하게 된 이유, 변소에서 호랑이를 제압했던 삼교의 용력, 삼교 묘소의 풍수지리에 얽힌 이야기 등 다채로운 전설은 그 자체로 훌륭한 구전 문학 자료였다. 또한 일행은 삼교의 묘소에 제수를 올리고, 예를 포함으로써 삼교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 더욱 내면화 할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삼교의 학문과 문학을 새롭게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삼교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황성문화원과 삼교의 문중 대표가 동참하여 황성의 인물을 조명하



양원석 선생님



윤지훈 선생님



백진우 선생님



강혜규 선생님



김래재 선생님



삼교의 우거



삼교 묘소 참배

여, 지역의 문화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한문학의 위상이 날로 위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이번 한국한문고전학회의 하계학술대회 처럼 지역사회의 주요 인물들을 지역 문화단체와 연계하여 조명하고,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도록 스토리텔링이나 다양한 문학 콘텐츠의 개발에 학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데, 강원도 횡성에 은거하며 저술과 교육에 매진한 삼교의 재조명은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맛있는 휴식 안흥전빵 축제



박 현 속

들관은 온통 황금 빛. 산들도 고운 색깔로 옷 입기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저녁노을 을 타고 몸을 움츠러들게 한다. 그러나 모락모락 피어나  
 는 따뜻한 전빵의 맛있는 휴식을 향하여 기대를 멈추지 않았다.  
 4년 만에 기다렸던 축제인지라 마음까지 설레 인다.  
 전빵마을 광장으로 들어섰다.  
 축제장의 전야제 분위기가 고조되어 삼삼오오 짝을 이루고 발걸음들이 분주  
 하다  
 입구에는 농산물 판매부스들이 들어 차있고 지역 주민들이 피땀 흘린 결과물  
 들이 주렁주렁 풍요롭다.  
 제9회 안흥전빵 축제는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땐 맛있는 휴식, 안흥전빵 축제’  
 라는 슬로건으로 안흥전빵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어, 특설무대에선 이벤트 공연의 순서들이 흥겹다.

준비되어있는 부스들을 한바퀴 돌았다. 특설무대 앞에는 안홍전빵의 시식코너들이 넓게 자리 잡고 있었고 시식하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따뜻한 전빵의 맛을 느끼는 모습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다.

체험부스에서는 제조과정에 대한 체험과 밀가루 및 팔을 이용한 그림그리기 체험들, 밀가루 반죽놀이 체험과 팔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 봉사하는 손길들이 추위를 가시게 한다.

문득, 그 옛날 큰 가마솥에 전빵을 찌 주신 할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밀가루 반죽에 막걸리를 넣고 따뜻한 아랫목에 보자기를 덮어 숙성시키고 달고 맛있는 통팔을 넣어 큼지막하게 만들면 어린 눈엔 그 전빵이 보름달만큼이나 커 보였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맛난 간식이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젖어 있는 동안 주제관 앞에 멈추었다.

안홍의 역사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1960년대 초, 안흥은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인파로 북적이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한다. 영동과 영서를 오가는 길목이었고 장도 제법 커서 인근에서 장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당시 안흥에 있었던 한 식당은 하루에 쌀 두가마의 밥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알만하다. 그 당시 한국 전쟁의 참상이 채 가시지 않아 옥수수밥도 실컷 못먹었던 배고픈 시절이라 안흥에 15개 넘었던 막걸리를 팔았던 판잣집들은 다 찰빵을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안흥 찰빵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것은 1990년대 중반 이라고 한다.

면사무소 앞에서 파는 찰빵을 맛보던 한 기자의 언론기사를 시작으로 방송출연과 인터뷰가 쇄도하면서 안흥찰빵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IMF의 큰 타격을 입은 1997년 이후에도 안흥찰빵의 인기는 더욱 치솟아 20여개의 업소가 생겨나 오늘날의 안흥 찰빵 마을이 탄생하게 되었다.

안홍전빵은 현대인에게 옛날 그 시절 향수를 가져다 주는 먹거리로 또 웰빙먹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안홍은 면적의 72%가 밭농사 지역이고 많은 쌀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안홍은 맛있는 전빵을 생산사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인홍면을 가로 질러 흐르는 주천강은 술샘이라는 의미로 옛날부터 맛있는 술을 빚기좋은 적당한 습기를 제공하여 왔으며 각종 발효 음식 및 맛있는 안홍전빵을 발효시킨다고 한다.

이런 스토리리와 테마가 있는 안홍전빵 축제의 차별화로 인하여 수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것 같다. 도깨비 도로등 이색 추억 만들기 여행으로 도깨비도로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

본래 안홍의 이름은 실미(實美)라 불렀다. 실미에서 강림을 넘어가는 길목에는 장난꾸러기 도깨비 3형제가 살았는데, 지나가는 길손들을 상대로 먹을 것을 빼앗아 먹는가 하면 밤에는 도깨비 불로 정신없게 하여, 길을 헤메게하기 일쑤였다.

하루는 이 고을을 다스리던 현감의 아들이 아파서 치악산에 기거하는 명의(운곡선생)로부터 아들의 병을 고칠 약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다.

현감은 이 장난꾸러기 도깨비를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 결심하고 신선이 산다고하는 매화산 신선봉을 찾아가 신선에게 도깨비를 혼낼 방법을 물었다.

신선은, '본래 붉은 쌀은 사람의 몸에는 이롭고, 귀신에게는 해로운 것이니, 도깨비에게 쌀을 먹이면 다시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네' 라고 하였다.

현감은 도깨비에게 어찌하면 쌀을 먹일까 궁리하다가 도깨비가 좋아하는 술떡을 만드는 노파에게 술떡 안에 쌀을 넣어 빵을 만들것을 시켰고, 모든 길손들이 이 빵을 지니고 다니게 하였다. 평소처럼 길손들의 먹을것을 빼앗아 먹던 도깨비는 쌀이 든 빵을 먹자 바위로 변하고 말았다.

장난꾸러기 도깨비가 없어진 후, 이 고장의 이름은 「편안함이 절로 인다」라는 뜻의「안홍」이라 불리게 되었고, 도깨비가 변한 세 개의 바위는 삼형제 바위라



불리게 되었다. 후대 사람들은 도깨비를 물리친 현감의 덕과 애민 선정을 기리기 위해 소사비를 세웠다고 한다.

이렇게하여 안흥찐빵은 모든 길손들이 간식거리로 지니고 다니는 필수품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도깨비들이 장난치던 그곳에는 도깨비도로가 있어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테마가 있는 이벤트 중, 옛날 교실 포토존이 있었다. 교복을 입고 추억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그때 그시절 문구류와 상회간판은 옛날 유년의 그리움들을 꺼내기에 충분했다.

다양한 테마를 즐기기 위해 찾은 방문객은 사흘간 무려 1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2011년 내부 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겪자 4년만에 부활한 안흥찐빵축제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왔고 그리웠던 우리의 소중한 보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72억에 가깝다는 평가로 큰 경제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또 한가지 빼 놓을 수 없는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다.

빵모자를 쓰고 오는 방문객에게 빵 1박스당 2,000원을 할인해준다.

경진대회 출품작 부스도 눈에 띈다. 김상돈 교수와 함께하는 캘리그래피 체험 부스에서 이름으로 쓰는 작품과 좋은 글도 얻어왔다.

추억의 안홍전빵의 묘미에서 다양하고 이벤트가 있는 축제를 만나게 됨에 새로운 행복을 느끼는 가을이었다.

그밖에 체험하고 느낀 이벤트에 일일이 옮길 수 없는 순서들이 많다 농촌체험도, 하천변에 도리깨질이나 떡메치기, 카트타기, 송어잡기, 국궁 체험 등등.

안홍은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서울~강릉을 오가는 나그네들이 반드시 거쳐야했던 중간 지점으로서 마땅히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 점심을 먹고 또 다시 먼길을 걸어야 하는 나그네들이 찌빵을 허리춤에 끼고 장도에 오르던 소중한 식품이었던 그때와, 근세에 와서는 농촌지역 농민들의 새참거리로 허기진 배고픔의 든든한 먹거리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최근까지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며 그 명맥을 유지해옴에 따라 경제적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삶의 여유를 갖기 시작한 현대인들에게 까지 옛 고향의 정취와 향수를 자극하게 되면서 전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까지하는 우리고장의 전통식품으로 자리잡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연일 연야 수많은 방문객들의 표정과 발걸음을 보면서 행복한 시대를 만나 누리며 아름다운 고장에서 스치는 인연들에 대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 가을은 이토록 또 한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픈이도 있고 쓸쓸한 이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찾을 수 있고 웃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것이다.

모두에게 희망의 박수를 보낸다.

어두움에 엔진 소리가 크다.

따뜻하고 맛있는 찌빵이 내 옆에 있다.





### III.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 황성에서 보이는 딱정벌레 무리 | 한상균

\* Photo Essay 외로우니까 허수아비다. / 고네이베루 섣다리를 건너다. | 정재영





# 황성에서 보이든 따정벌레 우리 102



한 상 균  
(전 초등학교 교장  
백합영상회회장)

## I. 들어가는 말

2007년 8월 25일 오후 4시쯤 섬강변 산책길에서 이상한 벌레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촬영하는데 갑자기 ‘뽕’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강냉이를 튀길 때처럼 하얀 연기가 나왔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나와 집사람은 얼마나 놀랐던지. 저렇게 조그만 벌레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가 났던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도감을 찾아보니 ‘폭탄먼지벌레’ 라는 딱정벌레과의 곤충인데 위험을 감지하면 몸속에 저장했던 가스와 강한 산성의 액체를 향문으로 폭발시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액체가 피부에 묻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한다. 아마도 셔터소리에 위험을 느꼈던 모양이어서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딱정벌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딱정벌레목(Coleoptera)은 곤충의 종 가운데 40%인 35만 여종을 차지하는 데 우리나라에는 101과 3,654종이 알려져 있다. 몸의 크기와 형태도 차이가 심하여 0.25mm의 작은 종에서 150mm에 달하는 큰 종까지 있다. 몸의 형태는 구형, 난원형, 원통형, 편편형 등 여러 가지이다. 딱정벌레목에 속한 무리들은 견고하고 두꺼운 '키타질'로 된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서 갑충(甲蟲)으로도 불린다. 막질로 된 뒷날개는 딱딱한 앞날개 안쪽에 접혀 있으며, 대부분 앞날개를 곧추 세운 뒤 뒷날개를 내밀어 비행한다.

등불에 다양한 무리가 찾아오며, 대부분 이른 밤부터 모여든다. 먹는 먹이도 다양해서 식물의 잎, 작은 물고기, 나무의 즙, 작은 동물, 동물의 시체 등 매우 다양하다. 유충은 세 쌍의 가슴다리와 한 쌍의 다리가 있으며 큰 턱이 잘 발달돼 있다. 번데기는 나용이며 대부분 땅 속에서 번데기가 되지만 상당수의 종이 식물체 내, 유충의 껍질 속, 또는 고치 속에서 번데기가 되기도 한다. 알▷애벌레▷번데기▷어른벌레를 거치는 완전변태를 하며 1년에 1~4세대를 나는 종으로부터 수년에 1세대를 경과하는 등 다양하나 보통은 1년에 1세대를 난다. 분포의 범위도 다양하여 세계 각지의 고산, 평야, 하천, 늪, 지상이나 동굴, 식물체의 외부와 내부, 흙 속 등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그 이유로는 견고한 앞날개와 날 수 있는 뒷날개가 있는 점, 유충기에 땅 속과 식물체의 외부 내부 등 천적의 눈으로부터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지내는 점, 각종 동식물 등 유기물질을 식이(食餌)하는 식이의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

## II. 황성에서 촬영한 딱정벌레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황성에서 촬영한 딱정벌레는 모두 22과 75종으로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과 명	종 명	종수	비 고	
A. 육식아목	1.길앞잡이	1)산길앞잡이	1		
	2.딱정벌레	2)명주딱정벌레 3)풀색먼지벌레 5)큰먼지벌레 6)폭탄먼지벌레	4)멧쟁이딱정벌레 5		
B. 다식아목	3.가뢰	7)먹가뢰	1		
	4.불개미붙이	8)불개미붙이	1		
	5.거위벌레	9)사과거위벌레 10)등빨간거위벌레	2		
	6.꽃무지과	11)홀쭉꽃무지 12)풀색꽃무지	2		
	7.목대장	13)목대장	1		
	8.무당벌레	14)남생이무당벌레 15)달무리무당벌레 16)칠성무당벌레 17)무당벌레 18)까마남생이무당벌레 19)큰아십찰점무당벌레	6		
	9.무당벌레붙이	20)무당벌레붙이	1		
	10.바구미	21)흰점박이바구미 22)황초록바구미 23.흑바구미 24)길쭉바구미 25)배자바구미	5		
	11.방아벌레	26)대유동방아벌레 27)재털빛살방아벌레 28)맵시방아벌레	3		
	12.버섯벌레	29)고오람왕버섯벌레	1		
	13.병대벌레	30)회황색병대벌레 31)서울병대벌레	2		
	14.시슴벌레	32)시슴벌레	1		
	15.의병벌레	33)띠붉은뿔의병벌레 34)노랑무늬의병벌레	2		
	16.앞벌레붙이	35)큰남색앞벌레붙이	1		
	17.앞벌레	36)발리앞벌레 37)애들굴앞벌레 38)중국청남색앞벌레 39)사시나무앞벌레 40)버들앞벌레 41)시간노랑테가시앞벌레 42)상아앞벌레 43)배노랑긴가슴앞벌레 44)고려긴가슴앞벌레 45)크로버앞벌레 46)어리밭톨말앞벌레 47)왕버룩앞벌레 48)발나무앞벌레	13		
	18.풍뎅이	49)주둥무늬치색풍뎅이 50)장수풍뎅이 51)등알록풍뎅이 52)연노랑풍뎅이 53)시슴풍뎅이 54)녹색공풍뎅이 55)큰검정풍뎅이 56)잡박이긴다리풍뎅이 57)왕풍뎅이 58)풍뎅이 59)참공풍뎅이 60)왜공풍뎅이	12		
	19.하늘소붙이	61)노랑하늘소붙이 62)녹색하늘소붙이	2		
	20.하늘소	63)남색초원하늘소 64)일락하늘소 65)붉은산꽃하늘소 66)유리목하늘소 67)꽃하늘소 68)긴일락꽃하늘소 69)열두점박이꽃하늘소 70)하늘소 71)털두개비하늘소 72)국화하늘소 73)삼하늘소	11		
	21.홍날개	74)애홍날개	1		
	22.홍반디	75)주홍홍반디	1		
	계	22과		75종	

## A . 육식아목

### 1. 길앞잡이과

몸길이 8~20mm정도이며, 아름다운 금속광택의 무늬가 있다. 큰 턱이 매우 크고 날카로워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데 알맞다. 건조하고 넓은 곳에 서식한다. 동작은 매우 민첩하며 길에서 만나면 앞으로 수미터 날아가서 이쪽을 보고 앉았다가 이쪽에서 계속 접근하면 다시 날아 같은 동작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유충은 단단한 평지에 수직의 갱도를 파서 그 입구에 머리를 뚜껑으로 삼고, 지나가는 곤충을 기다렸다가 옆을 지나가는 곤충을 물어 갱도 안으로 끌어들이며 먹는다. 사람이 갱도에 접근하면 속으로 숨어 버리는데 풀 줄기로 낚아서 유충을 잡을 수 있다. 한국에는 길앞잡이속(屬) 1속에 16종(種)이 기록되었다.

#### 1) *Cicindela sachalinensis* - 산길앞잡이

##### 산길앞잡이



2008. 4.19 공근 상군리

상군리 산길에서 뜻밖에 만났다. 앉았다 날아갔다가를 반복하는 놈을 쫓아가 진땀을 쏟은 덕분에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어 기뻐다. 몸길이 15~17mm이며 몸빛깔은 녹색색이고 변화가 많다. 산의 흙모래가 깔려 있는 사면이나 도로에서 볼 수 있다. 성충은 5월에서 9월에 나타난다. 유충이나 성충으로 겨울을 나며 한국, 중국, 헤이룽강, 일본, 쿠릴 열도 등지에 분포한다.

### 2. 딱정벌레과

우리나라에는 485종이 알려졌다. 대부분 큰 턱이 발달한 포식성으로 모양과 색은 다양하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 2) *Campalita chinense* - 큰명주딱정벌레

### 큰명주딱정벌레



2007.8.25 횡성대동아파트

대동아파트 후면의 목련나무에서 발견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아니면 여기도 살아갈 환경이 조성되었나? 손으로 집어보니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 놓고 사진은 찍을 수 있어 좋았지만 불쌍한 생각도 들었다. 몸길이 25~40mm로 대형 딱정벌레이다. 몸의 색깔은 검은색, 흑적색이며 몸의 형태는 대체로 길고 납작하다. 성충은 5~8월에 낮은 산이나 평지에서 보이는데 주로 밤에 활동한다.

한국에서 흔하게 출현하는 종은 아니다. 어른벌레는 나방이나 나비의 애벌레를 잡아먹고 애벌레는 지표 속의 다른 절지동물을 잡아먹는 곤충이다. 어른벌레와 애벌레 상태로 겨울나기를 한다. 성충은 집단적으로 소란스럽게 운다고 한다.

## 3) *Chlaenius pallipes* - 풀색먼지벌레

### 풀색먼지벌레



2008.8.9 횡성 읍하 서강변

먼지벌레 종류는 위험을 느끼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를 뿜는다고 한다.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인상적인 벌레다. 몸길이 14mm 정도인데 아래쪽은 검은색으로 온몸에 금빛의 짧은 털이 촘촘히 나 있다. 몸 머리· 앞가슴등판· 딱지날개는 초록색으로 금빛 광택이 난다. 그러나 사는 곳이나 개체에 따라 몸 빛깔의 변이가 심하다. 습지의 돌 밑에서 주로 살며 성충은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다. 성충으로 땅 속에서

월동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지낸다. 야행성으로 작은 벌레나 지렁이 등 각종 해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곤충이다.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 4) *Coptolabrus jangkowskii* - 멧쟁이딱정벌레

##### 멧쟁이딱정벌레



2014.5.29 갑천횡성댐

아침 일찍 횡성댐에서 만났다.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진땀을 흘리며 뛰어다녔던 기억이 새롭다. 그래도 이놈을 만나서 얼마나 기뻐던지. 몸길이 28~40mm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딱정벌레의 하나이다. 이 종은 몸이 납작한 편이며, 머리와 앞가슴등판 및 딱지날개의 가장 자리는 적동색이고, 딱지날개는 녹색이 감도는 검은색이다. 성충은 산 속 경사진 면의 돌 밑이나 썩은 나무에서 겨울을 나며 유충인 경우는 종령 유충으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번데기로 변해 5월 중순에는 성충이 된다. 성충은 산지의 지표면에서 4~11월에 보인다. 죽은 곤충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밑동에서 흘러 나오는 수액에도 모여든다. 한국, 중국, 러시아에 분포한다.

#### 5) *Lesticus magnus* - 큰먼지벌레

##### 큰먼지벌레



2010. 4.19 횡성 읍하 석강변

몸길이 24mm로 광택 나는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점무늬가 적고 양쪽에 세로 홈이 1개 있으며 겹눈과의 사이에 세로주름이 있다. 머리 꼭대기 양쪽의 더듬이는 검은빛을 띤 갈색이고, 끝으로 갈수록 점차 붉은빛을 띤 갈색으로 변한다. 성충으로 월동하며 6월부터 7월까지 개체수가 가장 많고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에 분포한다.

#### 6) *Pheropsophus jessoensis* - 폭탄먼지벌레

벌레사진을 촬영하다가 가장 크게 놀란 벌레다. 몸길이 11~18mm로 대체로 검은색을 띄며 호수나 개천과 같은 습기가 많은 땅에서 산다. 성충은 5~9월에 보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 폭탄먼지벌레



2008.6.5 황성 읍하 섬강변

이는데 야행성으로 낮에는 돌이나 낙엽 밑, 또는 흙 속에 숨었다가 밤에 나와서 각종 해충을 잡아먹어 유익하다. 위험을 느끼면 향문 주위의 분비샘에서 독한 물질을 내뿜어 독가스를 만들면서 도망가기 때문에 ‘방귀벌레’라 불리기도 한다. 이 독가스가 사람 피부에 닿으면 살이 부어오르고 몹시 아프다. 먼지벌레 중 가장 폭발력이 큰 벌레다. 유충은 땅 속에서 산다. 성충으로 겨울을 나며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 B. 다식아목

### 3. 가뢰과

몸길이는 대부분 10~20mm이나, 25~30mm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몸은 가늘고 길며 연약한 편이나 약간 가죽질이다. 몸 빛깔은 대부분 어두운 검은색, 회색, 갈색, 황갈색 또는 선명한 금속성 홍채가 있다. 대부분의 성충은 지표면이나 나무의 잎, 꽃에서 볼 수 있으며 꽃이나 나뭇잎을 먹지만 심각한 해충에 속하는 몇몇 종도 있다. 유충의 경우 몇몇 종이 메뚜기의 알을 먹기도 하지만 다른 종들은 벌의 보금자리에 살면서 그 알이나 유충, 저장한 먹이 등을 먹는다. 유충은 ‘과변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다리의 관절이나 몸의 다른 부분에서 부식성 액체인 ‘칸다리딘(cantharidin)’을 내뿜는다. 이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생기게 된다. 동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곤충으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신장병 치료약이나 자살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칸다리딘’의 성분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병 치료제나 수포성 피부염 치료제, 이노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한국에는 20종이 분포한다.

## 7) *Epicauta chinensis* - 먹가뢰

먹가뢰



2007.7.3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17~19mm 정도로 몸전체가 검은색이나 머리 부분은 약간 붉은색을 띤다. 성충은 낮에 활동하는데 활엽성 풀, 특히 싸리나무에서 볼 수 있으며, 봄부터 가을에 걸쳐 나타나 잡초, 특히 콩과식물을 먹는다. 암컷은 흙 속에 1,000개가 넘는 알을 낳는다. 유충으로서 월동하고 메뚜기의 알덩어리를 먹고 자란다.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 4. 개미붙이과

머리는 튀어나오고, 촉각은 실 모양, 톱니 모양, 빗살 모양, 곤봉 모양이다. 아랫입술수염은 도끼 모양이고, 앞가슴판은 짧다. 나무좀의 대표적인 천적이며 유충은 벌집이나 메뚜기의 알집, 나무좀 등을 먹는다. 한국에는 개미붙이속과 흰띠개미붙이속의 2속 2종이 있다. 외형이 비교적 화려한 편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꽃에서 화분과 화밀을 먹고살며 이들의 생태습성에 대해서는 관찰이 좀 더 필요한 종이다.

## 8) *Trichodes sinae* - 불개미붙이

불개미붙이



2009.7.3 공근 상군

상군리에 막국수 먹으러 갔다가 흙집 벽에서 발견한 벌레다. 몸길이 12~16mm 정도로 몸은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다. 머리와 가슴은 청남색이며 날개딱지에 3개의 붉은 가로줄이 선명하다. 성충은 5~8월에 주로 보인다. 한국에 서식하는 개미붙이류 중에서 가장 대형이다. 상당히 높은 비행능력을 가지고 한낮에 비행하며 꽃을 찾

아다닌다. 주로 흰색 꽃에 많이 모여서 애벌레와 어른벌레 모두 꽃가루만을 먹고 사는 특이한 식성을 가지고 있다. 나뭇잎 등에 앉아서 휴식할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있어 등 쪽만 보인다. 주위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곤충이나 생태적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한국, 중국, 몽골, 시베리아에 분포한다.

## 5. 거위벌레과

우리나라에는 33종이 알려졌다. 대부분 머리는 폭보다 길고, 둥그렇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주로 나무의 열매나 줄기를 먹으며 자라는 해충이다. 긴 주둥이로 과일과 나무에 꿀을 파고 그 안에 알을 낳는데 애벌레가 먹을 나뭇잎을 말아서 요람을 만들어서 생활한다.

### 9) *Paracentrocorynus nigricollis* - 사과거위벌레

사과거위벌레



2005.7.4 황성 음하 섬강변

몸길이 6~8mm 정도로 성충은 5~9월에 주로 활동한다. 딱지날개와 앞가슴등판은 검붉은 색이며 광택이 강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변이가 심한데 대체로 머리와 앞가슴등판의 가운데 줄무늬는 흑색이고, 다리의 종아리마디 아래쪽은 붉은색이다. 몸의 뒤쪽이 넓고 두꺼운 종류로서 우리나라의 거위벌레 중 가장 흔하다. 딱지날개와 앞가슴등판은 적갈색인데, 수컷의 머리는 길고 암컷의 머리는 타원 모양이다. 성충 암컷은 5~7월까지 갈참나무, 떡갈나무 잎을 감는데 주맥을 연속적으로 깨물어 흠집을 내어 감는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분포한다.

## 10) *Tomapoderus ruficollis* - 등빨간거위벌레

### 등빨간거위벌레



2008.8.9 횡성읍하 섬강변

몸길이 6mm 이다. 배의 등쪽 날개막지는 진한 보라색이며 금속성 광택이 있다. 성충은 5~10월에 나타나 주로 느티나무 종류의 잎을 가해하며 여기에 알을 낳는다. 주로 어두운 잎의 뒷면에 구멍을 내면서 잎을 먹는다. 이들의 구체적인 생태적 특성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느티나무의 잎에 피해를 입히는 산림해충이나 심각할 정도의 피해를 주지는 않으며 한여름 대발생하였다가 자취를 감춘다. 성충으로 겨울을 나며 한국, 중국, 러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 6. 꽃무지과

아름답게 활짝 핀 꽃에 가까이 가면 어김없이 꽃을 파먹고 있는 꽃무지무리가 보인다. 꽃무지과는 풍뎅이과에 속하는 곤충의 한 분류이다. 날 때에는 풍뎅이들과 달리 앞날개를 살짝 들어올린 뒤 뒷날개만 완전히 펴서 난다. 애벌레는 토양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특이하게도 누워서 기어다니는 습성이 있다. 어른벌레는 봄에 꽃이나 과의 즙, 수액을 먹는다. 곤충학자 중에는 꽃무지라는 이름의 유래를 꽃에 모이는 풍뎅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 11) *Callynomes obsoleta* - 흘쪽꽃무지

### 흘쪽꽃무지



2008.5.19 횡성읍하 섬강변

몸길이 15~17mm로 몸 전체가 흑색을 띠고 있다. 성충은 봄에서 가을까지 발견할 수 있으나 주로 5-6월에 출현하며 낮에 활동한다. 과일즙이나 수액을 주로 먹는다. 꽃무지라는 이름은 꽃에 모여드는 풍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나 다른 꽃무지류에 비하여 초본식물의 잎이나 돌 밑에서 자주 발견된다. 행동이 둔한 편이며 날 때

에는 앞날개를 약간 들어 올리고 뒷날개를 완전히 펴서 비행한다. 애벌레로 겨울을 난다. 한국, 중국에 분포한다.

## 12) *Gametis jucunda* - 풀색꽃무지

### 풀색꽃무지



2005.8.3 황성음하 섬강변

몸길이 15mm 정도로 어른벌레는 봄, 가을에 걸쳐 1년에 2회 출현하며 애벌레로 겨울나기를 한다. 개체변이가 있어서 대부분 몸빛깔이 풀색을 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갈색 또는 검은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어른벌레는 주로 흰색, 붉은색 꽃에 무리를 지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충은 평균 2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가을철에 산란한 알은 부화한 후 땅속의 부식질을 먹으며 3번의 허

물을 벗은 후 3령 애벌레 상태로 겨울나기를 한 후 이듬해 봄에 번데기가 된다.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극동러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 7. 목대장과

몸은 가늘고 길며 더듬이는 11마디이다. 목덜미와 네발이 가늘고 길며 발톱은 빗살 모양이다.

## 13) *Cephaloon pallens* - 목대장

### 목대장



2008.5.19 황성음하 섬강변

몸길이 13mm로 갈색을 띤다. 산길 주변의 초원과 관목림에서 서식한다. 성충은 5월부터 6월까지 나타난다. 낮에는 꽃에 모이거나 풀줄기에 앉아 쉰다. 밤에는 불빛에도 날아온다. 한국(북부, 중부), 일본, 사할린에 분포한다.

## 8. 무당벌레과

우리나라에는 90여종의 무당벌레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당벌레는 일생동안 3만여 마리의 진딧물을 잡아먹는 천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농약으로 불린다. 무당벌레는 번데기 과정이 있는 완전변태 곤충으로 눈에 띄는 경계색을 띄고 있다. 이는 무당벌레의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서 화려한 색은 나를 잡아먹으면 위험에 빠진다는 일종에 경고다. 무당벌레는 위험을 감지하면 다리 마디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노란색 액체의 독을 내보내 천적을 물리친다.

### 14) *Aiolocaria hexaspilota* - 남생이무당벌레

#### 남생이무당벌레



2004.10.21 강림 태종대

남생이처럼 생겨서 이름이 붙여진 남생이무당벌레는 10 mm 정도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무당벌레 중에 가장 큰 종이다. 나무껍질 틈새나 나무구멍 속에서 무리를 지어 성충으로 겨울을 나고 4~5월에 번식을 한다. 암컷은 버드나무나 사시나무의 죽은 가지에 20 여개의 주홍색 알 덩어리를 낳는다. 한국, 일본,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 한다.

### 15) *Anatis halonis* - 달무리무당벌레

#### 달무리무당벌레



2008.5.26 횡성 읍하섬강변

몸길이 7~9mm로 대형 무당벌레류에 속한다. 유충과 성충은 주로 소나무류에 있는 왕진딧물을 잡아먹고 생활한다. 성충은 4~6월에 1년에 1회 발생하며, 4월 초순부터 번식한다. 암컷은 소나무의 껍질 속에 2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성충으로 월동하며 한국, 일본, 쿠릴연도, 극동 러시아에 분포 한다.

## 16) *Coccinella septempunctata* - 칠성무당벌레

칠성무당벌레



2005.6.5 황성 읍하섬강변

몸길이 5~8.5mm로 몸은 짧은 달걀 모양이고 몸 전체가 뒷박을 옆에 놓은 것 같다. 머리는 검은색이지만, 이마 양쪽에 비스듬한 노란빛을 띤 흰색의 무늬가 있다. 딱지날개의 점이 일곱 개가 있어 칠성무당벌레라고 불린다. 3~11월 까지 들과 야산의 잡초 지역이나 진딧물이 있는 곳에 서식하는데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2~3주 밖에 걸리지 않는다. 성충으로 겨울을 나며, 유라시아에서 아프리카 북부 지방 까지 분포한다.

## 17) *Harmonia axyridis* - 무당벌레

무당벌레



2005~2007 황성읍하 섬강변

무당벌레는 변이가 심해 분류에 애를 먹었다. 딱지날개에 9쌍의 작은 점무늬가 있는 것이 정상이나 무늬가 전혀 없는 개체, 검은색 날개에 1쌍·2쌍·6쌍의 커다란 주황색 점무늬만 있는 개체, 노란색인 것, 황갈색 바탕에 2~19개의 검은색 무늬가 있는 것 등 다양하다. 몸길이 5~8mm로 몸은 반구형이다. 암컷은 알을 무더기로 낳는다. 유충은 약 12일이 걸리면 번데기로 변하며 지내는 기간은 4일이다. 한국에서는 칠성무당벌레 다음으로 매우 흔한 종이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연중 성충을 볼 수 있으며 가을이 되면 성충들이 크게 무리를 이루어 풀과 낙엽 밑, 건물의 특정한 장소로 이동해 겨울을 지내는 습성이 있다. 손으로 잡았더니 매우 나쁜 냄새를 내는 노란색 액체를 내뿜었다. 한국, 일본, 사할린섬, 타이완, 중국에 분포하다.

## 18) *Propiylea japonica* - 꼬마납생이무당벌레

꼬마납생이무당벌레



2007.8.6 횡성읍하 섬강변

몸길이 3~4.5mm로 무당벌레류 중 가장 작은 종이다. 머리는 작고 검정색의 눈을 가지고 있다. 성충의 등에는 주황색의 십자가 모양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검정색이다. 들과 야산의 잡초 지역에서 살며, 봄에서 가을까지 활동한다. 유충이나 성충 모두 진딧물을 잡아먹는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러시아(연해주, 시베리아 동부), 인도 북부 등지에서 널리 서식한다.

## 19)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큰이십팔점무당벌레



2006. 6.22 횡성 읍하 섬강변

무당벌레중 유일한 해충이다. 어릴 때 앙상한 감자 잎에 새빨강게 붙어있던 이 벌레를 식구들이 잡던 기억이 새롭다. 몸길이 6.5~8mm로 검정 점무늬 28개가 특징이다. 연 3회 발생하는데, 각각 6~7월, 7월 하순~8월 상순, 9월에 나타난다. 성충으로서 월동한 성충은 이른 봄부터 활동하는데 5월에 밭으로 이동한다. 성충은 포탄 모양의 알을 잎 뒷면에 세워서 십여 개씩 덩어리 모양으로 붙인다. 유충은 몸길이 약 9mm의 방추형이고 연한 노란색이며 14~21일 뒤에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는 7일이 지나면 우화하여 성충이 된다. 가지, 감자, 토마토 등 가짓과 식물을 재배하는 밭에서 많이 발견되며 이러한 식물에 피해를 준다. 성충과 유충이 잎을 갉아먹어 그물 모양의 규칙적인 흔적이 남는다. 잎의 표피만 남아 흰색으로 보이며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구멍이 생긴다. 피해가 심하면 잎맥만 남는다. 드물게 가지 등 열매 표면을 갉아먹기도 한다.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동북부), 시베리아 등에 분포한다. 역시 해충이라 방제를 위해 연구가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 9. 무당벌레붙이과

우리나라에는 4종이 알려졌다. 무당벌레무리와 비슷하나 더듬이가 길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 20) *Ancylopus pictus asiaticus*. - 무당벌레붙이

무당벌레붙이



2007.8.10 황성 읍하 섬강변

무당벌레처럼 보이지만 무당벌레가 아니란다. 몸길이 4~5mm로 몸체가 납작하여 나무 틈이나 돌 틈 사이에서 지내기가 유리하다. 날개딱지에는 일반적으로 4개의 둥근 검은색 점이 있으나 변이가 심하여 개체에 따라 일부 변형된 형태도 발견된다. 성충이나 유충 모두 버섯 종류와 곰팡이 종류를 먹으면서 서식한다. 평상시에는 죽은 나무 틈 사이, 나무껍질, 돌 틈 사이 등의 습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서 지낸다. 어른벌레로 한곳에 모여 겨울나기를 하는 습성이 있다. 아시아권에 널리 분포한다.

## 10. 바구미과

몸길이는 6~80mm로 종에 따라 차이가 크다. 머리가 코끼리의 코처럼 앞쪽으로 쭉 뻗어 주둥이를 이루기 때문에 영어로 'snout beetles'로 불리며 북한에서는 '코끼리벌레'라고 한다. 다른 적을 만났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죽은 체하는 의사행동(擬死行動)을 하는 종류가 많다. 한국에는 약 65종이 있다.

### 21) *Anthinobaris dispilota* - 흰점박이꽃바구미

몸길이 4~5mm이다. 몸빛깔은 검은색이다. 노란색의 비늘털이 몸의 아래쪽에

### 흰점박이꽃바구미



2007.7.8 황성 읍하 섬강변

많고 등 쪽에서는 무늬 모양을 이룬다. 성충은 각종 꽃에 모여들어 꽃가루(화분)을 먹는다. 성충은 3월부터 8월까지 활동한다. 유충은 대개 죽은 나뭇가지에서 살며 가끔 살아 있는 나무에도 기생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22) *Chlorophanus grandis* - 황초록바구미

### 황초록바구미



2007.7.8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12-14mm의 연두색 곤충으로 몸 전체가 만지면 쉽게 벗겨지는 금록색의 비늘조각으로 덮여 있다. 가슴부터 꼬리날개의 끝부분까지 길고 노란 줄이 있으며, 앞가슴등판은 네모꼴이다. 성충은 6~8월에 관찰되며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난다. 성충은 버드나무류나 참나무류의 잎을 먹는다. 한국, 일본 및 러시아의 사할린 지역에 걸쳐 분포한다.

## 23) *Episomus turritus* - 흑바구미

### 흑바구미



2008.6.9 황성 읍하 섬강변

뽕무늬가 마치 칼로 자른 듯 뚱뚱한 것이 인상적이다. 길이는 13~15mm로 주둥이는 짧고 넓으며, 몸의 뒤쪽은 매우 크고 울퉁불퉁하여 튼튼하게 보이는 종류이다. 성충은 5월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으나 6월에 가장 많다. 칩 등의 여러 콩과식물의 잎을 갉아먹으며, 땅에 떨어지면 죽은 척하는 습성이 있다. 유충은 땅 속에서 뿌리를 갉아먹고 자란다. 한국,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 24) *Lixus imperessiventris* - 길쭉바구미

### 길쭉바구미



2007.7.12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약 12mm이다. 몸은 긴 방추형이고 머리에 점들이 촘촘히 있다. 주둥이는 짧고 작은 편에 속하는데, 밑을 향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세로주름이 있다. 촉각은 어두운 붉은색이다. 앞가슴등판은 길고 표면은 거칠며 크고 작은 점들이 있다. 성충은 5~8월에 보이는데 낮에 풀잎에 잘 앉는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25) *Ornatacides trifidus*-배자바구미

### 배자바구미



2007.7.12 황성 읍하 섬강변

몸의 길이는 7~10mm이며, 검은색이다. 앞 등판, 딱지 날개 뒤쪽의 가운데가슴 옆, 뒷가슴에는 흰 비늘털이 많고 딱지날개의 어깨는 흑 모양이다. 성충은 대부분 4~9월경에 출현한다. 바구미의 특징인 긴 주둥이로 먹이식물의 줄기 속을 파먹는다. 먹이식물은 칩이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 11. 방아벌레과

몸길이는 10~30mm이나, 작은 것은 2mm정도인 반면 큰 것은 65mm 정도가 된다. 앞가슴과 가운데가슴의 근육을 당기면 이 돌기가 지렛대처럼 작용해 튀어오를 수 있게 해준다. 성충은 고목이나 잎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꽃에 모이는 종류도 있다. 이른 봄에는 과일나무나 키 작은 나무의 새싹을 갹아먹기도 한다. 유충은 가늘고 긴 원통 모양이며 몸은 비교적 튼튼하다. 유충은 썩은 나무속이나 흙 속에 사는 종류가 많으며 식물의 뿌리나 땅 표면의 풀, 씨앗 등을 먹는다. 한국에는 약 80종이 알려져 있다.

## 26) *Agrypnus argillaceus* - 대유동방아벌레

대유동방아벌레



2008.4.19 횡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12~18mm이다. 거대한 배부분을 이용해 딱딱거리며 튀어 오르는 습성이 있어 '방아벌레'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click beetle'이라 한다. 몸은 전체적으로 적색을 띠며 광택이 있다.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5~6월경 가장 많이 출현한다. 1년에 1회 발생하며, 성충은 초본류의 잎을 갹아먹는다. 유충으로 월동하며 한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극동 러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재털빛살방아벌레

## 27) *Melanotus annosus* - 재털빛살방아벌레

몸길이 12~15mm이다.

한국, 일본, 유럽 등에 분포한다.



2008.5.15 횡성 읍하 섬강변

## 28) *Paracalais berus* - 맵시방아벌레

맵시방아벌레



2008.6.5 횡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는 22~30mm로 우리나라 방아벌레 중 가장 큰 종이다. 성충은 5~8월에 발견되며, 암컷은 죽은 소나무에 알을 낳는데 유충은 소나무 속의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애벌레와 어른벌레가 함께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알에서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3년 이상이 걸린다. 손으로 잡으면 앞가슴 등판을 방아 쪼듯 움직이는데 이는 위험에 처할 때 튀어 올라 달아나는 수단이다.

## 12. 버섯벌레과

우리나라에는 25종이 알려졌다. 모양, 크기 및 색상이 다양하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III. 횡성 사람, 횡성 이야기

## 29) *Episcapha gorhami* - 고오람왕버섯벌레

고오람왕버섯벌레



2005.6.16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는 11~15mm 정도이며 몸은 검은색이나, 딱지날개의 기부(基部)와 중앙 아래쪽에는 복잡한 모양의 주황색 또는 주황색 무늬가 있다. 더듬이의 마지막 3마디는 매우 크고 넓적하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성충과 유충 모두 딱딱한 버섯을 먹는다.

## 13. 병대벌레과

성충의 몸길이는 10~15mm로 몸의 양 옆이 평행하다. 몸은 일반적으로 가늘고 길며 부드럽다. 암수의 형태적 차이는 없다. 꽃에서 발견되는 종은 대부분 갈색이나 노란색이다. 성충은 주간성이고 발광기관은 없으나 겹보기에 반디불이과와 비슷하게 생겼다. 성충의 주된 먹이는 즙액, 꽃가루, 다른 작은 곤충들로 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물의 꽃이나 잎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유충은 대부분 육식성이며 몇몇 종만이 식물을 먹는다.

## 30) *Athemus vitellinus* - 회황색병대벌레

회황색병대벌레



2008.5.20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는 9~11mm이며 온몸이 회황색이다. 암수 모두 앞다리와 가운데다리의 발톱에 흑 돌기가 있다. 한국, 일본에 분포하며 성충은 5~6월에 평지의 강변 초원지대에서 볼 수 있다. 종령 유충으로 겨울을 나고 4월에 번데기가 되었다가 5월 초순에 성충이 된다.

## 31) *Cantharis soeulensis* - 서울병대벌레

크기 10~13mm이다. 머리와 가슴은 주황색이다. 딱지날개는 일반적으로 검은색

## 서울병대벌레



2008.5.9 황성 읍하 섬강변

을 떠나, 개체마다 변이가 심한 편이다. 유충으로 겨울을 나며 평지, 풀밭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머리와 가슴은 주황색이다. 딱지날개는 일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나, 개체마다 변이가 심한 편이다. 낮에 잘 날아다니며, 진딧물 등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는다.

## 14. 사슴벌레과

우리나라에는 17종이 알려졌다. 크기가 크며, 수컷의 경우 큰턱이 매우 발달한다. 대부분 참나무 숲에서 생활하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대부분 환경에 따라 몸집이 큰 개체와 작은 개체가 있어 크기의 변이가 다양하다. 큰턱은 크고 튼튼하며, 사슴뿔처럼 생겼다. 특히 수컷의 것이 발달되었고 종류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다. 큰턱은 수컷의 경우 다른 수컷과의 싸움용으로 또는 과시용으로 발달하였다. 암컷은 몸과 큰턱의 크기가 동종 수컷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성충은 나무의 수액을 주로 먹는다. 유충은 썩은 나무나 부식토 등 습한 장소에서 살며 살고 있는 집을 먹으면서 자란다. 유충 기간은 보통 1~3년이다. 유충 기간의 영양상태가 성충의 크기와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32) *Lucanus maculifemoratus dybowskyi* - 사슴벌레

## 사슴벌레



2007.7.20 갑천병지방

몸길이가 수컷은 38mm, 암컷은 25~40mm이다. 수컷은 코끼리의 귀처럼 머리 부분이 넓게 늘어났는데 크기나 생김새가 다양하다. 성충은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볼 수 있다. 주로 참나무가 많은 곳에서 생활한다. 성충은 나무의 수액을 주로 먹는다. 유충은 썩은 나무나 부식토 등 습한 장소에서 살며 살고 있는 집을 먹으면서 자란다. 유충 기간은 보통 1~3년이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분포한다.

## 15. 의병벌레과

싸움을 잘해서 옛날 외적을 물리치던 의병을 생각해 붙인 이름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8종이 보고되었다.

### 33) *Laius niponicus* - 띠꺾은뿔의병벌레

띠꺾은뿔의 병벌레 몸길이 3.5mm로 전체 몸 색이 검정색이고 딱지날개 중간에 굵고 빨간 띠가 있다.



수컷의 더듬이는 2번째 마디가 크게 부풀어 있으며 암컷의 더듬이는 밧밧하다. 유충은 육식성이다.

2007.7.12 황성 읍하 섬강변

### 34) *Malachius prolongatus* - 노랑무늬의병벌레

몸길이 5.2~5.8mm로 성충은 잡식성으로 꽃가루나 과즙도 먹지만 절지동물도 포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유충은 균류나 작은 절지동물의 알이나 유충을 포식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한다.

노랑무늬의병벌레



2008.5.19 황성 읍하 섬강변

## 16. 잎벌레붙이과

우리나라에는 4종이 알려졌다. 모양과 색상이 다양하다. 산지 중심으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 35) *Cerogria janthinipennis* - 큰남색잎벌레붙이

몸길이 15mm이다. 잎벌레류에 비해서 몸이 긴 편이며 머리와 가슴의 구분이 뚜렷하다. 몸길이는 3~4mm 몸 색깔은 흑청색이다. 어른벌레는 5월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나타난다. 애벌레는 주로 밤나무의 잎을 먹는 것으로

큰남색잎벌레붙이



2007.7.8 황성 읍하 섬강변

알려져 있으며, 무리생활을 한다. 애벌레로 겨울나기를 하며. 한국, 일본, 중국 남부, 대만에 분포한다.

## 17. 잎벌레과

우리나라에는 372종이 알려졌다. 대부분 타원형이며, 무늬나 색상이 다양하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일부만 등불에 찾아온다.

### 36) *Altica caerulescens* - 발리잎벌레

몸길이는 3~4mm이며 몸 색깔은 흑청색이다. 딱지날개는 평활하고 광택이 난다. 한국, 일본, 중국남부, 대만에 분포한다.

발리잎벌레



2007.8.10 황성 읍하 섬강변

### 37) *Argopus balyi* - 애둥글잎벌레

애둥글잎벌레



2006.8.24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는 4~5mm 정도로 몸이 적갈색인데 겹눈은 검은색, 더듬이는 갈색을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몸이 작고 등글어 "애둥글잎벌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보통 평지와 야산의 풀밭에서 주로 서식하며 어른벌레는 5월부터 나타나 사위질빵, 으아리 등의 잎을 먹고 그곳에서 알을 낳는다.

### 38) *Cassida rubiginosa* - 중국청남색잎벌레

중국남색잎벌레



2005. 5.12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9~13mm이다. 몸은 매우 통통한 편이며 몸 빛깔은 검은색인데 보라색이나 남색의 광택이 강하다.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나 주로 6월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여러 종류의 넓은 잎을 가진 박주가

리·쑥·고구마 등의 풀을 먹는다. 유충은 땅 속에서 생활한다.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동부) 등지에 분포 한다

### 39) *Chrysomela populi* - 사시나무잎벌레

사시나무잎벌레



2008.5.22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10~12mm 정도이며, 황철나무, 버드나무 따위의 해충이다. 연 2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낙엽이나 돌 밑 또는 땅 속에서 월동한다. 성충은 이른 봄부터 나타나 활동을 하는데 암컷은 숙주식물의 새로운 잎이 나올 새

는 주위의 가는 가지에 30~40개의 알을 무리를 이루어 낳는다. 유충은 몸길이가 약 15mm이고, 옅은 복숭아 색으로 특히 등에는 2줄의 검은 점무늬가 있다. 유충 기간은 약 20일이며 8월경이면 다 자라서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는 잎 뒤에 매달려 붙어 있는데 건드리면 몸 옆면에서 젖빛의 액체 방어 물질을 분비하며 번데기로 지내는 기간은 3~5일이다. 한국, 일본, 인도, 유럽, 미국 등에 분포 한다.

### 40) *Chrysomela vigintipunctai* - 버들잎벌레

버들잎벌레



2008.5.9 황성 읍하 섬강변

성충은 몸길이가 7~9mm이며 머리와 몸은 검은색이고 딱지날개의 바탕은 황갈색이며 검은 무늬가 있다. 유충은 몸길이가 약 11mm로 머리는 검은색이고 몸의 바탕은 황록색이며 검은 점이 있다. 연 1회 발생하며 토양 속에서 성충으로 월동한다. 월동 성충은 4월경에 나타나서 잎을 갉아 먹고 잎 뒷면에 무더기로 산란한다. 유충은 4월 하순~5월 하순에 잎을 갉아 먹다가 잎 뒷면에 꼬리를 붙이고 번데기가 된다.

#### 41) *Dactylispa subquadrata* - 사각노랑테가시잎벌레

사각노랑테가시잎벌레



2008.6.19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는 6~8mm이며 길고 납작하다. 머리와 몸의 아래 쪽은 흑색이며 녹색 또는 남색의 강한 광택이 있다. 가운데 부분이 잘록하다. 몸빛이 검고, 더듬이와 다리와 배는 주황색이다. 딱지날개는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있다. 성충은 4~11월에 보이는데 주로 즐참나무 잎 뒤에 붙어 있다. 한국, 일본(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동시베리아에 분포되어 있다.

#### 42) *Gallerucida bifasciata* - 상아잎벌레

상아잎벌레



2007.4.23 황성 읍하 섬강변

몸의 길이는 8~10mm이며, 몸빛은 광택 있는 검은빛이다. 노란 상아 빛깔의 줄무늬가 3개 있어 보석처럼 아름답다. 성충은 4~11월에 걸쳐 나타나며 6월에 개체수가 가장 많아진다. 야산의 수목,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볼 수 있다. 성충과 유충 모두 호장근·까치수영·수영·소리쟁이 등의 잎을 먹는다. 암컷은 땅 속에 알을 낳고 유충은 땅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기간은 약 7일이다. 우화한 성충은 겨울이 되면 땅 속이나 낙엽 밑으로 들어가 월동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43) *Lema concinnipennis* - 배노랑긴가슴잎벌레

몸길이 5.0~6.5mm이다. 어른벌레의 가슴 위쪽에 작은 돌기가 있다. 배의 끝부분은 갈색이며, 아랫부분은 검은색이다. 어른벌레로 겨울나기를 하며, 5~7월에 잎 뒷면에 산란한다. 애벌레는 집단으로 먹이를 먹으며, 상체를 흔들며 방어를 하는 습성이 있다. 연1회 발생하며, 어른벌레는 한여름

배노랑긴가슴벌레



2007.8.14 황성 읍하 섬강변

활동을 개시하고 가을철에 휴면에 들어간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지에 분포 한다.

#### 44) *Lilioceris ruficollis* - 고려긴가슴잎벌레

고려긴가슴잎벌레



2008.6.9 횡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는 8.5mm이다. 몸 전체가 광택이 나는 흑청색이다. 가운데다리의 종아리마디에 가시돌기가 있으며 다리는 흑색이다. 성충은 6~8월에 초원이나 산에 나타난다. 한국(중부, 남부), 일본(쓰시마), 중국(만주, 북부, 중부, 남부, 하이난다오에 분포되어 있다

#### 45) *Monolepta quadriguttata* - 크로바잎벌레

크로바잎벌레



2007.7.28 횡성 읍하 섬강변

섬강변에서 촬영을 마치고 강변에 세워 놓은 차에 와보니 뒷면유리에 처음 보는 벌레가 있었다. 날아갈까봐 마음조리며 촬영했다. 몸길이는 3.6~4.0mm이다. 앞가슴, 머리는 적갈색이다. 배판은 흑색, 흑갈색이다. 더듬이는 흑갈색이다. 앞날개는 흑색 황색 무늬를 가지고 있다. 한국, 일본(혼슈, 시코쿠, 규슈), 동시베리아, 중국(남동부)에 분포되어 있다.

#### 46) *Monolepta shirozui* - 어리발톱잎벌레

어리발톱잎벌레



2007.8.10 횡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는 3.0~4.0mm이다. 다리와 몸 전체 색깔은 황갈색이다. 윗날개기부(基部), 뒷가슴은 흑색이다. 개체에 따라 윗날개는 황갈색이다. 때죽나무를 기주식물로 삼는다. 한국, 일본에 분포되어 있다.

#### 47) *Ophrida spectabilis*-왕벼룩잎벌레

왕벼룩잎벌레



2008.6.3 횡성 읍하 섬강변 의사행동하는 왕벼룩잎벌레 왕벼룩잎벌레의 애벌레

승지봉 오르는 길에서 만나 반가운 마음에 정신없이 촬영하다보니 벌레가 없어졌다. ‘도망도 빨리 갔네!’ 실망하며 일어서려다 땅위에 발딱 자빠져 다리를 오므리고 죽은 채하고 있었다. 손으로 잡았는데도 꼼짝하지 않았다. 5분이 지난 다음에야 다시 일어나 움직였다. ‘아, 이것이 의사행동(疑死行動)이구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벌레들의 행동이 신기했다. 몸길이 9~12mm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잎벌레 중 하나이다. 몸은 적갈색으로 광택이 강하다. 성충은 한여름에 연 1회 출현하며, 활엽수림이 발달된 곳에서 서식한다. 유충은 자기의 똥을 몸에 발라 위장하는 특이한 습성이 있다. 한국, 중국, 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 48) *Physosmaragdina nigrifrons*-밤나무잎벌레

밤나무잎벌레



2007.7.18 횡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4.8~5.5mm이다. 성충의 몸체는 약간 길고 통통하며, 몸빛깔은 검은색이다. 앞가슴등판과 딱지날개(굳은날개)는 주황색이며, 앞쪽에 한 쌍의 큰 검은색 무늬와 뒤쪽에 넓은 검은색의 가로 무늬가 있다. 다리는 검은색이다.

유충은 먹이식물로 밤나무잎이나 청미래덩굴잎, 억새류의 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삼림해충으로 분류된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지에 분포한다.

### 18. 풍뎅이과

우리나라에는 35종이 알려졌다. 무늬 및 색상이 다양하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 49) *Adoretus tenuimaculatus*-주둥무늬차색풍뎅이

주둥무늬차색풍뎅이



2007.6.24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9~12mm이다. 어른벌레의 몸 빛깔은 갈색을 띤다. 앞날개의 흰색의 짧은 털로 된 점무늬가 있다. 유충은 흰색을 띤다. 어른벌레는 1년에 1회 출현한다. 성충은 겨울나기를 하고, 이듬해 5월경에 활동을 시작하여 식물의 잎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의 습성을 가지며 불빛에 잘 모인다. 흙속에 알을 낳으며, 애벌레는 부식질이나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는다. 먹이식물로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등의 과일나무와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이다.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인도 등지에 분포한다.

#### 50) *Allomyrina dichotoma*-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2013.8.25 갑천 병지방 수령원

몸길이는 30~85mm이며 몸은 전체가 흑색이다. 머리의 앞가두리는 부채 모양이며, 뿔 모양의 돌기는 작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인도차이나에 분포하며 낙엽활엽수림에서 서식한다. 애벌레는 낙엽이 두텁게 쌓인 곳에서 살며 야행성으로 밤에는 불빛에도 날아든다.

#### 51) *Blitopertha orientalis*-등얼룩풍뎅이

등얼룩풍뎅이



2007.7.15 황성 읍하 섬강변

등껍질 표면에 얼룩이 진 무늬가 있어 얼룩풍뎅이라고 부른다. 몸길이는 8~13mm이며 몸은 전체적으로 연한 황갈색이며 약하게 광택이 있고, 모든 무늬들이 흰색이거나 전혀 없기도 하다. 성충은 6~7월에 가장 많고, 9월까지 볼 수 있는데 주로 활엽수의 잎을 먹는다. 애벌레는 땅속에서 뿌리를 갉아먹어 농작물의 해충이기도 하다.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는 1~2년이 걸린다. 한국, 일본에 분포한다.

## 52) *Bennlitopertha pallidipis*-연노랑풍뎅이

### 연노랑풍뎅이



2007.6.24 공근상동

몸길이 약 11mm이다. 몸빛깔은 연한 노란색이나 머리 뒷부분은 흑갈색이다. 겹눈은 황갈색이고 촉각(더듬이)은 적갈색이다. 활엽수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풍뎅이류 중 가장 흔한 종이다. 성충은 6월에서 8월에 걸쳐 활동한다. 여러 식물의 잎을 갉아먹으며 모와 모종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시베리아(동부), 일본 등 아시아에 널리 분포한다.

## 53) *Dicranocephalus adamsi*-사슴풍뎅이

몸길이 약 21~35mm이다. 몸 빛깔은 검은색이나 앞가슴등판과 딱지날개(굳은날개)의 대부분이 회백색의 가루 물질로 덮였다. 수컷은 머리 앞쪽에 1쌍의 사슴뿔 모양의 돌기가 있고 그 끝은 강하게 위쪽으로 구부러졌다. 한국, 중국, 타이완, 베트남에 분포하며 참나무같은 활엽수림에 모인다

### 사슴풍뎅이



2011.8.20 횡성 읍하섬강변

## 54) *Gallerucida bifasciata*-녹색콩풍뎅이

### 녹색콩풍뎅이



2007.6.10 횡성 읍하섬강변

몸길이는 8~11mm이며 광택이 강하고 머리와 앞가슴등판은 균일하게 녹색 내지 구릿빛 흑색인데 다리는 구릿빛 내지 보랏빛 흑색이고 딱지날개는 황갈색이다. 한국, 중국, 타이완, 베트남에 분포한다.

### 큰검정풍뎅이



2007.7.3 횡성 읍하섬강변

## 55) *Holotrichia parallela*-큰검정풍뎅이

몸의 길이는 17~22mm이며 검은색 또는 광택이 있는 갈색이다. 연 1회 발생하며 4월부터 9월까지 성충을 볼 수 있다. 암컷은 알을 땅속에 낳는다. 부화한 유충은 3번 탈피한다.

3령으로 월동한 뒤 이듬해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번데기가 된다. 이후 8월 중순까지 우화하며 7월 중순경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성충은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고 불빛에 잘 모여든다. 유충은 땅속에서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라며 농작물과 묘목의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널리 분포한다.

### 56) *Hoplia aureola*-점박이긴다리풍뎠이

점박이긴다리풍뎠이



2008.5.20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는 7~8mm이며 등쪽은 황록색 비늘로 덮였는데 가슴은 보다 청백색이 많고, 등판의 가운데는 흑갈색 비늘이 대략 4개 정도의 무늬를 형성하고, 딱지날개에는 흑갈색 비늘이 3열의 점무늬를 이루나 더러는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개체도 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에 분포하며 사과나무가 기주식물이다

### 57) *Melolontha incana*-왕풍뎠이

왕풍뎠이



2007.7.26 황성댐

몸길이가 30~40mm로 큰 편이다. 야산의 참나무류가 많은 지역에 서식하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등 과수에 피해를 준다. 봄부터 여름까지 활동하며 한여름 밤이면 불빛에 날아든다. 성충은 참나무의 잎을 갉아먹는다. 2년에 1회 발생하고 땅 속에 알을 낳는다. 부화한 해에는 어린 유충으로, 그 다음해에는 성숙한 유충으로 월동한다. 유충은 몸빛깔이 유백색이고 머리가 갈색으로 굽뎠이처럼 몸이 구부러져 있다. 유충은 땅 속에서 살면서 사과나무 등 활엽수의 뿌리를 먹으므로 나무의 수세를 쇠퇴시키고 열매가 자라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 일본, 중국(동북부) 등지에 분포한다.

## 58) *Mimela splendens*-풍뎅이

풍뎅이



2007.7.7 황성 읍하 섬강변

몸빛깔은 짙은 초록색으로 금빛 광택이 난다. 몸빛깔에 개체 변이가 심하여 붉은빛 또는 검은빛을 띤 자주색인 것도 있다.

애벌레로 겨울나기를 하며, 땅 속에서 식물의 뿌리를 먹 으면서 자란다. 번데기는 5월경에 이루어지며 30일 후 어른 벌레가 되어 나온다. 야간에 불빛에 반응하여 날아드는 특 성이 있고, 먹이식물로는 장미, 차나무, 감나무, 밤나무, 무궁화, 짚레나무, 해당 화, 복사나무, 벗나무, 참나무 등의 활엽수 잎을 먹는다.

## 59) *Popillia flavosellata*-참콩풍뎅이

참콩풍뎅이



2007.7.12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8~13mm이다. 몸은 전체적으로 검은빛에 가까운 남 색을 띤다.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여러 가지 잎과 꽃잎 을 먹으며, 그곳에서 짹짹기 한다. 7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 가 활동 한다. 대부분 산지에서 무리를 지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며, 참나무, 향철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등의 잎 을 갹아먹는다. 한국, 중국, 극동 러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 60) *Popillia japonica*-왜콩풍뎅이

왜콩풍뎅이



2005.5.26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10mm 전후로 몸은 검은 녹색에 광택이 있다. 겹날 개는 황갈색으로 세로로 얇은 선이 있다.

월동한 유충은 5월경부터 용실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용화 한다. 성충의 지상출현은 6월 상순~7월 상순으로 최성기는 6월 하순이다. 암컷은 흙 속으로 들어가 산란한다. 부화한 유충은 잔디 뿌리와 부식물을 먹고 성장한다. 유충으로 월동한 후 성장을 계속 하여 3령을 지낸다. 과수류 등의 활엽수 및 콩과식물이 주요 기주식물이다

## 20. 하늘소붙이과

우리나라에는 25종이 알려졌다. 무늬와 색상은 다양하나 대부분 앞가슴이 길다. 산지 중심으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 61) *Xanthochroa luteipennis*-노랑하늘소붙이

**노랑하늘소붙이** 몸길이 9~12mm이다. 머리·가슴·다리는 검은색이고 머리의 점무늬는 뒤쪽의 것이 촘촘하며 앞쪽의 것은 드물고 거칠다. 머리 방패는 노란색의 것이 많다. 성충은 침엽수의 썩은 나무줄기에 알을 낳는다. 유충은 썩은 나무속에 구멍을 파고 사는데 그 곳에 방을 만들고 번데기가 된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2006.6.29 황성 읍하 섬강변

### 62) *Chrysanthia integricollis*-녹색하늘소붙이

**녹색하늘소붙이** 몸길이 5~6mm이다. 몸빛깔은 초록색이고 금속광택이 난다. 몸은 가늘며 작고 등쪽에 점무늬가 흩어져 있다. 한국, 사할린섬,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2006.6.29 황성 읍하 섬강변

## 21. 하늘소과

한국에는 장수하늘소를 비롯하여 300종정도가 알려져 있다. 애벌레는 나무속에서 나무를 갉아먹으면서 사는데, 천적으로는 딱따구리와 맵시벌 등이 있다. 몸길이는 2mm가 채 안 되는 것에서부터 15cm가 넘는 것까지 있다. 더듬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그 중 긴수염하늘소 수컷 더듬이는 13cm나 되며 대개 11~12마디로 된 실 모양이다. 나무굼벵이라 불리기도 하는 유충은 머리는 작고 가슴은 넓적하다. 유충의 몸은 흰색에 원통형으로 주둥이가 꽤 단단하여 나무속을 파 먹어 들어가 목재에 해를 끼친다. 그러나 한약재로 쓰이는 것도 많다.

### 63) *Agapanthia pilicornis*-남색초원하늘소

남색초원하늘소



2005.6.5 횡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는 11~17mm이다. 몸은 가늘고 원통형이다. 바탕색이 청록색인데 강하게 광택이 난다. 수컷의 더듬이는 몸길이의 1.5배에 이르며 제4마디까지 검은색 털 뭉치가 나 있어 특이하다. 5~7월에 산지의 풀밭에서 생활한다. 각종 꽃에 모이거나 국화 속 등의 줄기에서 관찰 된다. 전국에 분포하며 국외는 중국 동북부, 몽골, 러시아에 분포한다.

### 64) *Anoplophora malasiaca*-알락하늘소

알락하늘소



2007.7.3 횡성 읍하 섬강변

성충은 몸길이가 30~35mm로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고, 딱지날개의 바탕은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며, 흰 점이 15~16개 있다. 더듬이는 몸보다 길어 수컷의 경우 더듬이가 몸길이의 2배에 가깝다. 성충은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특히 초여름에 개체수가 가장 많다. 성충은 살아 있는 버드나무의 껍질을 먹으며, 대개 낮에 활동하지만 불빛에 모여들기도 한다. 유충은 버드나무나 플라타너스 등에 기생한다. 성충이 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 65) *Corymbia rubra*-붉은산꽃하늘소

붉은산꽃하늘소

몸길이는 12~22mm이며 성충은 7~9월에 출현하여 여러 꽃에 모여 꽃가루나 꿀을 먹으며 꽃위에서 비행한다. 유충은 적송 벌채목과 고사목에 기생한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2007.7.3 횡성 읍하 섬강변

## 66) *Lamiomimus gottschei* - 우리목하늘소

우리목하늘소



2004.8 우천초등학교

‘떡갈나무하늘소’라고도 불리는 이 벌레는 ‘돌들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다. 옛날 어린이들이 이 벌레로 누가 더 큰 돌을 드는지 내기를 하며 놀았다는 기록을 보고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 돌들기를 해봤던 기억이 난다. 자기 몸무게 보다 몇 배 더 무거운 돌도 거뜬히 들었다. 몸길이 22~42mm이다. 몸은 짧고 굵으며 튼튼해 보인다. 수컷이 암컷에 비해 몸은 작고 촉각(더듬이)은 길다. 몸빛깔은 흑갈색·황갈색이다. 참나무류의 벌채목에 모이는데, 성충은 6월에서 8월까지 볼 수 있다. 야행성이며 불빛에 모여들기도 한다. 성충은 참나무류의 나무껍질을 갉아먹으며 유충도 나무속에서 목질부를 먹고 산다. 유충이 성충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4년이다.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 67) *Leptura aethiops* - 꽃하늘소

꽃하늘소



2007.5.25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12~17mm이다. 몸은 대체로 가늘고 긴 편이다. 온몸이 검은색이고 몸 전체에 윤기가 흐른다. 숲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으며 주로 5~8월에 활동한다. 성충은 꿀을 찾아 짙레꽃, 보리수나무, 나무딸기의 꽃에 모여든다. 한국, 일본, 중국, 사할린섬, 몽골, 시베리아, 유럽 등에 분포한다.

## 68) *Leptura arcuata* - 긴알락꽃하늘소

하늘소 중에서 무늬가 제일 예쁜 벌레다. 몸길이 12~18mm이며 성충은 5~8월에 출현한다. 몸은 흑색이며, 머리와 가슴에는 황색 털이 뽁뽁하게 나있다. 머리와 앞가슴등판은 흑색, 딱지날개에는 4줄의 황색 가로 띠무늬가 있는데, 어

긴알락꽃하늘소



2007.7.25 황성 읍하 섬강변

깨 쪽은 고리 모양이다. 성충은 8월까지 볼 수 있으나 5월에 가장 많고, 유충은 여러 종류의 말라 죽은 침엽수나 활엽수를 먹고 산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고,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 69) *Leptura duodecimguttatai*-열두점박이꽃하늘소

열두점박이꽃하늘소



2007.7.12 횡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11~15mm이다. 성충의 몸빛깔은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며, 딱지날개의 위쪽으로 삼각형 형태를 한 노란점이 좌우대칭으로 12개 배열되어 있다. 국내에는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는 일반적인 종이다. 여름철 숲속에 꽃이 무성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흰색의 꽃에 잘 모인다. 신나무꽃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암컷은 주로 벌채된 활엽수에 산란한다. 참나무류

에서 애벌레가 발견되기도 하며, 정확한 먹이식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한국, 중국(지린성), 일본(홋카이도), 헤이룽강, 시베리아 동부 등지에 분포한다

### 70) *Massicus raddei* - 하늘소

하늘소



2013.8.2 풍근 가곡

몸길이 34~57mm로 6~8월에 평지나 낮은 산에서 낮에 주로 활동하는 성충이 보이는데 몸집이 큰 편에 속하는 하늘소다. 온몸이 황갈색 잔털로 덮였으며, 잔털이 빠지면 흑갈색을 띤다. 수컷은 암컷에 비해 더듬이가 훨씬 길다. 유충은 밤나무 속을 파먹고 자란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71) *Moechotypa diphysis* - 털두꺼비하늘소

### 털두꺼비하늘소



2008.5.24 황성 읍하 섬강변

하늘소 무리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종으로 표고머섯 재배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라 방제를 위한 연구가 잘 되어있다. 몸길이 15~25mm이다. 머리서와 더듬이는 검은색이며, 몸은 전체적으로 흑갈색 바탕이다. 몸의 형태는 통통한 타원형이다. 가슴과 딱지날개가 마치 두꺼비의 등과 같이 울퉁불퉁하게 돌출되어 있어 털두꺼비하늘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성충은 1년에 1~2회 출현하며,

겨울나기는 유충이나 성충으로 한다. 성충은 수액이 나오는 나무나 침엽수의 진액 근처에 많이 모인다. 암컷은 고사목 또는 벌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에 알을 낳으며 유충은 수피 밑을 가해한다. 알려진 기주식물로는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굴피나무 등이다. 한국,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등지에 분포 한다

## 72) *Phytoecia rufiventris* - 국화하늘소

### 국화하늘소



2008.5.24 황성 읍하 섬강변

몸길이 6~9mm이다. 몸 빛깔은 검은 빛을 띤 푸른색이고 온몸에 작은 점무늬가 촘촘히 나 있다. 성충은 국화과 식물에 주로 모이며 유충도 국화과 식물에 기생한다. 민첩하게 날 수 있고, 암컷은 줄기에 고리 모양의 상처를 내어 그 속에 1개의 연노란 색 알을 낳는다. 유충은 줄기 속으로 파먹어 들어가면서 상처를 입히고 뿌리 근처까지 먹으며 8월에 줄기 속에서 번데기가 되고 9월에 성충이 된다. 국화는 위

쪽에서부터 말라죽으며, 특히 대륜국화(大輪菊花)에서는 피해가 심각하다. 연 1회 발생하고, 9월에 성충이 되며 성충의 형태로 가해식물의 뿌리에서 월동한다.

### 73) *Thyestilla gebleri* - 삼하늘소

#### 삼하늘소



2007.7.3 횡성 읍하 섬강변

몸의 길이는 11~15mm이며, 등은 검고 잿빛 솜털이 있어 어두운 회색이다. 더듬이는 검은데 세 번째 마디부터 아래쪽 맨 끝까지는 잿빛을 띤 백색이다. 들이나 야산에 있는 삼의 잎과 줄기에 서식한다. 성충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나타나는데 숲속에서 삼에 날아와 잎 또는 눈을 갉아먹으며 유충은 삼의 줄기 속에 기생한다.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 22. 홍날개과

몸길이 4~20mm 로 납작하고 노랑색에서 검정색까지 다양한 색을 띠며 몸에는 많은 털이 있다. 국내에는 3속 8종이 기록되어 있다. 유충은 썩거나 잘려진 나무에서 주로 발견된다.

### 74. *Pseudopyrochroa rubricollis* - 애홍날개

몸길이 7~9mm이다. 머리는 검은색이고 눈 사이는 넓으면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성충은 5~7월에 산지에서 볼 수 있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애홍날개



2008.8.15횡성 읍하 섬강변

## 23. 홍반디과

몸이 부드럽고 체색이 화려하며 주로 열대지방에 있다. 성체는 식물의 즙액이나 다른 곤충을 먹으며, 식물 사이를 느릿느릿 날거나 꽃 위에서 기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렌지색과 검은색 또는 푸른색의 뚜렷한 체색으로 아마도 포식자들에게 자신이 시고 얼얼한 맛임을 경고하는 것 같다.

III · 횡성사람 · 횡성이야기

## 75) *Dictyoapterus aurora* - 주홍홍반디

주홍홍반디



2007.6.5 횡성 읍하

몸길이 8~13mm이다. 머리는 검은색이고 가슴등판은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띤다. 성충은 한여름인 5~7월에 볼 수 있다. 다른 딱정벌레류와 달리 낮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애벌레는 교목류의 나뭇잎에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포식성이며, 어른벌레는 나무의 즙액 등을 빨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널리 분포 한다

## Ⅲ. 나가는 말



10여년간 벌레사진을 촬영한 섬강산책로

요즘은 벌레 사진을 촬영하려고 섬강산책로에 나가도 별로 벌레가 눈에 띄지 않는다. 눈이 나빠져서일까? 아니면 환경 변화로 인해 벌레가 사라진 것일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마음이 착잡(錯雜)하다. 새로운 벌레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알았을 때의 기쁨 때문에 벌레사진을 찍었고 사진이 모이다보니 분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관심을 갖다보니 이야기 거리가 생겨 '황성문화'에 투고한 것이 벌써 일곱 번째다. 덕분에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어 기쁘고 즐거웠으나 새로운 의문도 많이 갖게 되었지만 풀길이 없어 답답하기도 했다. 벌레에 대한 연구도 해충 방제를 위한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모든 벌레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원고를 내놓게 되어 부끄럽지만 이 글을 통해 자연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역할을 다하는 딱정벌레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 '강원의 자연(제6집-곤충편)' 1997년 12월 30일  
 남상호 '한국의 곤충' 교학사 2003년 9월 20일  
 조영권 '주머니속 곤충도감' 황소걸음 2006년 8월 10일  
 손재천 '주머니속 애벌레 도감' 황소걸음 2006년 9월 21일  
 손상봉 '주머니속 딱정벌레도감' 황소걸음 2009년 7월 20일  
 네이버 '두산백과', '곤충나라 식물나라 카페'

photo Essay

# 외로우니까 허수아비다.



글/사진 : 정 재 영  
(소설가, 황성문인협회 회장)



축제가 끝난  
자리는  
어떤 자리던 을씨년스럽다.  
마음 '짠' 하고..  
잔치 끝난 집 마당처럼.



어제 허수아비 축제 끝난  
밤두둑 마을을 찾았다.

난  
벽적거리는  
축제날 보다  
축제 끝난 고즈넉한 그런 자리를 더 좋아한다.



밤이 많이 열리는 마을이라서  
'밤두둑'이라고 이름 붙여진 마을.  
마을 뒷산 밤나무는 알밤 다 떨어트리고  
이파리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가을 들녘 파숫꾼 허수아비가  
오지 않는 새때 기다리며  
선하품만 푹푹 날리고 서 있었다.

농약으로 농촌 들녘엔 새가 사라졌다.

새가 사라진 들녘

새 지키는 허수아비도 함께 자취를 감추었고.

진화한 새들은

이제 더이상

허수아비 무서워하지 않는다.

허수아비가 가짜라는 걸 이미 알아버린 터이기에..

그래서

우리네 들녘에서 허수아비 설 자리가 없어졌다.





리 단위 시골마을에서  
축제를 연다는 게  
쉽지 않은데..  
밤두둑 마을에서는 매년 거르지 않고 축제를 연다.  
대단한 일이다.  
벌써 10회 째라니..

허수아비의 '꿈,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라는 주제로  
허수아비 전시, 허수아비 만들기, 허수아비 되어보기,  
보물찾기 등의 행사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축제도 찾는 이들과 함께 체험하는  
그런 축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게 축제의 경쟁력이다.

아쉬움 점 있다면  
허수아비를 연계로 한 스토리텔링이 있었으면 하는..  
스토리가 축제를 떠받치는 근간이기에..



무튼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

허수아비 직접 만들어보고,

다들으면서 지금은 아슴아슴 사라져가는

허수아비에 대한 향수에 젖어 본다는 것도

이 가을,

씩 운치 있는 가을여행이 될 듯싶다.





가을바람에  
 외다리로 선 채  
 건들거리는  
 밤두둑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내 유년 새 쫓던 기억의 편란들을 꺼내본다.

그땐  
 왜 그리 새떼들 극성이었던지..  
 하교 후  
 논가장자리 농막에 올라  
 우리 꼬맹이들은  
 목이 쉬도록 '위이' 소리를 질러댔고,  
 세수대야를 나무막대로 두드리고,  
 허수아비에 매달린 줄을 흔들어 대며,  
 새 쫓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치  
 참새들과 술래잡기 하듯..

저녁 어스름.

새 떼들

등지로 날아갈 때까지

우리들의 새 쫓기는 그칠 새 없었지..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에게

외롭지 않느냐고 묻지 말라고 했지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외로운 거라고..



## 허수아비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에게  
외로우냐고 묻지 마라  
어떤 풍경도 사랑이 되지 못하는 빈 들판  
넓고 해진 추억만으로 한 세월 견뎌왔느니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에게  
누구를 기다리느냐고도 묻지 마라  
일체의 위로도 건네지 마라  
세상에 태어나  
한 사람을 마음속에 섬기는 일은  
어차피 고독한 수행이거니

허수아비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외롭다  
사랑하는 그만큼 외롭다.

‘이정하 詩’

photo Essay

근세이베루 ‘실다리’를 건너다.



“넌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 시대를 살아 온 사람들 치고  
어릴 적  
한 두 번은 어른들한테 꼭 들었던 얘기가.

내 유년시절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들을 때 마다  
뭐가 그리 서러웠던지  
그 말을 들을 때 마다  
서럽게 아가리질(울음)을 터트리곤 했었다.  
그리곤  
“어느 다리밑에서요? 어머니”

라고 반문하면

어머니는 천연덕스레

“응 갑천 장거리 가는 쉼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라고 은근슬쩍 빙더서며 날 놀려먹으셨다.

장거리 있는 초등학교 등. 하교 길

꼭 건너는

쉼다리에 서서

어디쯤이 날 주워 온 곳인가

유심히 살피곤 했었고..



섬강 끄트머리.

고네이베루에 쉼다리가 놓여졌다.

며칠 전.

매년 황성한우 축제 즈음 놓여 지는 다리다.

쉼다리 아래 쪽

돌로 만든 징검다리와 함께.



샷다리는

임시다리다.

가을장마가 다 끝난 시점에 놓여지고

이듬해 여름장마가 오기 전 철거된다.

아까운 다리발을 장마에 떠내려 보내지 않기 위해.

내 고향

갑천.



까마득히 오래 전  
진한의 마지막 태기왕이 냇가에서  
피 묻은 갑옷을 씻었다고 해서  
갑옷갑(甲)字를 써 갑천(甲川)이라 불린 곳.  
그 갑천에도  
가을걷이가 끝나는 10월 하순이면  
안매일과 장거리를 잇는 쉼다리가 놓여졌다.  
시월 상순 즈음만 해도



아침저녁 맨발로 물을 건너기는 차다.  
바지가달을 걷고 얼음장 같은 내를 건너다보면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고 오줌이 짹짹 흐른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꼬맹이들이 섣다리를 학수고대했다.

섣다리는 순전히 울력으로 놓여진다.  
다리를 놓는 그 날은 만사제치고 무조건 한 집에 한 사람씩  
지계를 지고 나와야 한다.

먼저 Y자 다리발을 세울 바닥을 고르고  
지난 해 썼던 쓸 만한 다리발 가져와 바닥에 박는다.  
모자란 다리발을 인근 산에가 베어오고.  
이일은 짧은 장정들 몫이다.  
다리발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기에.  
다리발은 대개 질기똥스런 물푸레낭구를 쓴다.  
그러는 사이

중늬은이들은 인근 산에 가 소나무 싹을 베어 오고,  
 다리 위에 깔 황토 흙을 지게위에 저 나른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도끼와 끌만을 사용 해  
 기둥과 들보를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  
 마을 노련한 장정들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한 나절을 뚝뚝 거리면 섯다리 골격이 만들어지고  
 마을 아낙들이 정성스레 준비해 온 점심 한 그릇 먹고

저녁 전누리 때 되면 섯다리는 완성됐다.  
 완성 된 다리에 막걸리를 부으며 간단한 고사를 마치고,  
 마을의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맨 앞에 세워,  
 풍물패들이 ‘**평가라당**’ 섯다리 위에다  
 풍물가락을 쏟아놓는다.  
 막걸리 한 잔에 얼얼해진 신명 많은 중희 아버지는  
 어느새 ‘**황성 어리리**’ 가락 ‘**짜악**’ 뿔아 올리시고.  
 덩달아 신명 난 우리 꼬맹이들은  
 전누리때 얻어먹은 가래떡 입에 물고  
 그 뒤를 실루덩 거리며 따라갔다.  
 축제가 따로 없었다.  
 그날은 다리를 경계로 양쪽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신명 나는 그런 하루였다.

그런 다리가  
 갑천 중. 고등학교 앞에 시멘트 다리가 놓여 지면서 부터  
 사라져 버렸다.  
 영영.  
 아쉽게도.



요즘 섣다리 놓는 건 예전에 비해 한결 쉬워 보인다.  
전기톱으로 '윙' '쓱닥' 다리밭 만들고,  
포크레인 두 대가 번갈아 다리밭을 강에 고정시키고,  
준비해 온 소나무 쉼 깔고,  
포크레인 바가지로 흙을 넣고 '쿵쿵' 다지면 된다.  
한 나절이면 딱딱 완성된다.



엇그제  
섬강 고네이베루 쉼다리를 건너며  
오래 전  
내 고향 마을 갑천내 쉼다리의 아련한 기억들을  
뇌리에서 꺼내 반추 해 본다.

지금은 모두 사라져 버린  
고향 어르신들 살갑기만 했던 모습들.  
정감 넘치는 질퍽한 토박이 말밥들.  
그리고 내 유년시절 함께 섰다리 건너며  
재잘거리던  
고만고만한 또래또래 친구 얼굴들.  
아슴아슴 그 추억의 편린들을  
뇌리에서 꺼내 가만히 헤아려본다.  
지금은 다들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그립다.

마냥.





## IV. 학습문화의 고찰

- \* 학생 행복의 지렛대는 인성이다 | 현원명
- \* 평생학습도시 횡성 | 횡성군 주민복지지원과

# 학생 행복의

## 지렛대는 인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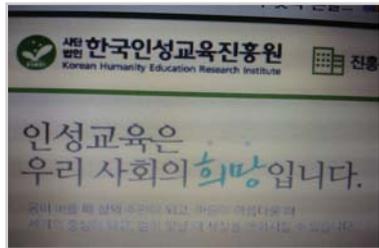
현 원 명  
(전 황성중 교장)

### 1.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유치중고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인성교육을 의무로 명시한 세계 최초의 법이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학생 사고가 빈발하여 인성교육이 강조되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인성교육의 목적과 핵심가치덕목이 정의되어 있다.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다.



핵심가치 덕목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지식위주 교육을 전인교육의 교육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이다. 즉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적이다.

### 2. 인성(人性, personality, character)이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를 배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될까’ 보다, ‘어떻게 살까’ 를 꿈꿔라. 삶의 목적은 행복의 추구이다. 학생 행복의 지렛대는 인성이다. 인성이란 무엇인가?

인성(人性)은 ‘인간다운 품성’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성품,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인 성격이다. 최근 인성교육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좋은 성품의 공통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예의바름 ②정직 ③청결한 생활 ④근면 ⑤질서 ⑥친절 ⑦인내 ⑧책임감 ⑨강한 의지력 ⑩희망, 비전 등이다.

인(仁)은 본래의 타고난 본성(本性)에 있어 본질적인 것으로 인성과 같다.

仁은 人 + 二,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인자무적(仁者無敵) 인자는 적이 없다. 不仁 = 不人, 인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즉 仁 = 人, 인을 갖추어야 비로소 사람이다.

### 3. 인(仁)이란 무엇인가?

공자의 인(仁)은 충서(忠恕), 즉 충(忠)은 가운데를 뜻하는 중(中)과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결합된 글자로 ‘마음의 한 가운데’를 뜻하여 가장자리나 변두리에서 헤매지 않는 한 개의 마음으로 자기완성이다. 참고로 환(患)은 한 가운데 마음이 두 개가 되어 근심 환자이다. 서(恕)는 같음을 뜻하는 여(如)와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결합된 글자로 ‘나의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같다’는, 혹은 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계완성이다.

### 4. 바람직한 인간형이란?

사람이란 개인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사람을 한자로 인간(人間) 즉 ‘사람사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상대방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때라야 참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NQ로 살아라. 공존지수인 NQ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남을 배려하여 자신과 상대가 함께 성공하는 개념이다.



21세기가 추구하는 인간형은 부드럽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지성적이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팀워크를 잘 살려나가는 인간형(돌고래형, 기러기의 아름다운 비행 등)이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은 MBA 과정에서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기업성공 요인을 조사하였다. 결과 응답의 93%가 성공요인으로 대인관계를 뽑았다. 또 다른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직장을 잃은 사람들 중 85%의 해고원인이 업무능력 부족이 아닌, 인간관계 능력 부족이었다.

우리의 가치 우선순위는 지덕체가 아닌 덕체지의 순서이다. 덕(德)은 필수요, 지는 선택이다. 지식위주 교육으로 행복지수는 낮은 국가로 전락되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隣)

## 5. 인간성 회복의 방법

인간성이란 인간의 본성 즉 사람다운 품성이다. 인간성을 지키며 사는 삶은 고귀하다. 인간성 회복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도덕성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배려와 존중, 공감 능력을 키워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봉사활동 등을 하는 것이 인간성 회복의 방법이다.

간디 묘비명에는 사회 파괴 7대 요소가 있다.

①인격없는 교육 ②인간성없는 과학 ③도덕성없는 상업 ④양식없는 쾌락 ⑤원칙없는 정치 ⑥노동없는 부 ⑦희생없는 신앙 등이다. 판단력과 인격을 가르

치고 나서 지식교육을 하라.

논어에 행유여력 즉이학문(行有餘力 卽以學文), 행은 효도 공경 성실 사랑 등 仁을 실천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학(學) 과 행(行) 사이에서 행(行)이 훨씬 중요하여 仁의 실천 없이 지식만 축적 함은 잘못된 자세이다.**

## 6. 사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라

극기복례(克己復禮), 예의 본질로는 1. 공경하는 마음 2. 배려하는 마음 3. 겸손한 마음 4. 사양하는 마음 5. 절제하는 마음 6.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음 등이 있다. 몇 년 전 일본의 한 시골학교인 무명의 '사가기타 고교'가 전국야구대회에서 우승하여 화제가 되었다. 감독은 국어교사이며 전용구장도 없이 훈련도 방과 후에 연습을 했을 뿐이다. 전국 4,000여 팀이 지역예선을 거쳐 추려진 강호 36개 팀이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이 학교가 정상에 올랐다.

감독은 경기 이전에 인간적 예의를 중시하고 선수 상호간의 존중은 물론 멋진 플레이를 한 상대방 선수에게 칭찬을 보내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 패배한 팀의 선수들도 사가기타 고교를 응원했다. **우승 비결은 예의바른 행동, 기본적 인간성이 확립되고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형성은 한우의 고장인바 한우에서 인성의 교훈을 찾자.



우(牛, 人 + 十) = 소는 사람의 열배의 힘, 열배의 참을성, 열배나 입이 무겁고, 사람보다 열배나 교만하지 않고 근면 착실하며 순하여 바람직한 품성을 지녔다. 불교사찰 입구에 불이문(不二門)은 하나가 전체, 전체가 하나로 차별심없는 평등, 평상심을 되찾는 일이 인성이다.

## 7. 효 문화의 본질

인성교육에서 효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교육(教育)본받을 교(教)효도 효(孝) + 칠 복(女)자의(字意)가 의미하듯 어릴 때부터 효(孝)를 회초리로 쳐서라도 가르쳐 소위 ‘사람 만듦’ ‘인격적 완성’을 우선시함이 당연하다. ‘늙을 노老’에서 아래 비수비(匕) 대신 ‘아들 자(子)’를 받치면 ‘孝’가 된다, 효는 노인(老)과 아들(子)이 합해져 아들이 늙으신 부모를 업고 있는 회의자(會意字)이다.



**효의 본질 : 愛 · 敬 · 事**

‘효’란, 한마디로 ‘부모님을 사랑(愛)하며 공경(敬)하고 섬기는 것(事)이다(협의의 개념). 부모 · 어른 · 스승을 愛 · 敬 · 事 정신으로 섬기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 맡은 일을 愛 · 敬 · 事 정신으로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광의의 개념).



효의 본질은 “효 즉 愛 · 敬 · 事가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孝 = 百行之本(源), 孝 = 愛+敬+事 ∴ 愛 · 敬 · 事 = 百行之本(源)

『효경(孝經)』 유가의 공자와 제자 증삼이 문답한 효도에 관한 책으로 천하(天下) 만세불변(萬世不變)의 법(法)이요, 불변의 가치기준이 될 경(經)이라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 子曰 天地之性 人爲貴 人之行 莫大於孝

(하늘과 땅이 낳은 생명 중에는 사람이 귀하고, 사람의 행위가운데는 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

孝百行之本(源,首) (孝는五常(仁義禮智信)의 根本이고 百行의 根源이니),

인의예지신(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고 지혜롭고 믿음직함) 오상은 유교에서 사람이 항상 지켜야 할 기본 5덕. 도덕과 윤리의 기본정신이라면, 신언서판(身言書判) 4덕(신체적 조건, 언어 표현력, 문필력, 판단력)은 그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과 윤리의 실천방법이다.

조선시대 창건-서울의 사대문 命名은五常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동대문: 興仁門, 서대문: 敦義門, 남대문: 崇禮門, 북대문: 弘智門, 普信閣)

## 8. 인성 함양을 위한 ‘지정의’ 교육

주자학을 집대성한 중국 송대의 유학자 주희(朱熹)는 인성 이론에서 심(心)은 성(性)과 정(情)을 포괄하였다. 성이란 마음의 이치인데 그 성을 지각할 수 없는 바 지각하려는 마음작용이 정이다. 인성교육은 마음의 바탕을 교육하고, 사람 됨됨이를 교육한다. 마음의 바탕을 교육함은 마음의 구성요소인 지(知), 정(情), 의(意)의 교육이다. 지는 사물의 인식, 이해,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정은 사물에서 느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의는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의 작용이다.

사람 됨됨이를 교육함은 바람직하고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이란 마음의 바탕인 지, 정, 의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마음의 교육,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 도덕적 삶의 추구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개개인의 마음은 선악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시비(是非)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건실한 행동을 다짐하는 정신 능력을 길러야 한다.

## 9. 지식 중심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10가지가 있다.

1.대인관계능력 2.자기관리능력 3.의사소통능력 4.진로개발능력 5.정보처리능력  
6.문제해결능력 7.창의력 8.시민의식 9.기초학습능력 10.국제사회문화이해력

Right people > Best people

라이트 피플 ---- 적합, 능력, 모험생, 창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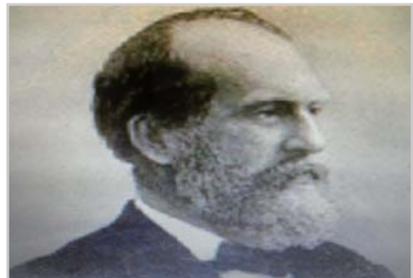
베스트 피플 ---- 최고, 최상, 모범생, 실력자

현재 자기 지식이나 실력보다 적재적소,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에 정진해야 소  
질개발, 업무능력, 행복이 신장된다(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야구를 막연히 좋  
아해서 해보았으나 실패했음).

2012년부터 대입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 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인성 요소별로 세분화해 기록하여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  
주도적학습 전형에 반영한다. 핵심인성요소란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이다.

## 10. 바른 인격의 주인이 되자

소크라테스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어디서 사느냐 →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아느냐 → 무엇을 실천하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하다 → 어떤 인격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하다

정의는 인간이 가져야 할 옳은 길이다. 공자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군자는 모든 일을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살핀 후 옳은 일이면 따르고, 그른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면 집착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도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여 이익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올바른 인격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 11. 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국 어느 초교 6학년 교실에서 졸업을 앞둔 20명 어린이들에게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어린이들은 각자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장, 육군참모총장, 회사 사장 등 19명이 고관이 되겠다고 야단이었다. 나머지 한 침착한 학생은 “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른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사람이 되지, 개가 될 줄 알아? 하며 비웃었다. 먼 훗날 큰 야망을 가진 아이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되겠다던 그 아이가 놀랍게도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였다.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아가는 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좋은 성품으로 서로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존중하는 인간성을 지키며 사는 삶은 위대하고 고귀하다.

미래 인재는 지식보다 정보활용능력이나 타인과 대화능력 등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핵심으로 갖추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성공을 위해 인성이러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 교육에 대하여 공자는 인성, 예의, 인

격을 완성한 후 배워라. 칸트는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하였다.

## 12. 인성교육의 기대 효과

인성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고유한 개성을 발견하기 위해 정확한 자기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개인의 잠재력의 계발이다.**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해야 한다.

셋째,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신장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의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있으므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넷째, **전인적 발달의 도모이다.** 지적 정신적 신체적 도덕적인 발달이 형성되도  
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건전한 민주시민의 육성이다.** 인간적 자질, 책임감, 협동심있는 시민  
의 자질을 길러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행복의 추구이다.** 사회적 질서를 위한 상호간의 존중과 예의를  
인지하여 사회적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결국 교육은 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며 사회생활  
적용 능력이며 대인관계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이 진로교육이다. 인성  
을 외면한 지식교육은 사상누각이다. 창의적 인재에 필요한 긍정, 의사소통, 대인  
관계, 공동체 의식 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그것의 밑바탕은 인성이다.**

미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 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 이다. 학생들의 잠재  
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에 ‘인성과 창의성’ 이 존재  
함을 인식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은 창조적 인적 자본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성은 삶의 지혜가 담긴 인생 가이드, 행복 충전소, 성공과 행복의 지렛대이다.



# 평생학습도시 형성

횡성군 주민복지 지원과

## 1 한국의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도시는 개인 삶의 질 제고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최근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적 차원의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하여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 재생과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국 13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운영되어 지고 있다.

## 2 횡성군의 평생학습은

횡성군은 2007년 7월(민선 4기, 한규호 군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곳, 평생학습도시 횡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 3 그 동안의 평생학습 성과

2007년 평생학습전담부서 구성, 평생학습조례 제정,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학습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141개 프로그램, 평생학습동아리육성사업으로 81개 동아리 육성지원으로 황성군의 평생학습 열기와 주민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또한 찾아가는 한글교실(114개소 1,766명),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2개 단계 26명), 성인 검정고시 대비반(중졸과정 10명), 배달강좌(13개 123명), 작은도서관 활용한 평생교육(8개소 14개 강좌 145명),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9개소 95개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평생학습 사각지역 및 소외계층 해소에 일조하였다.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현장학습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평생학습 관계자 네트워킹을 통해 횡성군 지역 평생학습을 활성화 시켰으며, 문해교사양성(3회 91명) 등 전문가 양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 4 횡성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 봄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횡성평생학습축제는 2008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 8회에 걸쳐 150,000명이 참여하는 횡성의 대표축제로 생애단계별 홍보 체험관 운영, 어린이놀이마당, 청소년 문화축제, 주민자치경연대회, 휘호대회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3대) 전 생애가 함께 즐기는 어울림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평생학습축제 개막



홍보체험프로그램

#### 5 앞으로의 횡성 평생학습은

2016년 횡성군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10년차를 맞이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다시 한번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 ① 횡성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횡성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시스템 구

축으로 학습을 통한 지역혁신과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 성장과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② 네트워크를 활용한 평생학습 협력사업

읍·면 노인대학, 주민자치프로그램, 여성회관, 문화원, 복지관 등 50여개의 평생학습기관/단체/시설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평생학습 기관/단체/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평생학습기관/단체별 프로그램 안내, 평생학습동아리 등록, 강사 등록 등의 정보를 한눈에 검색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횡성군 평생학습 성과집 발간으로 평생학습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의 매개체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횡성군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③ 횡성군 문해교육 확대 운영

현재까지 횡성군의 문해교육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11월 ~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찾아가는 한글교실”과 횡성군립도서관 한곳에서 운영된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으로 나뉘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시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과 문해교육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에 다 소외계층으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학습자가 많아 횡성읍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2016년 횡성군립도서관에 문해학교를 개설하여 체계적인 문해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읍·면 상시한글기초과정,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검정고시과정 등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한글기초과정은 3월부터 12월까지 읍·면 작은도서관에서, 초등학력인정과정은 3월부터 12월까지 군립도서관(횡성읍)과 태성도서관(둔내면)에서, 성인(직장인) 검정고시과정은 1월부터 12월까지 야간반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중·

고등학교 졸업과정으로 나뉘 운영될 계획이다.

#### ④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청소년의 우수한 역량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횡성군 청소년수련관(연 이용인원 : 45,000명) 프로그램(40개), 청소년문화존(10회),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6개), 횡성군 YOUTH 페스티벌,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2회)진행으로 학교 안과 밖,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삶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조화로운 성장과 긍정적인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활동

#### ⑤ 책 읽는 도시 횡성 조성

군립도서관은(회원수 3,450명, 장서 37,886권, 대출 43,000명) 읍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28개 2,500명) 운영으로 개관이후 군민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여가문화를 위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

군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둔내태성도서관, 읍면단위의 작은도서관(7개관:횡성읍, 우천, 안흥, 갑천, 청일, 공근, 강림)을 활용해 군민들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영유아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위한 영유아 프로그램, 건강한 성장을 돕는

초등(가족) 프로그램, 자기계발 및 여가문화를 위한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횡성 관내 도서관(군립·둔내·작은도서관)은 군민들의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다방면의 장서확충 및 다채로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횡성군립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

## 맺음말

현재까지 운영된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횡성만의 특색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양이나 여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던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고령화, 다문화, 경력단절여성, 인생 100세시대 등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발맞춰 평생학습이 고용으로 연계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역 경제 또한 살리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평생학습이 아닌,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 평생학습이 횡성지역에 미치는 역할 재조명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 기관·단체 및 주민 모두가『**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 V. 문화유산을 찾아서

- \* 2015 아산문화유적지를 다녀오며 | 이병곤
- \* 이천과 여주의 문화 유적을 찾아서 | 조기동
  - \* 대가야 문화권을 찾아서 | 김인규
- \* 횡성군 향토문화유적지답사를 다녀와서

이미래(대동여중)  
김범현(안흥고)  
진정민(안흥고)  
황동원(민사고)  
송서현(민사고)



2015년

## 아산문화유적지를 다녀오며



이 병곤  
(문화원 이사)

2015년 4월의 봄은 자주 내리는 봄비로 인하여 문화유적지답사에 비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으나 막상 떠나는 4월 21일은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솔솔 불어 여행하기에 적당한 날씨였다.

참가자는 총 145명으로 (회원48명, 수강생94명, 인솔자3명) 배정된 버스 4대에 승차하여 오전8시 아산으로 출발하였다.

버스에서 문화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문화원의 각종 문화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사무국장으로부터 아산지역 문화유적지답사 일정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들은 후 문화원에서 마련한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배당받으니 준비도 정말 잘했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날씨도 맑고 기온도 적당하여 여행하기에 정말 알맞은 날이다. 휴식을 위하여 휴게소에 들렀는데 일행 여러명이 세일하는 옷매장에서 이웃저웃 구경하며 있기에 나도 합류하여 스포츠웨어 점퍼를 걸쳐보니 내몸에 맞는 사이즈다.

동료들이 보기에 좋다고하여 들뜬 마음에 구입하고 말았다. 버스는 달리고 달려 현충사에 도착하였다. 혼자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현충사에 다녀간 지가 십오육년 된 것 같아 아그때만 해도 50대 초반이니 건강하고 패기가 넘치던 시절이 아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은 5월달에 수술이 예약되어있어 그런지 모르겠다.) 예전과 어떻게 달라진 모습일까하는 궁금증, 기대감과 함께 입장하니 걸모습으로는 정원 가꾸기에 많은 노력을 하였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현충사 조성한지가 50년정도 되어서 그런지 각종나무가 크고 울창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때는 봄이라 나뭇가지에는 꽃이 만발하고 잎이 피어 녹색을 띠며 각종 꽃들이 화단에 심어져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였다.



일행 모두가 자연에 취하여 이사람 저사람 가릴것 없이 사진 찍기에 바쁘고 경내 자연환경감상과 함께 현충사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안내 책자를 보니 현충사는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방화산 기슭에 자리하고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곳이다.

장군이 혼인 후 무예를 연마하며 구국의 역량을 기르던 장소이다. 1706년(숙종32년)충청도 유생들이 숙종임금에게 상소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1707년 숙종임금께서 현충사라는 액자를 하사하셨다.



1868년(고종5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현충사는 철폐되었고 1906년 을사늑약에 분노한 유림들이 현충사 유허비를 건립하였다. 일제 치하에서 이 충무공 묘소가 경매로 일본인의 손에 넘어갈 지경에 이르자 민족지사들이 이충무공 유적보존회를 조직하고 동아일보사의 협조로 민족성금을 모아 1932년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67년 옛 사당 윗편에 새로운 현충사를 준공하였고 충무공탄신일인 4월28일 정부주관으로 제전을 올리고 있다.





2011년 전시관과 교육관을 준공하고 전시관에는 임진왜란에 관한 각종유물이 전시되고 교육관에서는 충무공의 정신과 위업선양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국민이나 국가를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구하는 일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작전 중 부상이나 사망시 사후대책이 미비하여 당사자나 가족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는데 이는 바로 잡아 시정할 문제다.



사고후 보장이 안되면 누가 국가를 위하여 충성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대규모 집단 시위에는 정치권이 옳고 그름을 떠나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나 경찰, 군인등 한두명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법을 핑계로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 장래를 위하여 안되는 일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하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생활을 보장할 때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이 생기는 것이다. 현충사 관람에서 느끼는 임진왜란 당시 신하들은 당파싸움과 명분으로 갑론을박하고 선조는 명나라에 의존만하니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정당한 대우와 장비로 무장하고 싸울 수 있었을까? 의문이 생긴다.

4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개선된 것은 없고 군의 무기도입을 둘러싼 각종 방산 비리 국회의 여당야당 싸움만 있으니 한민족은 정녕 분쟁의 피를 대물림하는 유전자를 타고난 것일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며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일행은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현충사를 참배하고 돌아 내려오는 길을 통하여 이곳저곳 잘 조성된 단지를 감상하며 내려와 출구와 가까이 있는 전시관에서 난중일기를 비롯한 임진왜란 관련 각종유물과 자료를 급히 관람하고 나와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서 내려 두 번째 답

사지인 온양 민속박물관에 도착하니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버스가 여러대 있어 이곳도 규모가 상당한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입장하며 걸어 올라가니 정자(井字)우물이 나오



다음으로 삼층석탑을 감상하고 본관에 들어가니 박물관을 설립한 김원대(1921~2000)님께서 유무형의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하여 학술 연구와 후세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독자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1978년 설립하였다고 안내한다.



제1전시실은 한국인의 삶을 주제로 아름다운 이 나라에서 옛조상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아이의 출산과 질병, 삼신할미의 점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우리 삶속에 담겨져 있는 의식주 생활문화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 쓰던 물건을 전시하고 전시과정에 실물이 없는 것은 만들어서 누구나 공감하게 전시하니 새로운 느낌이다.



제2전시실은 한국인의 일터로서 산으로 강으로 논밭으로 바다로 밤낮으로 두루두루 힘을 모아 일하였던 손길들과 자연의 순리에 거스리지않는 순환 체계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조상들의 모습을 느끼는 장소다. 각종농기구를 비롯한 생활도구 바다의 어구 등 많은 자료가 있어 내가 어렸을 때 보지 못한 것도 구경 하였으며 선조들의 생활의 지혜 그리고 오늘날에 비교하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제3전시실은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자연주의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과 신앙의례를 재구성한 전시실로 무구한 세월동안 갈고 닦아진 장인의 숨 쉴 수 있는 예술이 되었고 의와 예는 생활구석구석에 자리잡아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해주었다.

전시된 물품을 보면서 기계화된 오늘날은 옛 조상들이 만든 물건을 도저히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조들의 지혜와 장인정신은 후손인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야외전시장은 한국건축과 조경으로 넓은 뜰에선 우리 고유의 자태를 간직한 연못과 그속에서는 아름다운 수생식물과 너와집 비각, 정각등 조상들이 지었던 건축물을 구경하였는데 대지64,800㎡ 전시관6,090㎡ 규모로 개인 설립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이다. 점심시간이 지난 듯하여 급히 나오니 우리 몇명이 제일 늦게 나와 식당이 다른 팀과 섞여서 초만원상태이다. 문화원팀이 있는 공간을 찾아 늦은 점심을 먹으니 맛있고 즐겁다.

점심식사 후 조금 쉬었다. 다음 답사지인 외암민속마을로 출발하여 주차장에 도착하니 많은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고 구름인파가 움직인다. 입구를 향하여 걷는데 냇가 건너편쪽에 고택과 초가집등이 보이고 관람객이 넘쳐 나는 듯하다.

나도 우리 일행 몇 명과 함께 관람방향 순서에 의거 반석정 물레방아를 보고 홍보관에 도착하니 외암민속마을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민속문화제 제236호 아산외암민속마을은 아산시내에서 남쪽으로 약8km 떨어진 설화산 동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의 외암민속마을은 조선 선조때부터 예안 이씨가 정착하면서 예안이씨 집성촌이 되었고 그 후 예안이씨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되어 양반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성리학의 대학자인 외암이간 선생이 마을에 살면서 더욱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호인 외암도 마을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전하여 진다고 한다.

홍보관을 나와 상류층 가옥에 들어가니 좋은 목재로 지은 기와집으로 사랑채 창고 안채에는 당시 사용하던 농사용기구와 생활용품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어디에서 이런 물품을 많이도 마련하였는지 놀라울 뿐이다. 중류층가옥, 서민층가옥, 초가삼간등 당시 생활을 적당히 배열해 놓아 잠시 잊혀지고 있던 당시 백성들의 생활상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느 시대나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데 요사에는 복

지국가가 되면서 어느정도 의식문제는 국가에서 부담하니 예전에 비하면 천지 차이가 나고 요즘세상에서 활동한다는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생각해본다.

상류층집 정원에는 마을 뒷산의 설화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끌어 들여 연못의 정원수로 이용하는 등 특색있게 꾸민 정원을 구경하고 관람안내도를 참고하여 감찰택을 둘러본 후 디딜방아와 교수택을 보고 견재고택, 풍덕택, 신창택, 참판택 등 가옥주인의 관직명이나 출신지명의 이름을 따서 택호가 정해져 있으며 마을내에서 총6.000m의 자연석 돌담장이 쌓여져있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담장이고 골목길이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재력에 따라 집의 규모와 생활상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남을 느끼며 몇몇 집은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어 관광객이 많아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며 예전에 예안이씨 집성촌에서 타성씨는 괄시받고 힘도 못써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어느덧 버스 탈 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급히 오니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다.

아산맹씨 행단을 방문할 순서이나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홍성진사무국장의



제안에 모두들 바로 올라가자고 동의하여 버스는 횡성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로 성공을 이루는 정보화시대인 오늘날과 선조들의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하니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옳다고 하는 일에는 목숨까지 바치는 시대에 살던 조상들은 얼마나 삶이 버거웠을까? 어려운 가운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선조들의 발자취가 아산지역에 많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생활해야겠다는 느낌이 든다.

아산지역 문화유적지 답사를 준비한 문화원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표하고 예산을 지원한 횡성군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답사기를 마감한다.

2015년 전통 문화 현장 체험 수기

## 이천과 여주의 문화 유적을 찾아서



조기동  
(문화원 이사)

시월의 쪽빛 하늘만큼이나 맑은 마음을 품고 경쾌하게 전통 문화 현장 학습을 떠나는 날이다. 바람 한 점 없는 푸르른 하늘을 기대하며 집 앞을 나서 보니 내 마음을 시샘하는 듯 내 몸을 감싸 도는 안개가 심술궂은 시누이 같다는 생각으로 문화원 앞으로 나갔다.

가을의 고운 단풍 빛깔처럼 물든 관광버스 세대가 나란히 선 주위에 황성문화원 사무국장의 안내로 버스에 올랐다.

많은 문화원 회원님과 문화 학교 수강생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정해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리니 황성군의 한규호 군수님께서 오늘 현장 체험을 떠나는 우리들을 환송하려고 버스에 오른다. 일일이 손을 잡고 잘 다녀오라는 고마운 환송의 손길에 따뜻함이 감돈다. 버스에 내리기전 다시 한 번 좋은 현장 학습이 되고, 황성군 문화 축제에 큰 소득이 되는 체험을 하고 오시라는 당부를 받으며 환송을 하신다. 뒤따라 오른 장신상 군의원의 환송도 받으며 버스는 이천을 향하여 출발한다.

농익은 가을 들녘을 바라보며 제 17회 이천 쌀 문화 축제장과 여주의 문화유적 일원을 둘러보는 체험을 준비한 박순업 문화원장님에 오늘 행사의 의미를 들으며 버스는 안개 낀 가을 길을 달려 나간다.



더욱이 풍성하게 준비된 음료수와 간식을 나눠주는 보따리 속에는 문화원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일철한 정성이 숨어 있음을 입 속에서 실감케 한다.

버스는 한 시간 남짓 달려 이천의 설봉공원 행사장에 도착했다.

설봉 공원의 뒷 편에 있는 이천 세라피아 토야 지움 입구에 하차하여 사무국장의 안내를 들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가을이 이곳에 있고 낭만과 멋스러움이 우리를 휘감아 가을의 심연 속에 풍덩 젖어들게 하는 시간이다.

야외에 곱게 단장된 구미호와 야생의 뜰이란 넓은 잔디밭 뒤에 자리 잡은 도자테마파크 전시 체험관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전시된 예술혼이 깃든 수많은 도자기들!

도자기는 백자, 청자, 투각, 상감기법이란 기초적인 형태만 이는 도자에 대해 문의한으로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혼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수박 겉핥기식의 눈요기로 관람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이곳 이천 도자기의 고장에서는 유구무언이요 속맥도 구별 못하는 간난아이 마냥 관람만 할 뿐!

더욱이 올해는 이천 세계 도자센터 기획전이 ‘쉽, 흙길을 걷다’란 테마로 전시관을 가득 채우고 있다.

도입부의 쉽으로써의 여행 1부의 아침 숲 산책. 2부 고향집에서의 오후, 3부

달빛 서정의 주제에서 보듯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깊어가는 계절을 느끼며 전시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한다.

관람을 하며 전시물을 보니 계절이 묻어나는 숲길을 걸어 고향집에서 따뜻한 한때를 보내고 별이 총총한 시골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자의 하루 동안의 여정을 담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도자 전시실의 진열한 배열이 동유럽 여행 코스로 이어진다 한다.

폴란드에서 시작하여 체코를 지나 오스트리아를 향하고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거쳐 마지막인 러시아 등 15개국을 여행한다.

더욱 금년의 도자전엔 국제 공모전으로 총 74개국 1470명이 2600여 점 출품이란다.

내가 본 마지막 작품은 벽에 걸린 가죽점퍼 한 점이다.

무심코 걸어논 벽위의 점퍼가 어느 직원이 벗어 놓은 점퍼인가 했더니 안내인이 하는 말이 도자기란다. 어찌나 놀랐는지 나를 당혹케 한다.

예술의 전당인 전시관을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이천 시립 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제일 먼저 우리를 맞는 역사 문화실에서 이천지명의 유래와 삼국시대 역사를 살펴보았다.

2천여 평의 부지와 440평의 건물에 1천여 점의 유물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계영배(戒盈杯), 교지(教旨), 호구단자(戶口單子), 남천구적(南川舊籍), 영례정려현판(永禮旌閭懸板) 등의 기증유물과 사적 제423호로 지정된 이천 설봉산성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고배, 신장상, 함통명벼루 등의 출토유물과 더불어, 농업 역사실에서는 이천 쌀을 생산했던 각종 농기구와 생활용구를 전시하고 있다.

利川은 利涉大川の 준말이며, 큰 내를 건너면 무한(無限)한 이(利)로움이 있다는 뜻에서 고려 태조 왕건(877~943)이 고려를 건국하기 위해 통일전쟁을 치르던 어느 날, 양평에서 폭우 속을 뚫고 남한강을 건너면서 이곳의 지명을 利川으로 하라고 명명한데서 유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이천 땅에 안흥사지 유적과 유물에 관한 자료이다. 너무도 우리 횡성군 安興면 이름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특이한 인연을 느끼며 다시 앞으로 살피며 가니 이천의 인물을 보고 또 한 번 큰 인연 있음을 실감케 한다.

고려 최고의 지장 장위공 서희 분이시다. 이분이 이천 분이시란다.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 아니신가?

거란국은 고구려 장수왕 때에는 고구려의 복속된 부족이었지만 야율아보기의 요나라 건국 후 우리 민족인 발해를 무너뜨린 나라가 거란이며 수십만의 대군으로 고려를 쳐들어 온 민족이 거란이다. 거란장수 소손녕을 맞아 고려에서는 땅까지 떼어주고 화해하자는 국론을 물리치고 담판으로 고려를 지킨 분이 이곳 이천의 인물이다. 더욱이 여진족이 자리한 강동 6주까지 우리의 땅이 되게 한 분, 거란족의 1차 침입을 물리친 그 분이 서희 장위공이시다.

그 후 거란족의 2차 침입과 강조. 거란족의 3차 침입과 고려를 구한 강감찬장군의 귀주 대첩. 그리고 횡성에는 마지막 거란족을 완전 섬멸한 후 5만의 거란족을 사로잡아 몽고에 빼앗기지 않고 거란장을 설치하신 우리 횡성 조씨의 삼원수 중 문정공 조충이 있지 않은가?

지난 봄 연천에 있는 송의전 춘향제에 분헌관으로 참배하며 고려 4대왕과 함께 배향된 고려왕조의 훌륭한 충신 16분이신 개국공신 복지겸, 신승겸, 홍유, 유금필, 배현경 그리고 서희, 강감찬, 조충 김취려 등 나란히 모셔진 16분의 고려조 충신들에게 참배 드린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도자 문화실로 다가가니 천년 이천 도자 문화의 역사를 담은 명품 도자가 우리를 맞이한다. 선사시대의 토기에서 청자, 분청사기, 백자에 이르기까지 아니 더 나아가 도자 문화의 메카로 예술혼을 담은 명장 작품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이천 시립 박물관을 관람하며 ‘우리 횡성에도 이 정도의 박물관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품어 본다.

인근의 영월군에는 그리도 박물관이 많은데……, 우리 횡성군에도 훌륭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고 머지않아 그 자취가 점차 사라지는 아쉬움을 생각하며 박물관을 나서니 앞쪽엔 이천 쌀 문화 축제장이다.

이천 쌀 문화 축제는 올해로 17번째라 한다. 오늘인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곳 설봉 공원 내 박물관 앞쪽에서 실시하며 흥겨운 만남, 행복한 나눔이란 슬로건아래 이천시와 이천 쌀 축제 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장르별 마당은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인 거북이 길놀이, 용줄 다리기, 거북놀이 체험 중인 풍년마당, 동네마당으로 시작하여 전통체험의 놀이마당, 쌀 축제 기원을 빌며 마당극으로 이천 천지밥, 뽕과전을 여는 기원마당,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마당, 무지개 가래떡을 만들며 햅쌀을 파는 햅쌀장터, 지역민이 펼치는 경연활동의 문화마당, 지게꾼의 힘자랑인 쌀가마 들기, 짚단 던지기 등의 농경 문화로 꾸며진 농경마당, 큰 가마솥으로 밥을 지어 이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이천 원가마솥 밥인 쌀밥카페, 그 밖에 난전인 동네마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곳저곳이 왁자지껄하고 난전이며 야단법석이다.

그 중 인절미를 만드느라 떡메를 치며 막걸리와 전통 소주를 내려 시음할 수 있는 곳에 장사진을 이룬다.

홍겹게 떡메 치는 횡성의 문화원 회원들과 70도의 소주 맛을 즐기는 문화 학교 수강생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역력하다.

기증기를 설치해 솔뚜껑을 덮는 모습도 장관이고 구수한 누룽지를 맛보며 인절미를 나눠 먹으니 쉽게 잊혀지지 않을 맛이다.

사물놀이를 흥겨움을 더하는 풍년마당의 멋스러움을 뇌리 속에 담고, 신명나며 한판 힘자랑을 해 보고픈 용줄 다리기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족으로 들어보지도 못한 아쉬움만 남긴 채 한 시간여 관람한 후 이천의 쌀 축제장을 나서게





되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설봉 저수지를 휘돌아나가는 버스는 이천 시내에 있는 나랏님 수라상이란 전통 식당을 향하여 달린다.

결관지계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이천의 수라상을 맛보고 나니 나랏님도 부럽지 않다는 마음을 품고 버스는 한 시간여 달려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으로 향한다.

여주의 세종대왕릉 입구의 단풍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우리를 반긴다.

우리나라의 역대 왕 중 가장 으뜸이요 그 업적을 그 어떤 왕과 견줄 수 있을까? 성군 중의 성군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왕임을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음이 절로 발걸음을 숙연케 한다.

나는 영릉인 이곳이 처음은 아니다. 영릉 앞에서 친척이 영릉 원두막이란 상호를 걸고 식당업을 하기 때문에 이곳 영릉에 자주 들렀다.



조용히 영릉 경내를 거닐 때마다 이곳은 볼거리가 너무 많음을 잘 알고 있어 함께한 일행들을 안내하며 간단한 해설을 해 드렸다.

먼저 세종전 앞에 전시된 조형물 앞으로 일행을 안내하여 여러 해시계, 간의, 혼천의, 물시계, 측우기 등을 둘러보면서 조선 최고의 과학 산물임을 설명하며 세종전으로 안내 했다.

세종전 안에서는 우리 민족의 최고이고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언해본 및 세종때 간행된 용비어천가를 비롯한 여러 편찬 서적을 둘러 보았다.

또한 박연을 시켜 집대성한 아악의 여러 악기들도 살펴보며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느낀다.

앞서 간 일행을 따라 훈민문을 지나 홍살문이 서 있는 곳에 이르니 새롭게 단



장된 금천교가 나타난다. 안내문을 살피니 참도를 갈 때는 가운데 길로 가지 말라는 설명이 있고, 그 길은 돌아가신 선왕의 혼령만이 다니는 신도라고 알려 주고 있다.

우리 일행은 예법을 지키며 조용히 정자각으로 다가간다. 이곳이 바로 세종대 왕께 음식을 차려 놓고 제례를 올리는 곳이다. 정자각의 열려진 문으로 살펴보니 정면에 영릉이 잘 보인다. 엄숙한 마음으로 사배라도 드리고 싶다.

정자각을 지나니 영릉비가 보인다. 안내문을 보니 영릉이 원래 있던 곳과 왕 비인 소헌왕후에 관한 안내문이다. 예종1년 1469년 왕가에 많은 불상사가 일어나 이곳으로 옮겼다 한다.

헌릉 서쪽 지금의 내곡동에서 돌아가신지 20년 만에 이장을 했다는 기록을 보며 우리는 영릉 주위를 돌아 숙연한 마음으로 참배도 하고 뒤돌아 나왔다.

영릉 지구에는 조선 17대 왕이신 효종대왕과 인선왕후의 능도 함께 있지만 시간관계로 다음에 보기로 하고 여러 회원들과 조용히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발 걸음을 옮기니 드넓은 연못이다. 연못주위에서 손뼉을 치니 돼지만큼 커다란 황금 잉어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모여든다. 물고기 먹이 파는 곳은 있지만 판매 인이 없어 아쉬운 마음을 갖고 물고기와 작별이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자라면



저리도 크단 말인가? 잘 훈련시켜 함께 마린보이처럼 물속을 헤엄치고픈 충동을 안고 발걸음을 돌리니 재실이다.

함께 한 일행의 저 건물을 가 보자는 의견에 따라 재실에 드니 이곳에도 역사의 산실임에 큰 수확이 있음을 보았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 왕릉의 재실들이 일제 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대부분이 소실되었지만 이곳만이 원형을 유지하였고, 공간 구성과 배치가 뛰어나 유네스코 등재에 큰 도움을 준 곳이란다.

더욱이 이곳에 기록된 안내문을 보고 영릉이란 능호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세종대왕의 능은 英陵이고 효종대왕릉은 寧陵이란 능호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오늘 현장학습의 큰 배움으로 생각하며 세계유산과 자연유산의 큰 자부심을 가슴 가득 담고 경내를 나와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일정에 따라 마지막 견학 장소인 신록사에 당도하여 일주문을 지나니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분이 계신다. 황포 돛대의 멋스러움을 명함에 담은 황선자 문화 해설사 님이시다.

이곳의 풍경 또한 가을의 흥취를 즐기기에 최고로 멋진 곳이 아닌가?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의 강물 위에 고풍스러운 돛을 단 멋드러진 배들의 모습은 이곳 봉미산 자락 밑에 자리 잡은 신륵사와 어루러져 한 폭의 산수화보다 더 뛰어난 명소이다.

우리 일행은 황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신륵사 앞에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 조용히 신륵사의 내력을 듣는다.

더욱이 이 은행나무는 660여년전 고려말 공민왕사이신 나옹 선사님이 심으신 나무란다. 특이한 모습은 이 나무 중앙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투신 듯한 희유한 모습이 자라나 있다. 대자대비로서 모든 중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발원으로 이곳 신륵사 은행나무에 나투신 것이라는 해설을 하신다.

관세음보살의 자태가 역력한 모습도 경이롭지만 나는 이곳에도 황성과 연관된 인물이 있음에 경이로움마저 든다.

황성에도 나옹선사의 흔적이 있지 않은가? 치악산 너머 강림면 부곡리 치악산 송어 횡집 앞의 샘물도 바로 나옹 선사께서 부곡지역에 물 없음을 보시고 땅을

가리켜 과 보라고 하니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았다 하지 않는가?

정말로 오늘 횡성과 연관된 인물과 지명을 대하니 감회가 새롭다.

다음으로 우리를 안내한 곳은 강가에 자리한 전탑이다.

신록사 다층 전탑은 우리나라 보물 226호로 지정되어 있고 남한강을 오르내리는 나룻배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 한다.

전탑 아래로 한강이 굽어보이고 강 건너 멀리 평야를 마주하고 있는 경치 좋은 바위 위에 이 전탑이 세워져 있다. 전탑(博塔)이란 흙으로 구운 벽돌로 쌓은 탑을 이르며, 기단과 계단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탑신부는 흙벽돌로 6층까지 쌓아 올렸다.

이곳 신록사는 벽돌로 쌓은 탑이 있다하여 벽사 또는 벽절이란 다른 이름이 전한다 한다.

신록사가 대찰을 이루게 된 것은 나옹이 이곳에서 갖가지 이적을 보이면서 입적(入寂)하였기 때문이란대. 나옹이 입적할 때 오색 구름이 산마루를 덮고, 구름도 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으며, 수많은 사리가 나왔고, 용(龍)이 호상(護喪: 초상 치르는 모든 일을 주장하여 보살피는 것을 했던 일들이 그것이다.

또, 1382년에는 2층으로 된 대장각(大藏閣)이 건립되면서 간행한 대장경 1부를 봉안하였다. 대장경 불사(佛事)를 발원한 것은 이색(李穡)의 아버지인 이곡(李穀)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이색이 그 뜻을 계승하여 나옹의 제자들과 함께 간행하였다 한다.

또한 이 불사의 기록에 당시의 최고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각운(覺雲)·신조(神照)·자초(自超) 등의 고승들과 최영(崔瑩)·조민수(曹敏修)·최무선(崔茂宣) 등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신조는 누구인가? 바로 횡성 강림면이란 지명을 만들게 한 각림사의 주지 스님이며 이성계와 함께 왜구를 토벌한 대사이며 원천석과 함께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라는 분이 아니신가? 당시 최고 권력가인 최영장군의 이름이나 위화도



회군의 주요 인물인 조민수장군이나 왜구를 화포로 물리친 최무선장군인 역사적 인물들을 이곳 여주에서 대하니 이곳이 격랑의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한 곳임에 내 가슴이 요동쳤다.

조선시대에는 배불정책으로 이 절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광주의 대모산(大母山)에 있던 영릉(英陵)이 여주로 이장된 1469년(예종 1)부터 왕실에서 신록사를 영릉의 원찰(願刹)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고, 1472년(성종 3) 2월에 대규모 중창불사가 시작되어 8개월 만에 200여 칸의 건물을 보수 또는 신축하였다. 그 이듬해 대왕대비는 신록사를 보은사(報恩寺)라고 개칭하였다 한다.

그 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병화로 폐허가 되었다가 1671년(현종 12)에 중건하였고, 1700년(숙종 26)에 삼존상을 중수했으며, 1726년(영조 2)에 전탑을, 1929년에는 명부전(冥府殿)을 중수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극락보전(極樂寶殿)·조사당(祖師堂)·명부전·심검당(尋劍堂)·적묵당(寂默堂)·봉향각(奉香閣)·칠성각(七星閣)·종각(鐘閣)·구룡루(九龍樓) 등은 1797년(정조 21)에 시작하여 1800년에 완공된 건물이라고 한다.

우리 일행은 극락 보전 앞에 있는 신록사 다층 석탑에서 이 절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이 절이 조선 왕조의 비보이며 훌륭한 사찰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신록사 다층 석탑은 보물 제225호로 높이 300cm이며, 2층의 기단부 위에 다층의 탑신부가 있어 기본적인 구조는 신라나 고려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흰 대리석으로 된 탑신으로 상층기단 면석에는 꽃잎 모양과 연주문(連珠文)으로 장식한 우주형의 모각이 있고 각 면에는 용 문양을 조각하였는데 수법이 능숙하다. 따라서 용 주위의 구름 문양도 우아하여 구름과 용이 잘 어울린다는 해설이다.

다음으로 발길을 돌린 곳은 명부전이다. 지장보살과 염라대왕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대왕을 모신 곳이다.

그 옛날 한양의 귀부인들이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곳 신록사에 머물면서 저세상으로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수많은 참배를 올렸으리라 생각하니 그 숙연함에 발걸음이 무겁다.

해설사의 안내는 이곳에서 몇고 자유로이 경내를 돌며 신록사의 사찰을 뒤돌아 나오게 된다.

신록사를 관람하며 나오는 길에 함께 한 어느 분의 말씀에 또 한 번 우리 횡성과 큰 인연이 있음을 듣게 되었다.

바로 설악산 봉정암은 봉황의 머리 부분이고 횡성의 신대리에 있는 봉복사는 몸통 부분이며 이곳의 봉미산 신록사는 바로 봉황의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 옛날에는 우리 횡성의 봉복사가 매우 큰 사찰이며 아주 중요한 사찰 이었다. 지금은 횡성의 봉복사가 세를 다해 불품없는 절로 전락함이 매우 애석하다는 말씀이시다. 그 또한 우리 횡성과 인연이 많은 신록사가 아닌가?

유유히 흘러가는 남한강의 물결처럼 횡성의 이름도 흘러가는 역사 속의 소용돌이가 이곳 이천과 여주와 함께 커다란 수레바퀴의 한 축이 되어 지나갔다는 명상에 빠지며 버스에 몸을 싣고 귀향길에 올랐다.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다시 한 번 오늘의 현장 체험 학습을 되돌아보았다.



아침에 우리를 배웅하던 한규호 군수의 인사말 속에 우리 횡성을 위한 무언가를 얻어 오라는 말씀이 내 머리를 스친다.

우리의 횡성이 이젠 세계 속의 횡성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횡성한우와 안홍편빕 같은 먹거리로 이름이 나 있을 뿐 횡성의 문화와 전통의 위대함은 감추어져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 횡성에도 하루 빨리 횡성을 알리는 군립 박물관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신 선조들에 대한 선양사업이 크게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어사매로 시작하여 미리내를 닮은 지형이라 예쁜 이름처럼 멋들어진 황천으로 시작되는 횡성지명의 유래, 태기산의 전설로 승화한 태기왕이야기, 고려의 거란족을 섬멸하고 거란장을 설치하며 삼마치의 지명을 만들어내신 삼원수춘의 위대한 자취, 경강로를 열어 조선시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고흥산이야기, 문학과 문화의 대 족적을 남긴 조성건과 안삼교 그리고 취석공과 정종영 같은 문인들, 구국의 일념으로 산화한 민공호 의병장, 일본의 침탈기 시대 수많은

독립운동을 이끌어 오신 최양옥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삼일 운동사. 어찌 외지인들은 횡성을 한우만의 고장으로 기억한단 말인가?

스쳐가는 차창의 고운 가을들녘을 역사와 전통 문화의 체험 속으로 달린 오늘 하루를 감회에 젖어 있다 보니 어느덧 횡성 문화원에 도착이다.

문화원장님의 배려 속에 맛있는 저녁을 마치고 멋진 내일의 횡성을 머릿속에 그리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대가야 문화권을 찾아서



김인규  
(향교 전교/문화원이사)

11월 중순 가을비 촉촉이 내리는 운무 속에 향토문화 비교답사를 위하여 횡성 문화원 임원진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충주 휴게소를 경유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지나 3시간가량 달려가노라면 경남 동고령 톨게이트에 도착하게 된다.

우선 대가야 문화언급에 앞서 그동안 삼국유사 권2의 23장에 알려진 가야문화 역사를 다시 한 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가락국기(駕洛國記)는 서기1076년 고려문종(11대)때 김해(금관가야) 지주사(知州事)의 문인(文人)이 지은 것으로 실제로 삼국사기(김부식)보다 69년이나 앞선 고전문헌이지만 저자는 명확하지 않다.

그로부터 약200년후인 1281년 고려 충렬왕(7년)때에 일연국사(一然禪)가 가락국기를 4,464자로 요약해서 삼국유사 권2에 기록하므로써 전해졌다고 한다.

전해오는 가락국기설화에 의하면... 천지개벽이후로 이지방에는 나라의 명칭과 임금도 없었지만 9촌락의 대표적인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등 9간(九干)의 추장들이 백성들을 통솔하였는데 약 10,000여호에 75,000명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한다.

당시 중국후한의 시조인 광무제 건무18년 임인(서기42년)년 3월3일(上巳日)에 9간들이 김해시냇가에 모여서 1년 동안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물가에서 회합연회를 하고 있을 때에 북쪽 귀지봉(김해시 구지동)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서 9간들과 마을사람 300여명이 귀지봉으로 모였는데 음성으로만 들리기를 너희들은 하늘이 보내신 대왕을 맞이하는 춤을 추어라 하기에 9간들과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자 하늘로부터 자주색갈의 밧줄이 내려와서 다가가 보니 분홍보자기에 금합(金盒)이 싸여 있었다. 금합을 열자 황금빛 알이 여섯 개 있었는데 모두 기뻐하며 100번절을 하고는 아도간(아刀干)의 집으로 돌아와서 탁자 위에 정중히 올려놓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다시 모여 금합을 열자 여섯 개의 황금빛 알이 모두 어린 동자로 화생(化生)되어 있어 평상에 받들어 모시고 절하며 극진히 공경하였다. 여섯동자들이 날로 성장하여 10일쯤 지나자 9척 장신이 되었다고 한다.



구지봉 시조대왕 탄강성지(龜旨峰始祖大王誕降聖地)

그달 보름날에 왕위에 즉위하시니 황금빛 알에서 태어 났다고해서 성을 김(金)이라 하였고 첫째라하여 수로(首露)라 하였으며 나라 이름을 대가락(大駕洛)또는 가야(伽倻)라고 하다가 뒤에 금관(金官)으로 고쳤다.

나머지 다섯 분은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셨는데... 고령가야(상주) 성산가야(성주) 비화가야(창녕) 아라가야(함안) 소가야(고성)등 모두 6가야이다.

6년이 지난 무신(서기48)년 7월 27일에 금관가야의 수로왕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령하여 배와 말을 준비하고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대기하도록 하고 신귀간(神鬼干)에게는 승점에 가서 바라보도록 하였는데 홀연히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어느배 한 척이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펴리면서 망산도 쪽으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대기하고 있던 유천간이 햇불을 올려 배안의 사람들을 내리도록 안내 하였으

며 승점에서 바라보고 있던 신귀간이 대궐로 달려가서 왕에게 알려자 즉시 구간을 보내서 모셔오도록 하였는데 그때까지 배안에 계시던 공주는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경솔하게 따라 가겠느냐고 사양하여 결국 왕께서 관리를 거느리고 거동하여 맞이하였다고 한다.



망산도(望山島) 전경 : 경남 진해시 용연동에 있다.

공주일행은 뱃사공 등 20여명으로서 신하두사람인 신보와 조광과 그들의 아내인 모정과 모랑등이 비단과 금은보화를 많이 싣고왔다.

하루는 공주가 왕에게 아뢰기를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공주로서 성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세로서 금년 5월에 부왕과 모후께서 분부하시면서 꿈속에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은 하늘이 보낸 사람으로서 신령하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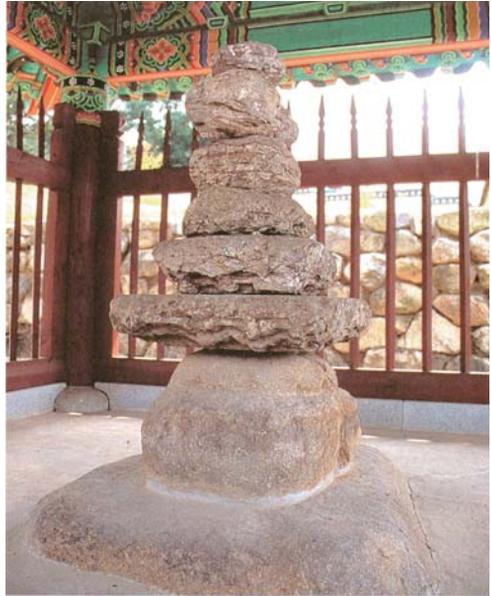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므로 공주를 보내서 배필이 되도록 하라고 하시기에 지금 너를 가락국으로 보내는것이니 떠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감히 대왕님의 용안을 뵈게 되었다고 하자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짐도 공주가 오실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고는 혼인을 맺으셨다. 그리고 왕후가 배를 타고 올때에 풍랑을 막기 위해 싣고온 파사석탑(婆娑石塔)이 지금도 귀지봉남쪽 왕후릉(사적74호)에 보존되어 있으며 그 당시 같이왔던 15명의 사공에게는 쌀10섬과 배30필씩을 주어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 후에 왕후는 10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두었는데 첫째 거등(居登)은 태자로 삼았다가 뒤에 2대 도왕(道王)이 되었으며 둘째 거칠(居漆)과 셋째왕자는 왕후의 성씨인 허(許)씨 성을 하사받고 모성(母姓)을 따라 지금까지 김해김씨와 김해허씨가 동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나머지 일곱왕자는 입산하여 도를 닦아

성불하였으므로 왕께서 칠불암(七佛庵)을 하동쌍계사 부근에 지어주셨다고한다.

그리고 허왕후의 본국은 인도 아유타(阿踰陁)또는 천축(天竺)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점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일설에 의하면 지금도 허왕후의 비석에는 보주황후(普州皇后)로 되어있는데 중국 양자강 유역 무한 보주(普州)에서 출발했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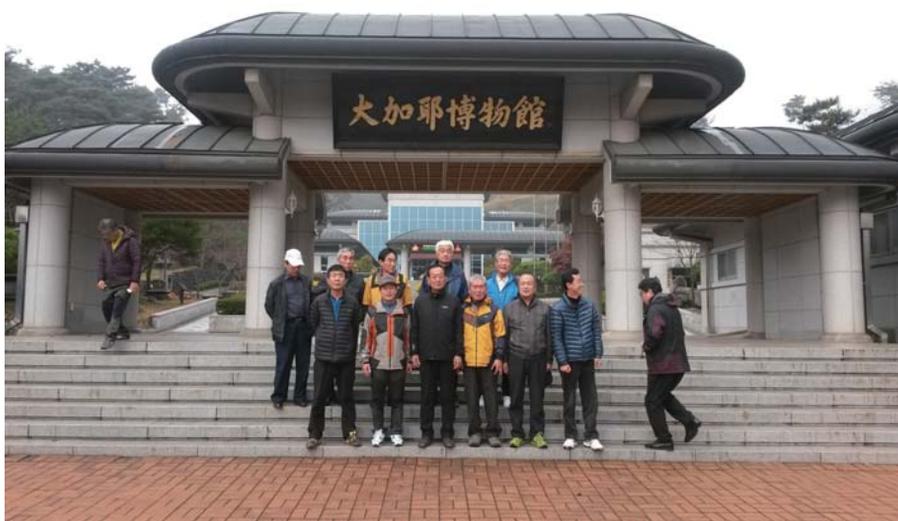


파사석탑(婆娑石塔)

도에서 돛단배로 우리나라까지 항해한다는 것은 거리나 일기로 보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정치상황은 전한 말엽 왕망의 왕위친탈을 척결하고 광무제 유수(劉秀)가 통치하는 후한시대로써 왕위에 오른 뒤 약23년경 양자강유역 보주지역에 반란이 일어나서 허왕후의 부왕께서 공주를 망명 보낸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풍랑을 염려해서 배에 파사석탑을 싣고 5월에 출발해서 7월27일 망산도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금년 봄쯤 모 TV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현지촬영으로 다룬 일이 있는데 앞으로 정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 설이 사실이라면 허왕후의 가게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중국 보주까지 오게 된 경위와 경로를 연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인도에서 왔다면 티베트고원, 라싸를 거치지 않고는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온 시기가 후한광무제 아들인 명제(서기67년) 시대라고 역



사는 적고 있어 허왕후(서기48년이전)가계가 불교전파의 선발대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가능성이 맞다면 우리나라에 불교사취가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 가야 일 수도 있어 연구해 볼 과제일 것이고 파사석탑 역시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각설하고 대가야를 돌아본다. 고령군에 도움을 했던 대가야(大伽倻)국이 앞에서 기술한 6가야와의 관계를 문헌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것은 없지만 처음 알게된 사실로써 금관가야 김수로왕의 형인 이진아시왕(伊珍阿鼓王)이 고령(高靈)에 대가야국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고령 지산동에 704개의 대가야고분이 산능선마다 산재되어 있는데 6가야의 고분이 평지에 있는 반면 대가야고분은 산꼭데기에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고분을 장관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정말로 대단한 왕조였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가야 고분을 발굴한 결과 지산동44호 고분에서는 40명의 순장(殉葬)자가 있었다는 것이 또 놀라운 사실이다. 내부에는 수혈식으로 옆에 돌을 쌓고 위에는



넙적한 돌로 뚜껑을 덮었으며 주변에는 문신, 무신, 시녀등 심지어는 동자까지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서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간다고 생각했던것 같다 그런데 순장과정에 끔찍한 일을 유골의 상태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분속에는 각종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토기종류





와 돌칼, 화살촉 철로된 투구와 갑옷, 금동관, 귀걸이, 목걸이 등이 출토되었는데 상당히 정교하였다. 그중에 금관의 특징은 신라유물은 뽕족한 퇴산자 모형인 반면 대가야 유물은 둥근 풀잎이나 꽃모양(초화형草花形)이 특색이다. 그리고 서기300년 경부터 합천 야로와, 쌍림면 미송산에서 철광석을 캐다가 가마에 녹여서 철로 농기구를 생산하였다고 하니 이 또한 놀라운 사실이다.





다음에는 우륵박물관으로 향했다 우륵(牛勒)은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중의 한사람으로 대가야 가실왕의 명을 받아 정정골에서 가야금을 만들고 곡을지어 연주하였으며 대가야가 멸망하기 직전에 신라로 망명하여 신라 음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가야금을 만드는 과정 또한 대단한 공정이다 30년된 오동나무를 잘라서 판을





만든 다음에 5년동안 눈 비를 맞히면서 말려야 나무결이 터지지 않고 좋은 가야금이 나온단다. 만약에 가야금을 마련하고 싶으면 고령에 우륵박물관에 의뢰하면 최고의 가야금을 소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산동 고분옆에는 역사테마 관광지가 있는데 토기방, 철기방, 가마터 체험관 임종체험관 유물체험관등이 있는데 학교의 역사탐방이나 가족단위 탐방지역으로 권장할 만하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말하자면 신라문화권(경주)과 백제문화권(부여)과 가야문화권(김해, 고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다음에는 산림녹화 기념숲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산림하면 역시 강원도가 제일이다. 하지만 잘 관리해야만 빛을 발휘할 수 있으며 수십년이 지나야 완성될 수 있는 산림자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행정관청에서 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보면 우리고장도 타지역보다 얼마든지 각광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원이란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하루일정을 마칠 무렵 해는 어두워져 부곡 하와이 온천장으로 숙소를 정하고 저녁식사에 소주 몇 잔 곁들이고 내일 일정을 기대하면서 잠을 청해본다.

다음 날이 밝아 아침식사 후에 오래 전에 외뵈던 부곡온천을 다시 찾아 망중한을 즐기며 온천욕을하고 경북 창녕군으로 향했다.

비화(非火)가야가 융성했던 창녕은 대가야와는 달리 도심평지에 능이 있었으며 순장(殉葬)제도와 유물은 대가야문화와 대동소이했다. 다만 왕릉에서 가까이 석빙고(石氷庫)가 있었는데 타원형의 무덤과 비슷하였고 내부에는 큰 돌로 벽을쌓고 돌로 뚜껑을 덮은 후에 그 위에 많은 흙을 쌓아서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시켰던 점이 대단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수있었다. 가야역사가 서기532년에 신라법흥왕에게 양국(讓國)한 것으로 보아 1,800년전에 벌써 자연냉장고를 사용했다고 하니 이 또한 놀라운 사실이다.

창녕 하왕산기슭에서 눈에 띄이는 것은 산토끼 노래였다. 초등학교 1학년때 누구나 불렀던 산토끼 노래가 이고장 이방초등학교에 계셨던 이일래선생께서 1928년 일제강점기에 지으셨다고하니 새삼스럽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고 영향이 중대한 지를 느끼게 한다.

다음에는 우포늪으로 향했다. 우포늪은 약 70만여 평으로 1억 4,000년전의 상태가 보전된 곳이라고 하니 이 또한 놀라운 사실이다. 우포늪은 여름 장마철이 되면 낙동강물이 역류하여 물이 가득차고 어류 또한 많이 모여든다고 한다. 국내 습지중 가장 크고 오래된 자연늪으로서 1997년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99년에 다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가 인정될 만하다.

습지에는 철새는 물론 어류 곤충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식물등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이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이지는 않았지만 철새들의 대합창이 우포늪을 떠들썩 하도록해서 황성문화원 탐방객을 반겨 주는구나 생각했다. 창녕의 우포(牛浦)늪은 2011년부터 세계자연유산의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멀지않아 기대해 볼 만하다.

문화탐방 일정은 이쯤해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잘알지 못했던 대가야 문화를 대략적으로 재조명해서 바로아는 것이 이시대 문화인의 궁지일 것이다.

김수로왕의 금관가야를 포함한 6가야는 정치나 문화적으로 상호교류하면서 금관가야를 패왕(霸王)으로 받들고 동쪽으로는 신라와 서북쪽으로는 백제를 견제하면서 서기42년부터 532년 제10대 양왕(讓王)이 신라 제23대 법흥왕에게 양국(讓國)하기까지 491년간 가락국을 다스렸던 반면...

이진아시왕(伊珍阿鼓王)의 대가야는 수로왕의 형님이라고 전해지며 단독으로 고령군에 도읍하여 서기42년부터 562년 제16대 도설지왕(道設智王)이 신라 제24대 진흥왕에게 병합되기까지 가락국보다 30년을 더 지나서 520년간을 통치하였다고 하니 훗날 고려474년 조선 518년 보다 더 오랜 역사임을 알 수 있다.

가락국이 쇠락한 이유는 첫째 신라의 법흥왕과 진흥왕이 공략에 나섰고 둘째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공주)으로 또 웅진에서 사비(부여)로 성왕 538년에 천도하여 가락을 압박하였고 셋째 고구려가 400년에 광개토대왕의 남정(南征)으로 국력이 쇠약할 무렵 대가야는 낙동강 서쪽에서부터 섬진강 유역까지 국토를 확장하여 후반기에는 가락국보다 대가야가 융성한 전성기를 맞았다가 30년을 더 지난 후에 멸망했다. 아마도 날로 강성해지는 대가야를 동쪽과 서쪽에서 신라와 백제가 위협했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로서 지리적 불리는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기록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가락국(양왕讓王)은 양국(讓國)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가락국의 왕족들이 신라에서 대우받고 벼슬하게 된다는 점이다. 양왕의 아들인 무력(武力)은 각간(角干)벼슬을 하고 무력의아들 서현(舒玄)은 양주(梁州)도독을 지내고 서현의 아들 김유신은 삼국통일을 한 뒤에 신라 제42대 흥덕왕으로부터 흥무대왕 시호까지 받게 된다. 또 신라 제30대 문무왕(법민)은 가락왕실의 외손임을 자랑하면서 가락의 능침(陵寢)보호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졌으며 신라조정에 가락후예들은 화랑도로 활약하게 된다.

그러나 대가야의 마지막 도설지왕(道設智王)은 진흥왕에게 항복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신라조정에 벼슬한 기록이 별로 없는 듯하다. 두 왕조내력이

다른 것으로 보아 금관가야와 대가야는 두 개의 다른 나라로서 30년 먼저 신라로 귀속한 금관가야 후예들이 대가야를 외면하지 않았나 의문시되며 아마도 훗날 일연국사가 삼국유사를 기록할 때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또 다른 역사를 배우게 된다. 예로부터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씌어 진다는 점인데 그러나 영원함이란 인간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교훈으로 삼기 위함이다. 잘한 것은 본받고 못한 것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엄연한 사실을 필요로하는 이유이다. 옛말에 물길도 10년이면 원래의 물길을 찾는다고 하므로 역사의 물결도 언젠가는 정도로 흐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역사 바로세우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황성문화원의 대가야 문화권 비교답사를 다녀와서 가락국(6가야)외에 또 다른 왕조대가야국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되어 그 동안 역사에 너무 무지했었나 부끄러운 생각을 하면서 감히 역사를 기록하는 분들에게 신중하고도 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춘추필법의 중요성을 이제나마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중국 한나라때의 사마천(사기)과 송나라때의 사마광(자치통감)이 새삼 존경스럽기만 할뿐이다.

※ 참고 삼국사기는 고려인종(1142년경) 유학자 김부식저서로서 왕조내역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삼국유사는 고려충렬왕(1280년경) 승려 김일연저서로서 불교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 강원도 횡성 역사 탐방

이 미 래 (대동여중)

우리는 학교에서 해주는 역사탐방을 신청을 했다. 그리고 5월6일 역사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5월7일 날 간다고 하셨다.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 이유는 수업을 안하는 것도 있지만 횡성에 있는 역사를 둘러본다는 것이 더 좋았다. 나는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신나있었다. 그리고 그다음날 5월7일 드디어 횡성 역사 탐방을 가게 되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웃은 무엇으로 입지?” 하면서 아침에 한참 고민도 하였다. 관광버스를 타고서 역사탐방을 같이 가게 된 가이드님처럼 같이 역사탐방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관광버스를 타고 횡성에 있는 역사를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강림리 의병총을 갔다. 강림리 의병총은 민공호 의병장이 이끄는 60명의 의병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1908년 2월 29일 원성군 소초면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 중 패하였다. 이 병사들은 치악산을 넘어서 월현리 하비고덕 허씨의 집에서 머물던 중 이 지역의 사람의 밀고로 영월지역의 관헌과 일본군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앞에 흐르던 주천을 배수진으로 쳤던 민공호 의병장 휘하의 의병들은 불의의 기습에 허를 찔려 분전하다가 5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의병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후에 이들 5명의 전사자와 사망한 주민들의 장례를 몰래 치르고 이곳 강림리 강림중학교 옆의 산에 묻었다는 이야기였다. 이 무덤에도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나는 그 역사가 평범하다고 느꼈다. 그다음에는 강림면에 가서 ‘태종대’ 를 봤다. 태종대는 태종이 쉬어갔다고 태종대라고 하였다. 나는 횡성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태종대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다음으로 봉복사를 올라가기 전에 횡성 신대리 삼층석탑을 봤다. 원래는 5층탑이었는데 3층탑으로 변했다고 했다. 삼층석탑을 보고 나서 봉복사를 갔다. 봉복사는 신라 선덕여왕 16년인 647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나는 절에 다니지만 내가 아는 가장 오래된 절이 됐다.

그 다음에는 점심을 먹을 겸 횡성의 옛터 전시관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횡성의 옛터 전시관은 오래된 물건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중금리 삼층석탑을 볼 수 있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전통자기도공에 갔다.

전통자기도공은 1989년 5월 1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장송모도자연연구원 주인인 장송모 선생님께서는 폐교 터를 활용하여 장송모도 자연연구원을 만들었다. 장송모 선생님께서는 도자기 전시와 도자기 교실을 만들었다. 장송모도자연연구원을 둘러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풍수원 성당에 가게 되었다. 풍수원 성당을 많이 지나다녔는데도 풍수원 성당에 대한 역사를 모르고 있었다. 횡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천주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그것은 이곳이 초기 천주교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마을이기 때문이다. 풍수원 성당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건축된 성당이며 전국에서는 4번째로 건립된 건축물로, 강원도 천주교의 방상지이며 한국천주교사에 전기를 마련한 성지로 1세기 가까운 풍상 속에서 의연히 복음을 전파한 도내 고딕식 벽돌양식 건물의 효시이기도 한 유서 깊은 곳이다. 1801년의 신유박해 이후 1802년 혹은 1803년경에 경기도 용인에서 신대보를 중심으로 하여 40여명의 신자들이 8일 동안 피난처를 찾아 헤매다가 정착한 곳이 풍수원으로, 이곳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이었다. 나는 풍수원 성당을 몇 번 씩 왔지만 이런 역사는 처음 알았다. 나는 신기한 역사를 알았다.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풍수원 성당에가서 십자가의 길을 갔다.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기도 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지은

풍수원 성당에 새롭게 만든 박물관에 가서 구경도 하였다. 시간이 된다면 나 혼자라도 횡성에 있는 역사에 관한 곳은 한번씩 모두 둘러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이드님에게 배운 역사를 우리 가족들에게 차근차근 설명도 해보고 싶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2015년 5월 9일

3학년 3반 17번 이미래

## 향토문화유적 답사 소감문

김 범 현 (안흥고등학교2학년)

문화의 날을 맞아 학교에서 우리 횡성지역에 위치한 문화유적을 답사하였다. 출발하기에 앞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다니며 보충설명을 해주실 가이드선생님의 소개가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횡성군(안흥·우천·공근·둔내·갑천·청일·횡성·서원·강림) 9개 읍·면 중 서원면, 공근면, 횡성읍, 갑천면, 우천면 이렇게 다섯 지역을 선정하여 답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갈 향토문화유적 관련 소책자를 보니 횡성에 살면서도 존재의 유무를 전혀 알지 못했던 문화유적들이 너무 많았고 이번 기회에 문화재지킴이단으로서 내가 살고 있



는 지역의 문화재, 문화유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시간을 내어 꼭 환경청소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먼저 우리는 서원면에 위치한 풍수원 천주교회에 도착하였다. 풍수원은 순조 때의 신유박해, 고종 때의 병인, 신미양요로 탄압받은 신도들이 눈을 피하기에 알맞은 이 곳에 정착하여, 화전과 토기점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성당을 짓기 위하여 산에 올라 나무를 자르고 가마에서 벽돌을 굽는 등 땀과 정성을 봉헌하였다고 한다. 또한 풍수원 성당은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자 한국인 신부가 처음 지은 성당으로 그 보존적 가치가 높아 1982년에 지방문화재 제 69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중세 서유럽에서 유행한 미술 양식인 고딕양식의 영향 때문인지 그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아담하고 깨끗하고 예뻐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공근면에 위치한 장송모 도자연구원을 방문하였다.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에 있는 “창봉초등학교를 개조하여 1989년에 만든 연구소로 전시관에는 각종 토기를 비롯하여 청자, 장송모 선생이 직접 만든 백자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일부 제품은 구입도 가능하다고 한다. 길 통로에는 장송모 선생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활동을 해 오시던 모습들의 사진을 전시한 곳으로써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과 각계각층의 요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 강연을 한 사진, 훈장을 수상한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이런 사진을 보시고 선생님께서는 감회가 새로우신지 사진 한 장 한 장을 집으면서 그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도 곁들여 주셨다”. 연세도 많으신 듯 한데 작품이나 사진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였다?. 도자연구원의 한 편에는 조그마한 종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도자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의아한 생각으로 선생님께 이 좋은 무엇인지 여쭙 보았더니 이 좋은 단국대학교 박물관장이신 정영호 선생이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하셨다. 궁금해서 집에 와 검



색을 해보니 이 종은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을 축조하여 만든 것으로 이 종을 제작하신 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이신 원광식 선생님이라고 한다. 장송모 선생님께서 직접 타종을 하셨는데 크기가 작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은은하고 맑은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횡성읍내에 위치한 3.1공원과 횡성향교에 도착하였다. 공원 입구 좌측에는 지방문화재 22, 23호인 읍하리 삼층석탑과 석불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김준수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 주셨다. 석불을 자세히 보면 코 부분이 상당히 깎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불상의 코를 갈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긁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공원을 지나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횡성향교를 답사하였다. 향교는 조선시대에 각 지방에 설치된 국립 교육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던 곳이라고 한다.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본연의 모습으로 잘 보존되고 있었고 작은 지역이지만 관리자와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엿볼 수 있었다.



향교 맞은편에는 향교웨딩홀이라고 예식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오래 걸었던 탕인지 김밥과 단무지와 요구르트의 조화가 정말 예술이었다.

마지막으로 우천면 정금리에 위치한 정금향토사료관에서 정금마을에서 전해오는 민요인 횡성회다지소리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횡성회다지소리는 독특한 기능 민요로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악에 특히 관심이 많은 나에게는 내용이 무척 흥미로웠고 기회가 되면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께 배워서 뉴스프링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다. 한편 황성회다지소리는 현재 강원도에 살고 있는 예능보유자 양중하 씨가 지금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기만 했던 곳이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고 황성사람인데 황성을 답사한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적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앞으로는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문화유적의 가치를 마음 속에 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뜻 깊은 시간 마련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사진자료 네이버]

## 향토문화유적 답사 소감문

진정민 (안흥고등학교)

\* 일시 : 2015년 5월 26일 (화)

\* 주제 : 횡성군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 1서원면** 풍수원천주교회 → 금대리 의병총, 압곡리 왜가리번식지, 취석정, 옥계리 경주김씨 효열비각, 칭촌리 경주이씨 정려각
- 2공근면** 장송모도자연구원 → 상동리 석불좌상 E3층석탑, 육절러, 부창리 유봉수 청원각, 학담리 정현구 효자정려문, 도곡리 6.25전몰장병 위령비
- 3횡성읍** 읍하리 석불좌상·3층석탑 → 3.1공원 → 횡성향교 (3.1운동기념비,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충훈탑, 오우덴중령현충비, 태풍루,횡성성당) → 운암정, 세덕사;문정공 조충지석
- 4갑천면** 구방리망향의동산, 중금리 3층석탑 → 공양공 김관영정, 매일리충훈비, 최양옥지사 공적비 E묘소,김순이여사 묘소, 중금리 이원빈 E이풍용 효자문, 포동리 강릉김씨 정려문, 추동리 광채상정문, 박양혁 효자비, 대관대리 원주원씨 열녀정려문, 전촌리 원주이씨 효부비
- 5우천면** 정금향토사료관;횡성회다지소리 → 횡성참전전우기념공원 → 한얼문예박물관, 한상열의사 추모비

어제 고등학교 전교생이 향토 문화 유적지를 갔다 왔다. 맨 처음으로 갔던 곳은 횡성풍수원천주교회다. 이 풍수원천주교회의 위치는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097 번지이고, 이 유형 문화재 지정번호는 도유형문화재 제 69호이고 지정 날짜는 1982년 11월 3일이다. 중학교 2학년 때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갈 때 마다

힘들었다. 하지만 천주교회를 보면 힘들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다. 하나 하나 벽돌을 쌓아올려 그런지 교회가 되게 예쁘고 외국에 있을 것만 같은 교회인 것 같다. 또 그 밖에 있던 거대한 나무가 108년이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신기하고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풍수원천주교회 말고도 읍하리 석불좌상 3층 석탑과 3.1공원, 황성향교, 구방리 망향의 동산, 중금리 3층 석탑, 황성회다지소리, 황성 참전전우기념공원도 다녀왔다. 사실 다 가봤던 곳이 어서 업잖아 떨떠름하긴 했지만 한 번 더 가보고 설명도 한 번씩 더 들으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처음으로 가본 곳이 있다면 황성군 공근면 창봉리 533번지에 위치하고 도무형문화재 제 6호 장송도모자연구원 (전통자기도공)이었다. 사실 나는 유형문화재만 봤지 무형문화재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 성함은 장송모 선생님이시고 도자기 만드는 기능 보유자이시다.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예쁜 도자기들이 얼마나 많던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집에 하나 가져오고 싶었다. 그 정도로 예뻐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도 받았다. 전통자기도공을 갔다 오고 정말 남자친구랑 한 번 도자기를 꼭 만들러 가보고 싶다. 물론 남자친구가 없는 게 함정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가봤지만 그래도 제일 재밌었던 곳은 황성댐이다. 향토문화 유적지는 아니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황성댐을 적었다. 일단 황성댐을 보고 정말 우리 나라가 가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이 2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어서 조금 충격이었다. 또 2층 영상관에서 본 UCC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물 부족 국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물을 아껴야겠다는 반성도 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나의 몸에 있는 물 양을 재는 물 몸무게(?)가 있었는데 보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와서 매우 아쉬웠다. 어쨌든 날씨가 덥고 멀미도 나고 컨디션도 안 좋았지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들린 것 같아 좋았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한 것 같아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 그곳에 횡성이 있었네.

황동원 (민족사관고등학교)

2015년 10월 31일, 가을 하늘이 청명한 어느 날 민족사관고 19기 전원이 횡성군수님의 초대를 받아 횡성 한 바퀴 여행을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썩 내키진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를 횡성 거주민인데 학교 외 횡성 지역에 있어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군수님의 성의가 고 마워서 나를 대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학생의 관점에서 그렇게까지 흥미롭게 볼 게 많은 여행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집 주변으로 가볍게 소풍 한 번 갔다 온다는 느낌으로 돌아다녔더니 재미있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강림면에 있는 태종대였다.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생긴 바위 뒤편에 멋진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 태종 이방원이 운곡을 기다리며 머무른 곳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며 보니 재미있었고 이토록 오래된 유적이 아직도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사실 역시 놀라웠다.

이어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노구소와 강림의병총을 들렀다. 강림의병총에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있었다. 국권침탈 전 1908년에 민공호 의병장이 의병 60명과 함께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한 적이 있는데, 치악산을 넘어 한 집에 머물다가 주변인의 밀고로 일본군의 기습을 당해 다섯 명이 전사했다. 의병총은 이때 나라를 지키려 일본군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의병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향해 묵념하고 돌린 발걸음은 그 분들이 짊어지셨던 책임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렇게 또 버스로 이동하니 반가운 풍수원성당이 보였다. 여름에 학교 선생님과 한 번 와 본 적이 있으니 풍수원성당으로의 두 번째 방문이었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성당이나 사찰 같은 곳은 좋아한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그 중에도 풍수원성당은 좀 특별한 성당이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며, 그 중에도 한국인이 지은 것으로는 최초이기 때문이다.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나는 그 중에도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공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석 상에 새겨진 따스한 표정을 보니 내가 마음 속에 담고 있던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 했다. 성당 주위에는 우리의 멀지 않은 조상님들이 쓰시던 물건도 구경할 수 있었다. 그중 실 감는 기계가 아직도 머릿 속에 남는데, 나무로 만들었음에도 무척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성당 답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횡성댐에 갔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었다. 48.5m의 높이를 가진 이 댐은 연간 무려 8850만 톤의 각종 용수를 공급한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의 높이를 조절하고,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도 생산한다고 한다. 댐도 댐이지만 나에게서는 맛있는 점심이 더 소중했다. 김밥과 잔치국수가 나왔는데, 잔치국수가 정말 맛있었다. 날씨가 추워서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한 그릇을 비우고 더 받은 육수까지 깨끗하게 먹어치웠다.

점심을 먹은 뒤 구방리 망향의 동산과 중금리 3층 석탑을 방문했다. 중금리 3층 석탑 주변에는 원래 거대한 사찰도 있었는데, 도둑이 하도 많아서 신라 시대에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또, 임진왜란 도중에 왜군이 불태웠다는 설도 전해온

다. 지금은 두 기의 탑만 남아있는데, 이중기단 위에 세워진 석탑으로 동서 양 탑이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 이 중 동탑은 일제강점기에 손상되어 복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복구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어서 봉복사와 신대리 3층 석탑을 방문했는데, 절 마당을 천천히 걸으니 고뇌가 한 가닥 한 가닥 풀리는 기분이었다. 평소에 들리던 고속도로의 자동차 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새들만 조용히 지저귀는 산속에서 어떤 사람은 겨울을 나기 위해 창틀에 창호지를 직접 바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솔솔 부는 마루에서 조용히 명상하고 있었다. 건물 역시 아름다웠는데, 기와의 색이 너무나도 섬세하고 온전하게 잘 남아있었다. 며칠 전에 지은 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생긴 황성 산골짜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분위기가 망가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정금민속관이었다. 영상실에 들어가서 황성 회다지 소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회다지소리란 장례행사 중 망자를 금정에 묻고 묘를 조성하기 위해 사역자들이 회를 섞은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느린 가락으로 시작하여 점점 빨라지며 나중에는 흥을 돋우는 메나리조로 바뀌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루한 초반부 위주로 본 것이 좀 아쉬웠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극락왕생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는데 그 내세관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황성이라는 지역

만의 특징적인 느낌이 가락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재미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친하면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이런 의례를 치러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럽기도 했다.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회다지 소리를 직접 보고 들어보면 사뭇 느낌이 다를 것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시간의 여행이었다. 황성이라는 지역이 하루 만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진 않지만, 대충으로라도 이 지역이 어떤 곳이고,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좋은 기회였다. 아무 것도 없는 산골지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라 시대까지 뻗어 나가는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었다. 이처럼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며,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이 우리나라 어디에 또 있을까. 이런 곳에서 짧게나마 고등학교 시절 삼 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졸업한 뒤로도 종종 친구들과, 가족들과 찾게 될 것 같다.

## 횡성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수기

송서현 (민족사관고등학교)

나에게 주말은 주중에 쌓인 피로를 풀고 활력을 재충전할 황금 같은 시간이다. 그런데 횡성 문화 탐방 일정이 10월 31일, 토요일에 잡혀 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매우 속상했다. 자유로운 주말 중 하루를 통째로 빼앗겨 버리는 것만 같아 불만이였다. 게다가 나는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활동들을 좋아하지 무언가를 관람하고 감상하는 소극적인 활동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후자에 속하는 이번 탐방에 별 다른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번 탐방은 초반에 불평하고 애써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나를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안겨주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태종대와 노구소였다. 태종대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의 스승이었던 윤곡 선생을 찾는데, 윤곡이 관직 제안을 피해 숨는 바람에 해낸다. 태종대는 이 때 태종이 잠깐 쉬어간 누각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웅장한 필체로 太宗臺라고 바위에 새겨 강 옆 산속에 배치해놓았다. 백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그 당시 선조들이 정성스레 새겨놓은 세 글자를 보는데 맘이 너무 울렸다. 살갓이 떨리는 어두운 새벽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 선명하고 약간은 낡은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 글자가 뿜어내는 엄청난 웅장함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노구소는 태종이 윤곡의 행로를 물었을 때 거짓을 고한 노구 할머니가 후한이 두려워 자살을 한 연못인데, 연못의 바위에도 '노구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했다. 당시 기계도 없이 손으로 한 자 한 자 새기

는 그 정성이 글자에 그대로 묻어나 마음을 울렸다.

그 다음은 횡성지역에서 의병활동 중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한 의병장들의 무덤인 강림의병총을 방문했다. 강원도가 의병의 중심지였다는 설명에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무덤이 간소하게 만들어져 있어 큰 감흥을 얻지는 못했다. 반면 그 다음 목적지였던 풍수원 성당은 매우 인상깊었다. 기독교인 나는 유럽여행을 할 때 유명한 성당들을 방문했던 걸 제외하면 살면서 성당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서 한국 성당들은 어떤 식으로 생겼는가 알지 못했다. 풍수원 성당에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 미사 중이라는 이유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창문으로 언뜻 들여다 본 내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온해보였다. 강원도가 천주교 포교의 중심지여서 천주교인들이 모여 살다가 이 성당을 짓게 되었다고 했다. 건물 외관은 서양식이었는데 당시 성도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쌓아 완공했다고 했다. 마치 기계로 쌓아올린 것만큼이나 깔끔하고 현대적이어서 깜짝 놀랐다. 또,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맑은 공기와 평온한 자연이 내 맘을 평안케 해주었다.

여기서 걸어 내려와 우리 선조들의 생활용품과 유품들을 모아 둔 박물관에 들었다. 총 2000여 종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두 점을 제외하고는 유리에 담겨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어 박물관에서 보는 것보다도 실감이 났다. 선조들의 생활, 바로 조부모 세대들이 영위했을 삶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평생에 걸쳐 그렇게나 많은 유물을 수집하시고 전부 기증한 뒤 전 재산을 투자해 전시관을 세우신 관장님도 매우 대단해보였다.

날씨가 워낙 추웠던 데다 걷기도 많이 걸어 배도 무척 고프 찰나에 횡성댁에 들러 점심식사를 하였다. 따뜻한 잔치국수와 김밥은 말 그대로 꿀맛이었다. 배 불러 먹은 후 소화도 시킬 겸 기분 좋게 횡성댁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올라갔는데, 나는 또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생각했던 댁은 육중한 무게를 과시하며 쿵쿵 쏟아지는 물을 한 가득 품고 있는 저수지였는데, 나를 기다



리던 댐은 정반대로 고요하고 잔잔했다. 물은 마치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정지해 있는 것 같았고 웅장한 댐과 자연에 순응하는 것 같았다. 적막에 가까울 정도로 고요한 물과 자연은 다시 한 번 내 마음을 평안의 웅덩이로 빠뜨렸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감상하고 관람하는 소극적인 활동은 꺼려왔는데, 이제야 왜 사람들이 자연 경관 보기를 즐기는지, 자연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지 이해가 갔다.

이후에도 댐을 건설하면서 수몰지역이 된 구방리 망향의 동산, 그리고 그 곳



에서 가져와 복원한 중금리 3층석탑을 답사했다. 구방리에 관해 얽힌 두 가지 설화가 있었는데, 너무나 흥미로웠고 어떤 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가이드 선생님께 여쭙봤더니 무척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새벽부터 나와 많은 학생들을 인솔하며 들르는 장소마다 목 아프게 설명하시느라 누구보다도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도 정성스레 답해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다.

답사의 마지막 코스는 정금 민속관에 가서 횡성 회다지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회다지 소리는 장례 의식으로 횡성 회다지 소리는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영상으로 보는데도 매우 실감 나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전통 장례 문화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곡소리가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암울해서 답사의 마감이 적적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답사는 적극적 활동에만 의미를 부여했던 나에게 우리 문화를 탐방하는

활동이 비록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또 따분하게 느껴질 우려가 분명 있지만, 충분히 가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또, 내가 본 문화재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소중한지를 떠나서 단순히 내가 이번 답사를 통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답사는 뜻깊었다고 할 수 있다. 황금 같은 주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황금보다 더 소중한 답사였고, 이후에 여유가 생긴다면 또 다시 황성의 문화와 자연들을 곳곳이 찾아다니고 싶다.



## VI. 문예마당

\* 시 - 가을 I, II | 진광수

\* 시 - 새벽안개 | 김은주

\* 수필 - 논배미 집 | 최보정

\* (故)이연승선생추모비설립 18주년기념 글짓기대회

→ 동시 | 모두의 해님

→ 산문 | 거울



# 가을 I



진 광 수  
(2011년 11월 월간모던포엠시인등단)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누가 했나

가냘픈 마음은  
낙엽 되어  
방황하는데

봄바람  
노랑나비 미혹에  
창 열고 나와

작열한 뜨거움에  
눈물 흘리길  
서른하고도 예순 날

서늘한 입김에도  
함께 하길 바랐건만

이제는  
어둠의 유혹  
예순하고도 서른 날

## 가을 II

하늘 높고  
말 살 찢다해  
천고마비라고  
가을 찬양하기에

우리도 좋아  
색동옷 갈아입고  
여름내  
우리 품에 안겨

고운 노래 들려주던  
많은 친구 불러  
가을잔치 벌이려 했는데  
그 고운 목소리 주인공들  
어디로 갔나

색동옷 보고  
불이라도 난 것으로 착각  
겉이나 도망이라도 간 것인가

푸른 하늘에 밀려온 추풍  
숨겨 달라  
옷자락 흔들어대며

동장군 따라온다  
빨리 도망가자 하니

귀뚜라미 은하수  
밤하늘 쳐다보고  
숨어있는 백설공주 보았는지  
가을은 외롭다고  
밤새워 울어대네



## 새벽안개



김은주  
(2010년모던포엠등단)

밤이 떠나며  
회색 한숨을 가득 토한다  
머물다 가기가 못내 아쉬워  
굽이굽이 뿔어낸 그 숨결로  
하얗게 덧칠하다 미처 끝내지 못하고 갔으니

밤이 고독하여 숲을 안고서  
이렇이렇 뒤척이다 심장만 깨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떠나지 못하는 깊이로  
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뒷걸음쳐 밀려 가는데

그 흔적은 촉촉한 물기로 젖어  
사랑하자 다시 사랑하자  
떠나 있어도 떠날 수 없음에  
너머에 고여 있다가  
모르게 오리

# 논배미 집



최보정  
(횡성시농승회 회장)

파란 하늘이 구름 꽃으로 채색된 어느 한낮, 가까운 지인이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뵙고 싶다고 넌지시 말을 건넸다. 함께 길을 나섰다. 두 눈은 이미 들판에 젖어 마음 가득히 동심의 미소가 배어 나온다.

큰 길을 따라가다가 길모퉁이를 돌아서자 푸른 논들이 짙게 펼쳐진다. 야트막한 산 아래로 밭도랑이 흐르고 널따란 논 가운데에 하얀 집이 한 채, 서 있다. 축대를 쌓아 꽤 크고 높다.

사방은 벼이삭이 속속 나온 가을 녀 들판이다. 진입로만 밭도랑을 따라 셋길처럼 이어져 있다. 참깨 꽃이 분홍초롱을 매달고 논두렁콩처럼 줄지어 서 있다. 틈새마다 논두렁에서 올라온 가녀린 분홍메꽃이 시집간 딸처럼 드문드문 피어 있다.

길의 끝은 나무계단과 연결되어 넓은 정원으로 이어져 있다. 마치 푸른 바다 위에 솟아난 흰 바위섬 궁전 같다. 아니나 다를까 예사롭지 않은 동판이 문패 옆에 나란히 붙어 있다. '자연경관이 좋은 우수주택 상' 이라는 색다른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다.

반갑게 맞이하는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지인은 어머니와 긴히 나눌 말이 있는가. 빈 방으로 들어갔다. 명절에 오는 자식과 손자들을 위하여 빈 방이 여러 개 있었다. 조용히 뒷 베란다로 나가 바다같이 펼쳐진 벼 포기를 바라보고 서 있다. 생각은 빛보다 빠르다더니 어느 곁에 오십 년 전의 추억 속으로 나를 데려다 놓는다.

내가 태어난 곳은 논 가운데 집이었다. 아예 사람들은 논배미집이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논두렁처럼 논이 한 부분이라는 뜻일 게다. 까마득히 어릴 적 친구

들은 “넓은 논 가운데 너네 집 하나 달랑 있었지.” 그렇게 말하곤 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정겹게 그리워지는 집이다.

아침이면 뽀얀 안개 속에서 뒤란으로 돌돌돌 흐르는 붓 도랑물에 세수하고, 동동 떠오르는 연둣빛 개구리밥을 건져내거나 한참씩 우렁이도 만지곤 했다.

두 발을 담그면 어찌나 차갑던지 양말을 신고 푹땡거렸던 곳.

늘 공간이 없어 늘 엄마를 병아리처럼 졸졸 따라 다녔다.

생각도 없이 벼이삭 쪽쪽 빼서 입에 물고 자근자근 씹으면 가만히 손잡고 실뜨기를 해주시던 다정했던 어머니. 심부름삼아 파 한 줄 호박 하나 따오면 온몸이 움쭉움쭉 벼이삭에 쓸러 빨간 회초리줄 생기던 곳이다. 삼촌이 학교 갔다 오면 함께 메뚜기 잡다가 남의 집 벼를 망가뜨려 논 주인에게 혼나고 이사 가자고 떼쓰며 울던 집, 야단맞고 화가 난 삼촌이 서툰 낫질로 그 집 벼를 몽텅몽텅 잘라버리는 화풀이를 했다. 아버지는 논주인집에 불려가 손해의 대가代價로 품을 팔아야 했던 집이기도 하다.

철부지였음에도 아버지를 붙들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졸라댔던 그런 집이다. 그때마다 미군부대가 철수해야 그 곳에 집도 짓고 학교도 다닌다고 나를 달래고 달랬다.

얼마 후, 미군부대가 이사를 하였는지 우리는 초등학교 앞으로 이사를 했다. 마루에서 학교운동장이 훤히 보이는 큰 집이었다. 넓은 마당이 생겨서 신이 났었다. 한 번씩 마당을 쓸라치면 할아버지는 큰 대비를 드셨고 할머니는 싸리비를, 나는 몽당수수비를 들었다. 그 마당에서 깨도 털고 콩도 털고 벼 타작도 하였다. 또한 새로 사귄 친구들과 고무줄 사망치기 온갖 씨레질을 했다.

밤이 되면 모깃불을 피워놓고 아이들 노래자랑도 했다. 하지만 넓은 집에 이사 오면서 어른들은 몹시 바빴다. 삼촌도 밖으로 나다녔고 엄마는 두서너 배 더 바빴다. 미군부대가 철수하여 집안일에 농사일에 치여서 마주 대할 시간이 없었던 게다.

어른들은 모두 내 땅을 찾아 의기양양 삶의 보람이 있는 듯이 살림살이에 활기가 넘쳐났다. 하지만 나는 서서히 엄마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이 되었기에 엄마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수 없게 되자 난데없는 고독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또 때맞춰 동생도 태어나고 사랑을 빼앗긴 외톨이가 되어 뒤꼍 앵두나무 아래에 앉아 괜한 생각으로 짙끔거리곤 했다. 괜스레 더욱더 옛집을 그리워하며 엄마 품을 그리워했다.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버덩에 있는 큰 집도 왠지 눈 가운데 집 보다 못마땅해졌다.

내게 있어 가장 즐겁던 시절은 논배미의 작은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비좁게 살 때 그때였지 싶다.

그랬다, 그 곳에서는 아주 행복했다. 우렁이가 논바닥에 질펀했던 넓은 논 버덩 한가운데에 오뚝이 서있던 우리가 살았던 작은 집 부모님에게 사랑을 담뱃받던 그 집, 봄여름이면 초록경관이 되고, 가을이면 황금경치가 펼쳐지던 옥심없이 살던 논배미의 옛집이 그림자다.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던 나였기에 마냥 붓물 따라 흘러가면 너른 집에 당도할 거라 여겼던 것이 참으로 무망한 노릇이었다. 마치 어린소년이 공습 속에도 축구공을 옆에 끼고 몇 평의 축구장을 염원하는 그 모습이었다.

이제 나는 논배미 집에서 살았던 것이 자랑스럽다. 한 번도 내색한 적 없이 속으로만 간직했던 공간, 그 얼마나 때 묻지 않았던 순수한 삶이었던가

그리움에 젖어 동판에 새겨진 글을 다시 읽어본다.

\* '자연경관이 좋은 우수주택' 그것은 겉모습 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주변 일대는 단 한 번도 농약을 치지 않은 친환경적인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토였다. 우렁이 일꾼이 평생을 바쳐 벼 포기를 지켜주는 친환경 인증마을이었다. 그 곳은 현대인의 다양한 주거공간 속에서 새로이 등장한 논배미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제라도 그런 집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 식물로 둘러싸인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곳에서

\* 자연경관이 좋은 우수주택은 원소춘할머니 집 (횡성읍 마곡리)

## 거울

박수연  
(횡성초등학교 6-매화)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슬플 때, 화날 때의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주어 가끔은 나를 부끄럽게 하고 가끔은 나의 모습을 되돌이켜 보게 하는 거울은 작고 소박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단순히 모습을 비추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거울을 그런 일만 하는 단순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습, 나의 사사로운 비밀까지도 드러내놓고 보여줍니다.

거울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더러운 모습과 깨끗한 모습을 같이 보여줍니다.

학교의 왕따 문제, 어른들의 싸움, 정치인들의 전혀 신사적이지 않은 토론회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자신의 분야에서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멋진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비춰줍니다.

누군가는 거울을 보고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거울을 보고 후회를 하고 새롭게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거울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모두 이해하고 용서해줍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고 무엇이든 이해해주는 거울을 보면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용기가 생깁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속이 후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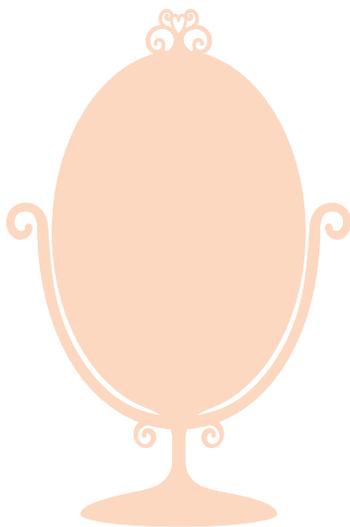
해집니다.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상상한 이야기를 하면 거울은 잠자고 듣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두가 엉뚱하다고 하는데 거울은 압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말하지 않아도 거울은 알고 있습니다.

거울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와 친한 소중한 특별한 친구입니다.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그만큼 소중한 특별한 나의 친구의 이름은 거울입니다.

가끔은 숨기고 싶은 비밀까지도 드러내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은 친구 오히려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더 편한 친구, 거울! 나는 이 친구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모두에게 예쁜 모습, 나쁜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폭력 없는 세상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모두의 해님

박지현 (수백초등학교 6학년)

매일 아침  
소리없이 찾아와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콧등에  
한 줄기 햇살

보글보글 아침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손등에도  
한 줄기 햇살

허겁지겁 바쁘게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땀방울에도  
한 줄기 햇살

짹짹 지저귀는  
참새의 눈망울에도  
한 줄기 햇살



허겁지겁 바쁘게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땀방울에도  
한 줄기 햇살

고개 빼꼼 내민  
어린 잎의 이슬에도  
한 줄기 햇살을 내려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두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고도 남은  
사랑으로는  
우리 모두를  
저 위에서  
포근하게 품어 줍니다

그 햇살 속에서  
우리는 밝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p><b>공지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 발간예언을 위한 "국역(국역)"</li> <li>황성문화원 불교회 "2014 회향대회"</li> <li>2015년 황성문화원 창도문화제</li> <li>황성문화원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li> <li>2014년 황성문화원 새해맞이 행사</li> </ul>	<p><b>황성의 역사</b></p> <p>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궁엔 황성의 역사를 지켜 볼 수 있습니다.</p> <p><b>황성문화원</b></p>
<p><b>문화행사</b></p> <p>문화행사</p>	<p><b>문화학교 강좌소개</b></p> <p>고궁에서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학교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주 동안 수강 가능합니다.</p> <p><b>문화학교</b></p>

# VII. 문화원 소식

\* 2015년 문화원 사업실적  
\* 문화원 회원명부

# 2015 문화사업실적

## 지역사회문화사업

### ♣ 전시회

- 2015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12.16. ~ 18. / 문화관전시실)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배운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전시회를 가졌다.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를 일년동안 배우고 익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과 큰 호응을 받았다.



### ♣ 음악회

- 2015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음악회" (12.02. / 황성문화관)

모던팝스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황성군민과 대입 및 취업 수험생들을 위한 2015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나눔음악회"가 열렸다. 이번에 진행된 화려하고도 가득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만의 사랑이며 연주프로그램 또한 클래식에서 팝송,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가수 김현민, 세대가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다시 한번 음악의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멋진 공연이었다.



### ♣ 문화예술공연

#### ● 마당극 「新 아리랑 별주부전」(09.17. / 횡성문화관)

‘아리랑’ 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관적인 삶을 해학적으로 전개한다는 점을 높이 고전과 노래아리랑의 접목이랑 점에서 의미도 크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분위기적으로 구성되며 애상적인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크며,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는 ‘아리랑 별주부전’ 에 관객들의 정서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배려했다.



## 향토문화교육사업

### ♣ 문화강좌

#### ● 2015 횡성문화원 문화강좌 (12.02. / 횡성문화관)

관내 횡성고, 횡성여고, 안흥고, 둔내고, 갑천고, 민족사관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김동정님을 초청해 “횡성의 인물들이 말하는 역사적 교훈”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 ♣ 문화유적지순례

문화원은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차례에 걸쳐 관내 중·고등학생,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관내·외 문화유적지답사를 다녀왔다.

#### 〈관내 문화유적지답사〉

1차 : 2015. 5. 7.(목)	대동여자중학교	30명
2차 : 2015. 5. 26.(화)	안흥고등학교	32명
3차 : 2015. 10. 7.(수)	우천중학교	61명
4차 : 2015. 10. 31.(토)	민족사관고등학교	160명



〈대동여자중학교〉



〈안흥고등학교〉



〈우천중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 〈관외 문화유적지답사〉

1차

- 일 시 : 2015. 4. 21.
- 참가대상 : 문화원 회원 및 수강생 150여명
- 답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유적지 일원  
(현충사,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맹씨행단 등)

2차

- 일 시 : 2015. 10. 21.
- 참가대상 : 문화원 회원 및 수강생 102명
- 답사지 : 제17회 이전 쌀 문화축전 및 이천·여주 문화유적 일원  
(기원마당, 풍년마당 등)



현충사



외암민속마을



기원마당



신륵사

##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 ●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3. 5. / 교항리 전천 둔치)

우리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횡성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전통민속놀이 재현과 체험을 통하여 고유의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3월 5일 교항리 전천 둔치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및 민속놀이 행사를 가졌다.



### ● 제20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11.20.)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하여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강원도 시·군별 13개 문화원팀의 경연이 있었고 횡성문화원 어사대 풍물패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 ● 횡성회다지소리민속문화제(4.11. ~ 12.)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정금리 민속마을에서 열린 제29회 횡성회다지소리민속문화제행사로 향토문화의 발전과 전통민속문화를 보존, 전승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 ● 향토문화기록촬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향토문화유적등과 각종 문화생사 자료들을 촬영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고 있다.

## 애향활동 전개사업

### ● 애향지 발간

횡성문화원 애향지 통권 제30호로 발간되는 『2015횡성문화』는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향토문화의 연구, 향토문화 숨결,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학습문화의 고찰, 문화유산을 찾아서, 문예마당, 문화원 소식 등을 수록해 전국문화원과 문화원 회원 및 관내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자료실 등에 배포하여 횡성을 알리는 애향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 향토인물 선양, (故)이연승선생 추모 동시비건립 제18주년기념 어린이글짓기대회(5.20.)



아동문학가로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던故(故)이연승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시심과 동심을 심어주며 새로운 창작 문화 활동을 창달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금년에도 어린이글짓기대회가 동시비가 위치해 있는 횡성초등학교에서 열렸다. 5월 20일 열린 글짓기 대회는 횡성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등학교, 약178여명이 참가해 동시부문 133편중 54명, 산문부문 45편중 20명을 입상자로 선정해 시상하였다.

## 시설관리 유지사업

- 문화원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화원 홈페이지를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통해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능률 또한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 향토자료조사사업

### ❁ 향토자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전해져오던 풍속·민속이 대부분 마을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강림면 곧은치·솔거리 마을은 지역의 특수성과 마을사람들의 노력으로 아직까지 대부분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일을 시키기 위하여 마을민속자인 향토자료 제28집 “곧은치·솔거리 사람들의 ?과 문화”를 발간하였다. 이로써 전국문화원,



유관기관, 단체,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여 향토지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 향토사 연구

### ● 제25회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8.28.)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가 개최된다. 금년에는 삼척문화원에서 열렸으며 횡성문화원은 홍주민님이 “횡성 항일의병의 주둔지 봉복사와 그 의미”라는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 ● 향토사연구비교답사(11.17~18)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타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켜 나기는데 이바지 하고자 횡성문화원임원 15명은 대가야 문화권의 대가야 박물관, 왕릉전시관, 지산동고분,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우륵박물관, 산림녹화기념 숲, 부곡하와이, 창녕석빙고, 창녕박물관, 우포 늪 등 향토문화유적들을 비교답사 연구하였다.

● 향토사료자료「향토인물(고형산, 조충장군, 조성건)」발굴조사(10.27.)

향토사료자료 발굴조사사업에 일환으로 향토문화유적지인「향토인물(고형산, 조충장군, 조성건)」등 답사조사.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보존 및 계발을 전개시켜 나가고자 답사조사 하였다.



**문화학교 운영사업**

매년 지역주민들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성 계발 및 지식기반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으로 사회적역량을 높여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각 대회에 출연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

2015년도 운영현황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명	교육기간	수강인원	수료인원
서예교실(한 글)	한글필법	김해동	3.16. ~ 12.18.	13	8
서예교실(한 문)	한문필법	천금용	"	21	13
서예교실(문인화)	문인화필법	천금용	"	16	10
유학교양	논어해설	김인규	"	12	9
어르신 풍물교실	장구,북,징,꽝과리 사물 및 기능	김혜숙	"	25	19
사물놀이(아 간)	장구,북,징,꽝과리 사물 및 기능	송세영	"	18	7
국악(판소리)	국악기악 및 창법	박양순	"	17	10
가야금교실	가야금 기초기법 및 기악	김연옥	"	16	8
태평댄스교실	태평댄스 기초 스텝	김명진	"	17	5
한국무용(기본무)실버	한국무용(기본무)사위 실기	김영아	"	13	13
에어로빅	건강체조 실기	조미경	"	37	34
계	11개 과목		8개월	205	136



〈서예(한글)교실〉



〈서예(한문)교실〉



〈서예(문인화)교실〉



〈유학교양교실〉



〈어르신풍물교실〉



〈사물놀이교실〉



〈국악(판소리)교실〉



〈가야금교실〉



〈탭댄스교실〉



〈한국무용(기본무)교실〉



〈실바에어로빅교실〉

## 제16기 문화학교 운영성과

- 제20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장려상)
- 제10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에어로빅대회(대상)
- 강원도 어르신에어로빅경연대회(대상)
- 제11회 황성한우축제 공연참가 (어르신풍물, 한국무용, 국악, 실바에어로빅, 사물놀이 등)

- 제1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에어로빅대회(대상)
- 제70주년 광복절기념축하공연(광화문)
- 제50회 강원도민체전식전축하공연
- 2015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전국대회(금상)
- 제34회 대한민국미술대전(입선1)
- 제6회 강원서예문인화대전(특선1, 입선1)
- 제25회 강원서예대전(특선2, 입선5)
- 제10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특선3)
- 제5회 의암유인석선생전국회호대회(차하1, 특선1, 입선2)
- 제6회 서울아차산 전국국악경연대회 신인부 (대상)
- 제24회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장려1)
- 제16회 석봉한호선생전국회호대회(입선2)
- 제18회 김삿갓문화제전국회호대회(특선1, 입선2)
- 제3회 자암김구선생전국서예대전(입선1)
- 제3회 회현안향전국회호대전(입선2)
- 제8회 횡성평생학습축제회호대회(특선3)
- 제8회 횡성평생학습축제회호대회(최우수1, 우수1)
- 제18회 김삿갓문화제전국회호대회(입선4)
- 제5회 세종대왕전국한글회호대회(입선2명)
- 제18회 김삿갓회호대회(특선1명, 입선2명)
- 제8회 평생학습축제회호대회(특선1명)
- 제25회 강원서예대전(입선2명, 특선1명)
- 제3회 영주회현(안향)선생회호대회(입선1명)
- 제11회 탄허대종사 선사함양전국회호대회(특선1명, 장려상1명, 입선1명)
- 제10회 단오서화대전(특선1명, 입선1명)
- 제10회 한반도미술대전(특선1명, 입선1명)
- 제1회 인제여초선생회호대회(입선1명)

## 전통문화체험학습

### ● (7.27. ~ 8.7. / 문화사랑방)

한 여름방학 전통문화체험학습이 열렸다. 사물놀이, 가야금 배우기, 부채 만들기 체험, 우리춤 배우기, 국악 배우기(판소리 E남도민요), 황성회다지소리 체험관 현장학습, 천연염색 체험, 한지공예, 전통 떡 만들어 먹기 등의 수업이 있었으며 21명이 2주 동안 참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기타지원 문화사업

### ● 2015년 황성 어르신 노래자랑(9.10. / 황성문화관)

황성 어르신 노래자랑은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숨겨진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황성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9월 10일 열렸다. 총31팀이 참가하여 10팀 입상자들에게 시상금과 부상을 수여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 하였다.



## ● 국악예술대공연(11.26. / 황성문화관)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우리지역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5 황성군민을 위한 국악예술대공연' 이 문화원 주관아래 11월 26일 열렸다. 특히 박애리 KBS국악대상 판소리상 및 대상수상,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춘향가>이수자를 포함한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은 아쟁 대금산조 시작으로 무당춤, 서도민요, 부채춤, 가야금병창, 윤충일의 각설이타령, 남도민요, 판소리 등 여러 장르의 국악예술대공연이 진행됐다



## 어르신문화학교사업

###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학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은퇴 후 생활을 문화예술 건강 콘텐츠인 전통예술문화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여건을 제공하고 양성과정을 통해 향후 어르신 풍물패 봉사공연단을 조직하여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의 공연을 통해 세대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제·축제 등에서 시연공연활동을 해왔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총25명의 풍물단원들이 관내 행사 및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공연을 펼쳤음.



## 횡성문화 통권 제30호 편 · 집 · 후 · 기



### ‘횡성문화 2015’ 를 마무리 하며,,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일찌기 공자께서는 옛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옛것을 잘 살피고 보존해야 우리문화가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건 당위다.

우리 고장의 지나 온 역사와 고장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알아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횡성문화원이 우리고장에 터 잡고 어느덧 반세기.

횡성문화원은 시종일관 우리전통문화 보존과 창달에 열정을 다 해 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매년 발행되는

연간지 ‘횡성문화’ 와 ‘향토사료집’

진한의 마지막 왕이었다고 하는

‘태기왕’

우리 역사서 어디에도 그 실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고장 곳곳에는 태기왕의 전설과 지명유래 등이 수 없이 전해져 오고 있다.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이 없어 늘 아쉬움으로 남던 차에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이영식 교수에 의해 막연히 구전되던 전설이 구체화 된 패러다임이 만들어져

뒤늦은 감은 있지만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그런 일련의 서사들을 집중 조명 했고  
책 표지도 태기산성을 컨셉으로 만들어 봤다.

우리고장의 삶과 문화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옥고 보내주신  
펼친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편집위원으로 기꺼이 참가해 주셔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모쪼록

이 책이 횡성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횡성을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텍스트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놓아 본다.

2015. 12. 20.  
횡성문화 통권 제30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재영

## \* 문화원 회원 입회안내 \*

횡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 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 10,000원**

**연회비 : 30,000원**

**횡성문화원 ☎ 343-2271**

- 편집위원장 : 정재영
- 편집위원 : 박현숙, 이병곤, 이영식, 진광수, 한상균, 현원명

## 2015 **횡성문화** (통권 제30호)

발행일 \_ 2015.12.30

발행처 \_ 횡성문화원 ☎ (033) 343-2271

발행인 \_ 박순업

기 획 \_ 홍성진

디자인 · 제작 \_ 서원기획 ☎ (033) 343-2404

※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본 책자의 일부 내용은 횡성문화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